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

-학부모, 학생, 교사, 사교육
전문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 학 박사 학 위 논 문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
-학부모, 학생, 교사, 사교육
전문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오 준 일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남 미 숙

남미숙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25일



주 심	교육학 박사	조 윤 경 (인)
위 원	교육학 박사	박 매 란 (인)
위 원	교육학 박사	박 종 원 (인)
위 원	언어학 박사	권 선 희 (인)
위 원	응용언어학 박사	오 준 일 (인)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5
1.3 연구의 제한점	7
1.4 용어의 정의	8
1.5 논문의 구성	10
II. 이론적 배경	11
2.1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11
2.1.1 조기영어교육 실시의 타당성 논의	11
2.1.2 조기영어교육 실태	13
2.2 초등영어교육	14
2.2.1 초등영어교육의 도입 과정	14
2.2.2 초등영어교육과정의 실제	17
2.2.3 초등영어교육 현황	20
2.2.3.1.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	20
2.2.3.2 초등학교 영어교육 활동	23
2.2.3.3 초등학교 영어교육 지원	26
2.3 영어사교육	30
2.3.1 영어사교육 발생원인	31
2.3.2 영어사교육 실태	33

2.3.3 영어사교육 효과.....	35
III. 연구 방법	40
3.1 연구 대상	40
3.2 연구 도구	44
3.2.1 학부모용 설문지.....	44
3.2.2 교사용 설문지	51
3.2.3 학생용 설문지.....	52
3.2.4 영어사교육 전문가용 설문지.....	53
3.3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54
3.3.1 자료 수집 절차	54
3.3.2 자료 분석 방법.....	56
IV. 결과 분석 및 논의	58
4.1 취학 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	58
4.1.1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	58
4.1.2 취학 전 자녀의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91
4.1.3 취학 전 학부모의 자녀 영어사교육 결정요인.....	102
4.2 취학 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	111
4.2.1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	112
4.2.2 취학 후 자녀의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143
4.2.3 취학 후 학부모의 자녀 영어사교육 결정요인.....	162
4.3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인식.....	177

4.3.1 학생들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인식 분석.....	177
4.3.1.1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학생의 인식 분석.....	177
4.3.1.2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학생의 인식 분석.....	179
4.3.2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교사 인식 분석.....	181
4.3.2.1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181
4.3.2.2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183
4.3.3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인식 분석.....	186
4.3.3.1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인식 분석.....	186
4.3.3.2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에 대한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인식 분석.....	188
V. 결론 및 제언	196
5.1 연구과제별 결론	196
5.1.1 연구과제 1의 결과.....	196
5.1.2 연구과제 2의 결과.....	199
5.1.3 연구과제 3의 결과.....	203
5.2 교육적 함의 및 제언	206
 참고 문헌	 211

부 록

1. 학부모용설문지 작성을 위한 학부모 면담자료의 범주별 코딩 빈도 수	226
2. 학부모용 설문지	227
3. 교사용 설문지	238
4. 학생용 설문지	240
5. 영어사교육 전문가용 설문지.....	242



표 목차

<표 1> 체육·미술·음악과 초등 영어전담교사 현황 비교.....	21
<표 2> 전 교과목과 초등 영어전담교사 현황 비교.....	21
<표 3> 국가별 초등영어교육 도입 시기와 시수 현황.....	23
<표 4> 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주요내용 비교.....	24
<표 5> 연도별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TEE 실시현황.....	26
<표 6>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	28
<표 7>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	28
<표 8> 연도별 초등학교 유학생 현황.....	34
<표 9> 시·도별 초등학교 유학생 수.....	36
<표 10> 초등학교의 영어사교육 정도와 영어성취도.....	37
<표 11> 학부모 학력에 따른 초등학교의 영어성취도.....	38
<표 12> 초등학교 6학년 지역별 영어성취도.....	38
<표 13> 학부모 참여자 현황.....	41
<표 14> 학생 참여자 현황.....	41
<표 15-1> 교사 성별.....	42
<표 15-2> 참여 교사별 교직경력.....	42
<표 15-3> 급지, 학년별 교사 참여자 현황.....	42
<표 16-1> 영어사교육 전문 강사 참여자 성별.....	42
<표 16-2> 영어사교육 전문 강사 교수경력.....	42
<표 16-3> 영어사교육 전문 강사 담당 수준 현황.....	44
<표 17> 학부모 면담 참여자 및 자녀 영어사교육 현황.....	45
<표 18> 학부모용 설문지 구성.....	47
<표 19> 세부 요인별 설문 항목 내용.....	47
<표 20> 초등 교사용 설문지 구성.....	51
<표 21> 초등학교용 설문지 구성.....	52
<표 22> 영어사교육 전문가용 설문지 구성.....	53
<표 23>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	59
<표 24>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시기.....	59
<표 25>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	59
<표 26>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60
<표 27>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60
<표 28>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60

<표 29>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64
<표 30>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시의 차이.....	64
<표 31>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65
<표 32>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66
<표 33>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67
<표 34>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68
<표 35>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72
<표 36>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시기의 차이.....	72
<표 37>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73
<표 38> 학부모 학력에 따른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74
<표 39> 학부모 학력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75
<표 40>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76
<표 41>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79
<표 41-1> 학부모 소득에 따른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에 대한 Welch-Aspin 검정 결과.....	80
<표 42>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80
<표 43>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81
<표 44>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82
<표 45>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83
<표 46>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84
<표 47>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87
<표 47-1> 자녀 학년에 따른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정결과.....	87
<표 48>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88
<표 49>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88
<표 50>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89
<표 51>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89
<표 52>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90
<표 53>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 인식 우선순위.....	92
<표 54>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 우선순위.....	93
<표 55>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 우선순위 분석.....	94
<표 56>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인식 우선순위.....	95
<표 57>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 인식 우선순위.....	98
<표 58>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들었던 점 인식 우선순위.....	99
<표 59>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와 관련된	103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표 60>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03
<표 61>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 환경과 관련된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04
<표 62>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04
<표 63>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 효과와 관련된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05
<표 64>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05
<표 65>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과 관련된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06
<표 66>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07
<표 67>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사회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08
<표 68> 사회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08
<표 69> 취학 전 영어사교육비를 결정하는 인식 요인들의 효과 크기 순위.....	109
<표 70>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	112
<표 71>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시기.....	112
<표 72>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113
<표 73>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113
<표 74>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114
<표 75>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116
<표 76>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117
<표 76-1> 학교급지에 따른 영어사교육 시작시기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117
<표 77>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118
<표 78>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119
<표 79>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120
<표 80> 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123
<표 81> 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124
<표 82> 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125
<표 83> 부모 학력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126
<표 84> 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127
<표 85> 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130
<표 86> 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131
<표 87> 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132
<표 88> 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133

<표 89> 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134
<표 90>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137
<표 91>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138
<표 92>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139
<표 93> 자녀 학년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139
<표 94>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140
<표 95>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의 우선순위 분석.....	144
<표 96> 취학 후 영어사교육 환경요인의 우선순위.....	145
<표 97> 취학 후 영어사교육 효과에 대한 부모 인식의 우선순위.....	146
<표 98> 취학 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의 우선순위 분석.....	147
<표 99>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의 우선순위 분석.....	148
<표 100>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우선순위 분석.....	154
<표 101>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든 점에 관한 우선순위.....	155
<표 102>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시작 할 조건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	156
<표 103>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진술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	159
<표 104>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	161
<표 105>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의 중다회귀분석.....	163
<표 106>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에 관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64
<표 107>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64
<표 108>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65
<표 109>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65
<표 110>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66
<표 111>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67
<표 112>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67
<표 113>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68
<표 114>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69
<표 115>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사회구조적 측면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69
<표 116> 사회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 요인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70

<표 117>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학교영어교육 인식의 중다회귀분석.....	170
<표 118>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171
<표 119> 영어사교육 비용 결정 인식요인들의 효과크기 순위.....	172
<표 120>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부모 인식 요인.....	173
<표 121>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학습자 인식요인 분석 결과.....	178
<표 122>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79
<표 123>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학습자 인식요인 분석 결과.....	180
<표 124>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80
<표 125>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교사인식 요인분석 결과.....	182
<표 126>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83
<표 127>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사인식의 요인 분석 결과.....	184
<표 128>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85
<표 129>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전문가 인식요인 분석 결과.....	187
<표 130>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88
<표 131>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에 대한 전문가 인식요인 분석 결과.....	189
<표 132>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90
<표 133>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가 인식하는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192
<표 134>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가 인식하는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여건.....	193

그림 목차

〈그림 1〉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에 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93
〈그림 2〉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에 대한 문항 값의 범위.....	94
〈그림 3〉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에 대한 문항 값의 범위.....	94
〈그림 4〉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에 대한 항목 값의 범위.....	96
〈그림 5〉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99
〈그림 6〉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들었던 점 인식 문항 값의 범위.....	100
〈그림 7〉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에 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144
〈그림 8〉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에 대한 문항 값의 범위.....	145
〈그림 9〉 취학 후 영어사교육 효과에 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146
〈그림 10〉 취학 후 영어사교육 효과에 대한 항목 값의 범위.....	147
〈그림 11〉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에 대한 항목 값의 범위.....	149
〈그림 12〉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154
〈그림 13〉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든 점에 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155
〈그림 14〉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받도록 할 조건 인식 문항 값의 범위.....	157
〈그림 15〉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진술 인식 문항 값의 범위.....	159
〈그림 16〉 학교영어교육과 관련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161
〈그림 17〉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79
〈그림 18〉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81
〈그림 19〉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83
〈그림 20〉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85
〈그림 21〉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88
〈그림 22〉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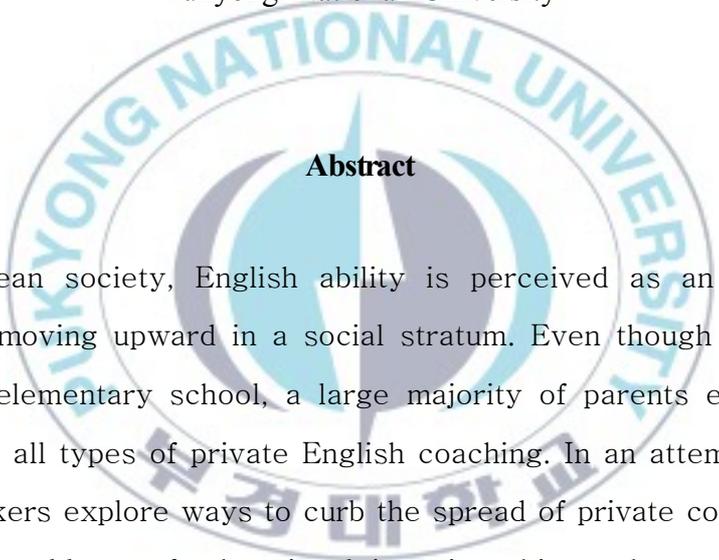
**A Study on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Private English Coaching:
Perceptions of Parents, Students, Teachers, and Private-sector Specialists**

Mi-sook Na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Korean society, English ability is perceived as an important means of moving upward in a social stratum. Even though English is taught in elementary school, a large majority of parents enroll their children in all types of private English coaching. In an attempt to help policy-makers explore ways to curb the spread of private coaching and solve the problems of educational inequit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parents, elementary school childr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private-sector specialists and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private English coaching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hat perceptions do parents have regarding preschool private English coaching for their children, and what are the possible determinants of preschool private coaching? 2) How do parents perceive private English

coaching for thei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what are the possible determinants of private coaching after elementary school admission? 3) What are the per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private-sector specialists regarding the determinants of private English coaching?

A total of 1,436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cluding 811 parents who have children in third to sixth grades, 426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ird to sixth grades who are receiving private English coaching, 102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97 private education sector specialists in the Busan area. Parents were selected to represent different social economic status ranging in Busan, too. All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to questionnaires intended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on private English coaching.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121, 23, 36, and 36 items for parents, elementary school children, teachers, and private-sector specialists, respectively.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12.0. Attempts were made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rough frequency analyses, chi-square analyses, regression analyses, factor analyses, meta-analyses, independent-samples t-tests, Welch-Aspin t-tests, ANOVA's, and mean comparison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05.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xtent of private English coaching depended o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as a result an English ability gap is expected to exist among students from different social strata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private coaching experience.

Second, 10 potential determinants of preschool private English coaching and 17 of private coaching after elementary school admission could be identified. Also, potential determinants of private coaching as perceived by students, teachers, and private-sector specialists could be identified and prioritized. The importance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topped the list of potential determinants of private coaching. Parents wanted their children to receive private coaching which they think better English-learning environments and customized English programs suitable for their children's English ability level. They hoped that their children would have a good command of English through private coaching.

Third, the tendency to prefer private English coaching was shown partly attributable to the social climate where educational achievements strongly affect people's future success. Since getting into special-purpose high schools or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later entering to prestigious universities is considered evidence for the educational achievements, many parents were found to believe that their children should meet the qualifications for admission, one of which used to be a high proficiency of English. Public English language education was perceived by a large number of parents as not sufficient to develop their children's English ability to the desired level. This distrust of public education appeared to lead to a worrisome increase in private English coach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Finally, parents were shown to depend on private coaching, but at

the same time, many of them said they would probably discontinue private coaching for their children if public-sector English language education could offer level-differentiated, quality instruction that matches that of the private sector. This has revealed that many parents' clear willingness to be set free from the burden of private coaching expenses. This also suggests that the problems of prevalent private coaching may be eas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good English program in the public sector.

The findings of the study, especially those regarding the determinants of private coaching, ha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First, attempts should be made, at the national level, to incorporate some of private English coaching prior to the third grade into the public sector. Second, the national curriculum must be reconsidered and possibly reformed to meet the needs of the stakeholders including parents, students, and teachers. Third, the environment for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hould be urgently improved to help curb the growth of private coaching. Finally, the social climate should change so that English ability may be emphasized as a means of achieving global competitiveness, not as a means for entering prestigious schools.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ent selection systems of prestigiou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may have to be revamped.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resolving the problems of private English coach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is also hoped that the widening English divide may be halted and eventually bridged.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교육에서 평등은 교육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Coleman, 1966). 우리나라에서도 1945년 이후 의무교육제 실시, 교육의 무상화, 평준화, 우열반금지 등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차원의 정책들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학생의 학업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학력이라는 Coleman(1966)의 연구는 학교교육의 사회적 평등기능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김달효, 2006; Husen, 1975).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균등한 영어 학습기회(교육부, 1997)와 평등한 영어 학습효과(김진철·박기화, 1999)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학교정규과정에 도입되었고,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지역·계층 간 영어교육격차해소라는 교육정책목표(교육과학기술부, 2008b) 아래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영어공교육 정상화와 수월성교육으로 영어교육 격차(English divide)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영어교육혁신팀 구성(교육인적자원부, 2006a), 초등 영어교육 시수 확대(교육과학기술부, 2008b) 등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또, 2010년까지 전국의 중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교육인적자원부, 2005b), ‘제주 영어교육 도시조성 방안’(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07), ‘부산 발 공교육혁명’(부산광역시 교육청, 2007)으로 시작된 부산, 인천, 진해, 광양 영어몰입교육시범실시, ‘서울시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서울특별시 교육청, 2009) 등의 영어정책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영어공교육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초등영어 도입 이후 학생들의 영어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권오량, 2006).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영어능력이 특목고 및 명문대 진학, 고소득 취업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학벌중시풍토는 영어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현주, 2003).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열기와 상대적 불안감으로 인해 부모들은 학교영어교육이 자녀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고, 영어 관련 사교육에 점차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에 이르렀다.

박약우(1999)가 우려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6조 9천억 원(통계청, 2008)의 영어사교육 비용이 지출되며, 초등 영어사교육비는 2009년의 경우 2007년 대비 15.9%(통계청, 2009)가 증가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안선희, 2009). 이와 함께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불안과 열기가 맞물려 영어 관련 사교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 대한민국 영어보고서’(한국영어교육학회·MBC, 2006)에 따르면 영어사교육 학습관련 국내투자비용만 연간 14조원에 이르며, 2008년 초중고생 사교육비 지출 중 영어가 1인당 한 달 7만 6천원(통계청, 2009)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들이 발표(교육과학기술부, 2008c; 서울시특별시교육청, 2009)될 때마다 주식시장에서 영어교육 주가는 일제히 상승(박형수, 2009)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차별화 된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기대는 국내 영어사교육조차도 만족하지 못해 해외영어권국가로의 유학으로 이어져, 초등학생 순수 조기유학생 수는 2000년 705명에서 2005년 8,148명, 2007년에는 12,341명(한국교육개발원, 2008)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사실상 대도시의 많은 학교에서 학교영어교육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모들은 초등학교 영어교육, 특히, 교사의 영어능력 자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박장현, 2001), 부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영어교육에 대한 강한 불신(박지성, 2003)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사교육 필요성(이종재, 2003)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막대한 국가적 교육비 손실과 가족해체,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위한 주부들의 구직, 소득계층간의 위화감, 학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생 생활지도의 부재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시도별 해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체 유학생의 71.6%가 서울과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고, 주된 수요계층은 서울의 강남, 수도권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의 고소득층으로 나타나(윤정일·백순근, 2006) 교육환경간 차이가 교육기회 불균등(이종재, 2003)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환경과 영어사교육 경험은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자신감, 태도에 영향(김경애, 2008)을 미치며,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영어사교육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김진남, 2005)을 주어 영어교육격차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기회 불균등으로 인한 성취도 격차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누적되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심각한 차이로 나타났다(유한구, 2006). 초등 영어성취도 검사결과(교육과학기술부, 2009c)에서 나타난 극심한 지역 양극화현상은 결국 영어교육의 인프라 격차(조선일보, 2009)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구분되는 교육환경이 학교교육과는 독립적으로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환경 간 교육격차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의 계층 간 대물림을 좌우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유한구, 2006)이 높으며, 교육이 세대 간 계급 재생산의 구조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조선일보, 2009)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의 역동성과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의 사회적 배치기능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학교영어교육 정상화는 영어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영어교육격차 해소와 나아가 교육평등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영어교육 정상화 실현은 학교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수행이며, 이를 위한 출발은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어교육정책의 수립에 있다. 특별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의 특성상(Clark, 1989) 교육과정 개정과 혁신 등의 계획 수립 시 여러 가지 잠재적 요인(Markee, 1997)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요인(Van Els, Bongaerts, Extra, Van Os, & Janssen-van Dielen, 1984)과 교육과제(project), 교육기관(Morris, 1994), 교사, 학습자(Nunan, 1989), 그리고 채택과 적용(Morris, 1994) 등 요인들은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상황으로 고려되어야하며, 이어 수행한 교육과정의 영향을 확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Beane, 1993). 이러한 잠재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면밀하고 포괄적인 상황분석(situation analysis) 아래 계획된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만으로도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이어져(Richards, 2001) 궁극적으로 영어사교육으로 인한 영어교육격차 해소라는 과제 해결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 학교영어교육과 관련된 교사, 사교육현장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영어공교육 불신과 영어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을 찾는 것은 영어교육정책 혁신의 성공을 위한 잠재적 요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국내의 영어사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영어사교육의 실태나 조기영 어언어정책의 실효성,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며(김수민, 2005; 이운영, 2008; 장유진, 2007; 황영선, 2007), 영어사교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잠재적 요인을 체계

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사교육 결정의 주체인 학부모(최우미, 2006)와 학생, 공교육 현장의 교사들 그리고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영어사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규명된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은 영어사교육을 완화하고 영어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영어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사교육 결정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교사 그리고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영어사교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 과제 1]

학부모의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을 알아본다.

- (1) 초등학교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 (2) 초등학교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3) 초등학교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과제 2]

학부모의 취학 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을 알아본다.

- (1) 초등학교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 (2) 초등학교 취학 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3) 초등학교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과제 3]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여건에 대한 초등학교생, 교사, 영어 사교육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다.

- (1)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여건에 대한 초등학교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 (2)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여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3)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여건에 대한 영어 사교육 전문가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목적에 의해 설문 조사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심층 면담 자료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각 집단의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분석하여, 규명된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을 기반으로 영어사교육 완화와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영어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초등학교생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학부모,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 집단의 인식에 관한 조사이다. 연구 참여자 대상의 다양성을 위해 3학년 이상 초등학교생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교육환경의 적

합한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사교육비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소득을 고려하여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부터 농, 어촌 지역 학교까지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 도구는 설문지(학부모용, 학생용, 교사용, 영어 사교육 전문가용)이다.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섯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참가자 선정에 있어서 부산광역시라는 특정도시 소재 6개 학교의 학부모, 학생, 교사와 H구와 S구, D구 소재의 S어학원 외 16개 영어사교육 기관으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학부모와 교사, 학생 그리고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에서부터 농·어촌 지역 학교의 네 개 급지로 나누어 표집하여 가급적 전국 초등영어교육 현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여건을 고려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설계·분석되었기 때문에, 인식요소 이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 대상에 영어교육 행정전문가인 교육정책 입안 관계자, 장학사, 학교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가 영어사교육 결정요인 규명에 있어 영어교육에 관여하는 대상의 모든 변인을 포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넷째, 학부모,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용 설문지 작성 및 배포시기 가 달라 대중매체 보도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의해 연구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위한 목적으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중·고등 학생 영어사교육 인식과 결정요인을 연구한다면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4 용어의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영어사교육, 영어사교육 비용,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1 영어사교육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칭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개인적인 교육적 필요에 의해 개인이 주체가 되어 학교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활동(김영철·양승실·김영화·이주호, 2001; 이인숙, 2004; 이종재, 2003)을 말한다. 즉,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김영철 외, 2001; 최상근, 2003)이다. 본 연구의 영어 사교육은 학교의 정규 영어 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영어학원 수강, 영어 학습지, 그룹지도, 개인지도, 영어캠프, 온라인 영어 학습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전승현, 2005) 학교 방과 후 영어교육활동 등의 다양한 영어교육의 형태를 포함한다.

1.4.2 사교육비와 영어사교육 비용

사교육비란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로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

을 말한다(김홍주·한유경·김현철, 1999). 즉, 학교의 정규교육활동 밖에서 개인적인 보충교육을 받기 위한 모든 보충교육활동에 지출되는(안선희, 2009) 보충교육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영어사교육 비용은 정규 영어 교육과정 이외의 영어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영어교육비를 말한다.

1.4.3 조기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은 조기언어교육(early language learning)에서 파생된 용어(박장현, 2001)로써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인 12세 이전의 아동들에게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Rivers, 1981)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조기영어교육은 대개 3~4세부터 학령 전 교육기관이나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학자에 따라 그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혜란(1996)은 조기영어교육의 개념을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상급 아동 수준까지의 영어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배두본(1997)은 초등학교영어교육(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 TELES) 즉, 국가 제도권 아래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영어조기교육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외국어 교육의 국제적 추세와 맞물려진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로 영어교육 시작 연령은 하향되어, 학령 이전의 유아들에게도 유치원과 각종 사설 영어교육기관, 학습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영어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영어교육을 조기영어교육으로 간주한 배두본(1997)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정의는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조기영어교육으로 간주한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완기(1998)는 7세 이전에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을 영어조기교육이라 하

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인 초등영어교육과 구별하고 있다. 이병진(2002)도 조기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전 만 6세까지의 기간에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영어교육 용어의 개념을 이완기(1998)와 이병진(2002)이 주장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행하여지는 영어교육의 의미로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1.5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선정한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범위, 연구 과제, 연구의 제한점, 용어의 정의에 관해 기술한다. 제 2장에서는 조기영어교육, 초등영어교육, 영어사교육 전반에 관하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도구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을 자세히 진술한다. 제 4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학부모,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 과제에 따라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연구 과제별로 요약하여,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교육적 함의와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 영어공교육정상화의 방향 모색과 향후 연구 과제의 방향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의 제 1절에서는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2절에서는 초등영어교육 도입의 과정, 개정된 초등영어교육과정의 실제 및 초등영어교육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3절에서는 영어사교육의 발생 원인과 실태, 영어사교육의 효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1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2.1.1 조기영어교육의 타당성 논의

긴밀한 국제관계로 인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50년대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조기외국어 교육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고조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유치원과 사설 영어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혜란, 1995; 장복명·임원신, 1999). 본 장에서는 조기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기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인 Chomsky(1965), McNeil(1996), Slobin(1982)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언어습득을 할 수 있는 언어습득장치(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타고나 이 장치가 가장 왕성한 유아기에 조기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Eliot, 1983)이라고 한다. 언어학습은 유아기에 가장 활발하여(Lenneberg, 1967; Piaget, 1968; Slobin, 1982) 사춘기 이전이 외국어 습득에

효과적인(Krashen & Terrell, 1983)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학 전 조기 영어교육 실시가 영어습득에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Penfield와 Robert(1959)는 언어 습득은 뇌 발달에 의해 좌우되어 뇌의 유연도가 높은 유아기에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아동이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월등하여 제2언어 습득의 최적기를 4세에서 10세사이로 보았다. Lenneberg(1967)도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를 2세부터 사춘기까지라고 주장하여, 신경 생리학적 관점에서 조기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다.

Piaget(1952)는 인지적 관점에서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선천적 인지습득장치(CAD; Cognitive Acquisition Devices)로 인해 구체적 조작기(7-11세)의 인지와 언어발달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언어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고(정동빈, 1998) 생각되며, 조기영어교육 실시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라 하겠다. 윤영애(1989)는 사회 심리학적 측면에서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실수로 인한 공포심과 저항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 자아(language ego)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Guiora, 1972)에 조기영어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반면, 언어습득 장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외국어 교육은 5, 6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기외국어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신용진(1989)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 성인이 불리한 이유는 모국어 환경과 판이한 제2외국어 학습 환경 때문이며, Selinger(1979)도 일정 시기에 뇌의 유연성이 전체적으로 소멸되지 않아, 유아기만이 외국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Brown(1987)은 성인은 어린이에 비해 분명한 동기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추리력과 분석적 사고가 아동보다 우수하고 복잡하여, 추상적인 언어의 측면을 학습함에 있어 어린이보다 훨씬 유리하다(River, 1981)고 주

장하였다. 우남희·서유현·강영은(2002)은 모국어가 아닌 언어학습이 어린이의 정신적 발달에 끼치는 해를 고려하여 조기외국어교육의 비효율성(Savile-Troike, 1988)을 지적하고 있다.

2.1.2 조기영어교육 실태

위에서 살펴본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 효율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 참여 현실(남영필, 2002; 천희영·최미현·좌승화·서현아, 2002)은 이미 찬·반 논의 단계를 넘어섰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조기영어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Jung, 1999), 긍정적인 관심(차지인, 2003)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습지(반경하, 2009; 백지원, 2009), 영어전문유치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아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영·유아에 대한 조기영어교육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연구과제 등을 통해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의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남희 외, 2002). 그러나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틀 안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양옥승·김진영·김현희·김영실, 2001) 조기영어교육의 현실은 학부모의 조기영어교육 요구를 수용하는 유아교육 기관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대적 변화와 학부모 인식에 따른 조기유아영어교육 실시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며, 이로 인한 학부모의 취학 전 조기영어사교육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한유미·이진화, 1997). 취학 전 영어사교육 비용의 지역, 부모의 사회 계층과 부모 소득(김진남, 2005; 신동주, 2004; 정인자, 2005)에 따른 차이는 영어노출량으로 인한 영어교육격차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계층 차이로 인한 영어교육격차는 상당 부분 개인의 노력이나 능

력으로 극복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기영어교육의 타당성 검토(황혜신·황혜정, 2000)를 넘어 필수적인 과제로 받아들일 제도적, 정책적 조기영어교육 방법론을 논의하는 시도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2.2 초등영어교육

2.2.1 초등영어교육의 도입 과정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교사, 시설 및 장비 부족 등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학부모의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통해 영어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목표(Kim, 1987)로 초등영어교육이 정규 교과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초등영어교육 도입의 논의는 197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교부가 외국어 시범 학교를 지정하여 특별활동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려던 계획과 ‘영어’ 교과를 제 3차 교육과정 개정 시 정규과목으로 추가하려던 시도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발표 또한 반대 주장으로 인해 무산되는 등 상당 기간 동안 영어공교육의 도입은 현실화 되지 못하였다(초등영어교육 정책 자료집, 1997).

영어공교육 도입의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설 학원을 통한 영어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은 확대되었다.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영어능력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적응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사회 전반적 인식에 따라 초등영어교육의 도입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1982년 아시안 게임 개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영어 교육 필요성

이 강조되어, ‘초등학교 영어 특별활동 운영 방향’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시간씩 말하기, 듣기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 1984년에는 ‘초등학교 특활 영어’가 라디오에 방송되기 시작하였고, 1985년부터는 텔레비전에 방영되었으며, ‘초등학교 특활 영어’ 교재를 제작·보급(권오량, 2006)하였다.

이어 제6차 교육과정(1972~1997)에서는 학교재량시간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주당 한 시간 영어 과목을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게 하였고, 교육과정을 개정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1996년에는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국 5,370개교(95.2%), 방과 후 상설 영어 운영 받은 3,960개교(70.2%)에 이르렀으나(초등영어교육 정책자료집, 1997), 학생의 희망에 따라 교육비용을 지불하는 영어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의 영어 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논의(Kim, 1987) 아래, 초등영어가 정규교과로 도입되었다(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개발 원칙은 생활 영어를 중요시하며,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동기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학년에서 읽기와 쓰기를 도입하여 문자교육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영어교육 실현과 제6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연계성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초등영어교육의 도입과 실시는 영어에 대한 친밀감(이완기, 2004), 영어능력향상(권오량, 2006; 김진철·박기화, 1999)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으나, 영어사교육의 팽창(박약우·박기화·최희경·이의갑, 2007; 이완기,

2004)과 문화 사대주의, 개인차 심화와 조기좌절, 교수 학습 방법의 문제, 교사의 전문성 부족, 초등영어 평가 과열, 초등영어 시작 연령 하향 등(이완기, 2004)의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다. 특히, 영어를 신분 및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인식하여(천세영, 1997) 영어경쟁력이 곧 외교 등 특목고 입학, 명문대 진학, 사회의 상류층 형성으로 이어지는(김승현, 2009)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영어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정현숙, 2005; Jung & Kang, 2005) 영어사교육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7차 초등영어교육과정에 설정된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김진철·박기화, 1999; 나명희, 2002; 백금숙, 2000; 오순임, 2000; 차경환, 2000; Lee & Park, 2001)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에 잠재적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는(Heining-Boynton, 1990) 충분한 영어구사 능력과 영어교수 능력을 갖춘 교사의 부족, 설계가 적절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여건문제가 지적되었다(오준일, 2004). 따라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와 성취기준 설정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초등영어교육목표의 수정(임찬빈·전애리, 2002)과 초등영어교육의 현실적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오준일, 2004).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도입된 제7차 영어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여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고, 학습 내용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6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을 수정 보완하고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목록(제7차 교육과정의 450단어에서 2006년 개정교육과정에서 500단어로 상향조정하였고, 어휘 목록표의 초등 권장 어휘는 736개로 증가) 등을 개선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b). 이와 함께 개정교육과정에서 문자(알파벳) 도입 시기를 4학년 1학

기에서 3학년 2학기로 변경하였으며,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전체적인 난이도를 제7차 교육과정보다 하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영어교육과정 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MD(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성취 수준은 세계 55개국 중 44위로 국민적 관심과 투입규모에 비해 매우 저조하였으며, 영어 사교육비 부담 및 지역별/계층별 영어 학업 성취도 격차가 심화 되는 영어 격차 현상(교육과학기술부, 2008c)의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한국적 영어교육 현실 상황에서 외국어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교육과학기술부(2008)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향상을 위한 실용영어교육 강화와 지역 간·계층 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교육 우선지원의 양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하여 고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여기에 초등학교 3~6학년 영어 수업 시수를 현행보다 1시간씩 증대하여 영어 노출과 영어 사용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게 하였다.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영어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여 학생들의 영어 학력을 높이하고자 개정된 2008 개정 교육과정은 2010년 3월부터 적용되어, 현재 초등학교 3~6학년에서 매주 1시간씩 증가 된 영어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3~4학년 주당 2시간, 5~6학년 주당 3시간).

2.2.2 초등영어교육과정의 실제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영어가 사용되는 환경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008 개정 영어

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간 상호 의존도 증가로 인한 국제적 협력과 경쟁으로 지식과 정보 생산 및 전달 능력이 필요하다는 영어사용환경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개정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성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로서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교육을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구성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일상생활속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의 상황을 위주로 다루고 있으며, 고학년에서는 사회생활까지 표현의 범위를 늘리고 있다. 또 3~4학년에서는 알파벳을 제외하면 거의 음성언어위주의 교육이, 5~6학년도 문자를 읽고 쓰는 학습 활동은 이루어 지나 음성언어가 주가 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매체 활용을 명시하였고,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와 단위학교 사정을 감안한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동일 학급 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08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교육의 목표를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진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로서 의사소통 가능 및 유대를 맺게 하는 역할로서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교육의 목적을 크게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과 균형적인 문화 소양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설정하였다. 영어교육과 관련한 이 두 가지 틀은 제6차 교육과정 이래 개정되어 온 우리나라의 영어교육과정의 일관된 방향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d). 개정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들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 가운데 가장 기초와 중심이 되는 것들로, 대부분의 외국어 학자들이 제시하는 (Krashen, 1983; Richards, 1989; Rivers, 1968)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동일하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직접적인 능력을 기르기 보다는 외국어인 영어에 좀 더 친밀감을 갖게 하도록 하고 있다.

문자언어 중심의 문법이나 언어적 지식에 치중하기 보다는 영어라는 언어의 본질적 특성과 느낌을 익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학습의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반으로 중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영어능력을 기르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영어시수의 확대에 따라 첫째, 음성언어 관련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을 보완하였다. 주당 영어수업 시수 증가는 초등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인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과 연결되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자 언어 관련 읽기, 쓰기 성취 기준이 보완되었다. 영어교육의 초기단계인 초등학교에서 문자 교육 일변도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그 동안 언어학습 원리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문자 학습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영어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어교육 초기에 문자가 도입됨으로써 얻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할 필요성이 초등 영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유윤미, 2006; 이의갑, 2005; 정동빈, 2000; 최소연·조지영, 1999). 따라서 영어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자 언어교육을 보완함으로써 그간 초등영어 교육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의 영어 학습량의 격차문제(김진석, 2007; 박약우·최진황, 2005; 부경순·이완기·이정원·최연희, 2003)를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의 ‘음성 언어 중심-문자 언어보조’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문자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시수확대에 따라 학년별 성취기준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취기준 용어 체계화로 일관성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시수부족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웠던 영어의사소통 기능 배양을 내실화 하였고, 중학교 학습내용과의 괴리를 보완하는 학습 내용의 수준이 조정되었다.

개정영어교육과정에서는 시수증대에 따라 음성언어를 기본으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중심 교육을 실천해 줄 것을 지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년별로 한 시간씩 증가된 초등영어시수로써는 영어 의사소통의 뚜렷한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영어시수확대는 초등영어교육의 내실화로 영어사교육을 완화하려는 영어공교육 정상화의 시발점이 되는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다소 상향 조정된 학습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더욱 다양한 학습활동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영어교육의 효과극대화 실현이 가능하도록 국가 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3 초등영어교육 현황

영어사교육 발생의 원인은 학교영어교육의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등영어교육 현황을 영어담당교사, 영어교육활동, 영어교육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과제인 초·중등 영어교육 현황분석(전병만, 2006)에 제시된 통계를 중심으로 진술하였다.

2.2.3.1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

성공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좋은 교재와 좋은 학습자 다음으로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다(박경자, 1997). 교사는 교재를 활용하여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어 영어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박약우(2007)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영어교사는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각종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 실천도 영어 잘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 확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영어담당교사 및 원어민 교사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영어공교육 환경의 정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현재 초등영어는 영어연수를 받은 담임교사 또는 영어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영어·미술·음악 교과를 전담하는 교과전담교사를 두고 있다. 2005년 현재 위 네 과목 교과전담 교사의 비율 중 영어전담교사의 비율이 43.21%로 가장 높았다. 또, 모든 교과목 대비 영어교과전담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아(37.46%),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은 영어전담교사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2> 참조).

<표 1> 체육·미술·음악과 초등 영어전담교사 현황 비교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소계
4,616(43.21)	2,601(24.35)	2,376(22.34)	1,090(10.2)	10,683(100)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4

<표 2> 전 교과목과 초등 영어전담교사 현황 비교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타	합계
4,616 (37.46)	2,601 (21.11)	2,376 (19.28)	1,090 (8.85)	389 (3.16)	256 (2.07)	3 (0.02)	25 (0.2)	7 (0.06)	773 (6.27)	188 (1.5)	12,323 (10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4

박약우(2005)는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은 교과 전담교사가 담당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교사들 역시 영어능력 부족과 영어 수업에 대한 부담감(Lee & Park, 2001)으로 인해 영어는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임이 전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급 담임제를 기피하고 원어민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기를 원하여(박약우, 2005) 영어교사는 우선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학급담임제는 개별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영어시간 외에도 다른 교과와의 통합, 기타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춘 많은 수의 교사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박약우, 2005). 반면에, 전담교사는 많은 수의 학습자로 인해 개별 아동의 특성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없다는 단점으로 안고 있다. 또, 원어민 교사는 문화와 정서가 다른 학습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보조교사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의 영어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초등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교원 양성제도의 방향은 우수한 영어교과 전담교사의 수급을 목표로 연수와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는 교사가 교실수업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영어수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어교육목표 달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영어교사 확보상의 문제와 영어에 대한 교사의 열의와 긍정적 태도, 학교여건에 따라 학급담임제와 교과전담제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영어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2.3.2 초등학교 영어교육 활동

1) 초등영어교육 도입 시기와 시수 및 교육과정 내용

국제경쟁력으로 부각되는 영어교육의 추세가 초등영어 및 그 이하의 연령대로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조기에 영어교육을 도입·실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스페인은 유치원 과정에서 정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만, 2006). 우리나라에서 초등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 시기를 비교해 보면,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초등1학년 영어도입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은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 시수가 적었다. 국가별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수 현황은 <표 3>과 같다(전병만, 2006).

<표 3> 국가별 초등영어교육 도입 시기와 시수 현황

국가	파키스탄	스웨덴	노르웨이	중국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홍콩	프랑스	말레이시아	한국
영어 시수	630	480	437	210	215	205	180	150	120	116	103
도입 시기	초1	초3	초1	초1	초3	초1	초1	초1	초1	초1	초3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4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과정 목표와 같은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교육과정 내용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의갑(2005)이 요약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 8개국들과 비

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주요내용 비교

우리나라	외국 7개국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 일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능력 중시와 언어사용 능력 신장 • 음성언어 우선의 영어교육 • 활동, 과정/과업 중심의 학습 중시 • 성취 기준의 명료화 및 상세화 • 심화, 보충형 /단계형 수준별 교육의 권장 • 학생 중심의 교육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지향 • 언어 4기능의 통합적 운용 • 타 교과목과의 연계학습의 필요성 • 외국어 학습을 통한 수준 높은 지적능력의 함양 • 교수법 활용의 유연성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4

<표 4>에서 보듯이 외국의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언어 4기능의 통합적 운용과 타 교과목과의 연계학습의 필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립학교를 비롯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의 영어몰입교육 도입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내용중심 영어교육정책연구학교 운영 등으로 타 교과목과의 연계학습을 통한 영어능력 함양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남경숙, 2010). 이러한 노력은 외국어 학습을 통한 수준 높은 지적능력의 함양을 위한 외국의 교육과정 내용과도 부합되어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들이라 할 것이다.

2) 초등영어교과서

현재 초등영어교과서는 한 종류의 국정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교과서나 지도서에 제시된 교수자료의 획일성으로 인해 중요한 수준별 교육 실시를 방해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전병만, 2006). 박약우(2005)에 따르면 초등 교사들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바람직(44.3%)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문가(44.19%)와 일반인(36.9%)은 검인정 교과서를 더 적합한 교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되는 검인정 교과서 개발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양질의 다양한 내용과 수준이 보장되는 교재를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과학 기술부는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목표로 한 ‘교과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검인정 영어교과서가 채택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검인정 교과서 사용은 그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환경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적합한 교과서로 교육이 가능하여, 제한된 시수와 영어사용 환경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영어교육 효과의 증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준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실시 현황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교실수업은 사실상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간이어서 교실수업에서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교육인적자원부(2006)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교실수업에서 가급적 모국어의 사용을 피하고 영어로만 수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표 5>에서 보듯이 주당 1시간 이상 TEE를 실시하는 교사들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주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 주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도 있어 영어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일은 초등영어교육에서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5> 연도별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TEE 실시현황(%)

구분	2002.06.	2003.06.	2004.06.	2005.12.
주당 1시간 이상 TEE 실시	16.5	17.2	16.3	15.9
영어와 한국어 병행	71.6	71.4	70.8	70.1
주로 한국어로 수업	11.8	11.4	12.9	14
계	100	100	100	10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4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노력은 현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우며 (신상윤, 2009),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3개월 국내+3개월 해외’ 방식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도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만족하며, 교사들도 TEE 실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김진옥, 2009) 앞으로 TEE 실시 비율은 증가할 전망이다. 우수한 영어교육 전문가 교사에 의한 TEE실시로 이루어지는 교실수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영어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2.2.3.3 초등학교 영어교육 지원

1) 영어교사 연수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의 성패를 교사의 영어구사능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어교육의 발전과제로 원어민 교사의 확보를 가장 중시하

였다(박명희, 2008). 그러나 박약우(2005)는 지구어로서 영어교육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영어교사는 원어민 교사보다는 내국인 교사로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 간 화자라고 주장한다. 문화 간 화자로서 영어교사가 중요한 이유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영어능력도 중요하지만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 교사들에게 집중적인 영어연수과정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원어민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영어교사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교사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전국 영어 교사들의 22.2%가 영어연수에 참여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영어교사들의 영어사용능력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총 25,500명의 교사들에게 1~6개월의 중·단기 직무연수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 6개월 영어 집중 연수 대상인을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3,500명까지 심화연수를 시키는 등 영어교사 연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소수교사의 혜택, 단기연수(120시간)의 미미한 효과, 연수 장소의 접근성,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동기부여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 교사연수계획과 실시에 있어 보완·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전명만, 2006).

2)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보조교사는 전국적으로 1,183명이 배치, 활용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수는 406명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12월 기준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표 6>에서 보듯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원어민을 초청하였고, 다음으로 전라남도과 서울 순이었다. 전국 원어민 교사 수 1,183명 중 농어촌에 배치된 인원은 262명에 불과하여, 영어교육환경 제

공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격차를 드러내었다.

<표 6>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2005. 12. 현재)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7	0	6	4	4	8	0	200	0	2	1	0	47	0	2	5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4

<표 7>에서 보듯이 2007~2009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배치비율의 평균은 65.46%였는데, 광주(63.95%), 전북(63.59%), 경남(55.37%)은 평균 이하였다. 경북(24.61%), 대구(30.77%), 전남(38.42%), 충북(40.00%)은 40% 이하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역 교육청별 보급 차이는 경북교육청이 제주교육청에 비해 1/4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표 7>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07~'09)

시도	제주	충남	경기	부산	광주	전북	경남	경북	대구	전남	충북
비율(%)	100	90.39	87.13	82.68	63.95	63.59	55.37	24.61	30.77	38.42	4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7~2009학년도 시도 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대부분 캐나다(41.29%)와 미국(38.9%)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교포출신 교사도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는 2010년까지 2,900명으로 확대 배치를 목표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 배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

부, 2006a). 그러나 박약우(2005)의 지적과 같이 원어민 교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한 보조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초등영어교육은 우리나라 영어교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영어교육 시설 확보 및 예산 지원

초등영어교육 목표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신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활동중심의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수적이다.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 및 다양한 학습 자료를 구축한 영어교과교실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며, 방과 후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영어교실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전병만, 2006).

2005년 3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영어교실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있는 곳은 34.72%로 1/3 정도의 학교가 영어교과교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영어교과 교실 확보에 있어 울산, 강원도, 전북, 충남, 경남, 경북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여 지역 간 학교급간 차이를 보였다. 영어교육 시설 확보에 있어서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되어 영어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간, 학교급간 격차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영어교과교실 마련을 추진하여 74.8%가 2010년까지 영어교과교실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전병만, 2006).

영어교육 예산은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49.97%), 다음으로 교수·학습자료(10.58%), 교원영어연수(9.26%), 영어캠프(8.34%)로 나타났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자신

감 향상 뿐 아니라 영어실력 향상, 영어권 나라에 관한 이해 등 인지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교육과학기술부, 2010)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수 인력 자격검증, 단기근속, 관리의 어려움, 농어촌 지역의 근무 기피 등의 문제로 많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한 안목은 영어교육 예산의 절반이 소요되는 원어민 보조교사 초정보다는 우리나라 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에 대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3 영어사교육

사교육은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지도, 학원수강, 학습지, 그룹과의 활동과 같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말한다(이인숙, 2004). 개인적인 교육적 필요에 의해 개인이 주체가 되어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이종재 외, 2003)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충·심화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교육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은 학교교육 내용에서 다룰 수 없는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고 보충지도의 역할을 통해 학업 결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본연의 목적보다는 입시와 성적 위주의 보습학원으로 변질되어 학교교육의 교실수업을 왜곡시키고,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의 기회격차를 초래하는(김지중, 2007) 교육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어사교육 역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영어학습과 함께 외고, 특목고와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안선희, 2009). 나아가 취업과 승진의 주요 변수가 되어 영어 사교육으로 인한 도시지역 학교에서의 영어공교육 무력화는 심각한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중산층 가계의 가장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 요인과 영어교육

격차로 인한 계층 격차를 유발하는 영어사교육의 발생원인과 실태,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3.1 영어사교육의 발생원인

영어사교육의 발달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김영철(1981)은 사교육이 발달하는 원인으로 학교교육의 부실, 사회 경제적 변화, 입시제도의 발달을 들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원인은 교육 수요자가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이주호·우천식, 1998).

영어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되는 학교교육의 부실요인들로 교사, 다인수 학급, 부족한 영어시수를 들 수 있다. 첫째, 현재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영어 비전공 교사로서 단기간의 기본·심화 연수를 받아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영어구사능력에 자신 없어하며,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으로 인한 교사부담의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권태만, 2001). 또, 영어수업에 열의는 있으나,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여 전담교사가 영어수업을 맡기를 원했다(박지성, 2003).

둘째, 평균 35~40명의 다인수 학급에서는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수업제공과 영어부진아의 결손보충이 사실상 어려우며, 영어교과전담교사는 교과 외 시간의 방과 후나 쉬는 시간을 이용한 심화보충이 어렵다. 영어교사들은 다인수 학급에서 영어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팀티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황영선, 2007).

셋째, 영어교과 시수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생활언어인 영어는 모국어 습득과 유사한 환경 노출이 가장 중요하다(박이도, 1998). 현재 초등학교의 주당 2시간(3~6학년)의 영어학습 시간으로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은 더 많은 영어학습 기회와 영어사용 기회를 얻기 위해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안선희, 2009). 위의 영어교사, 다인수 학급, 영어교과 시수 부족과 함께, 영어교과 교실확보, 교수·학습 자료개발, 다양한 교육기자재 확보도 절실하다.

한편, 학교교육 외적 원인으로 첫째, 치열한 입시경쟁이 영어사교육의 발달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김영철, 1981; 김지현, 2001; 송기창, 2002). 특목고 입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 걸쳐 영어사교육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통계청, 2008). 또, 내신 비중강화로 내신 확보를 위한 공교육에서의 경쟁 강화가 입시경쟁전략의 특징을 가진 사교육으로 귀결되고 있었다(김지하·백일우, 2003).

천세영(1997)은 사교육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을 일류대학과 좋은 직장을 얻는 부의 획득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를 지적하였다. 일류대학 입학의 장점을 가진 외교나 특목고는 영어능력 우수자에게 유리하여 우리사회에서 영어능력은 신분 및 교육환경 상승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수한 영어능력이 외교 등 특목고 입학, 명문대 진학, 사회의 상류층 진입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김승현, 2009)속에서, 많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어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안선희, 2009).

둘째, 과열된 영어교육열기와 사교육 기관의 과대광고, 연일 발표되는 정부의 영어정책 또한 영어사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과 경쟁 심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혁신팀 구성,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 영어교육 확대실시를 위한 초등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2006a), 초등영어 시수확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 2008)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 2010년까지 전국의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배치(교육인적자원부, 2006b),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국무조정실, 2007), 부산 발 공교육혁명(부산광역시교육청, 2007)으로 시작된 부산, 인천, 진해, 광양 영어몰입교육시범실시, 서울시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서울특별시교육청, 2009) 등의 영어정책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영어공교육 강화정책들이 발표(서울특별시교육청, 2009)될 때마다 주식시장에서는 영어교육 관련 주식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박형수, 2009)하는 기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부모들은 새로운 영어공교육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불신하고(안선희, 2009),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영어사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어(김지하·백일우, 2003; 유한구, 2006),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수요자 요구를 바탕으로 한 영어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득 수준에 따른 영어과의 수요의 확대(김홍주, 2001)와 지역 간 영어교육격차도 사교육의 주요 원인(김지현, 2001)으로 작용하였다.

이상 영어사교육 발생 원인을 종합하면, 영어사교육은 우수한 영어능력을 원하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영어교육의 부실과 경쟁적 입시제도, 과열된 영어교육 분위기, 계층 상승을 바라는 학부모의 교육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어능력 구비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며 영어교육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영어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어공교육력과 영어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추어가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2.3.2 영어사교육 실태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학부모의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통해 영어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목표(Kim, 1987)로 초등영어교육이 정규 교과에 도입되었다. 초등영어교육의 실시는 영어에 대한 친밀감(이완기, 2004)과 영어능력향상(권오량, 2006; 김진철·박기화, 1999)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영어사교육 팽창(박약우, 2007; 이완기, 2004)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통계청(2009)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2007년(20조 400억 원) 대비 4.3%가 증가하였다. 이 중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10조 4천억 원으로 중학교(5조 8천억 원), 고등학교(4조 7천억 원)보다 약 2배 정도 높아 사교육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2008년 영어사교육 증가 비율은 11.8%로 2007년 대비 과목별 사교육비 중 가장 높아, 전체 사교육 확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09)에 의하면, 2008년 초등학생의 62.7%가 영어사교육에 참여하여 월 8만 원의 영어사교육비를 지출하였고, 초등학생의 영어사교육비 증가율은 2007년 대비 15.9%로 중학교(7.9%)와 일반고(8.5%)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영어사교육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었다.

한편, 학부모들은 보다 나은 영어교육 환경을 위해 해외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¹⁾을 시도하고 있다. 연도별 초등학생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듯이 초등학생 유학생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 영어사교육의 방법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국의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의 유학은 가족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비유학에 속한 통계치를 진술하였음.

<표 8> 연도별 초등학생 유학생 현황

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학생 수	235	705	8,148	13,814	12,341
학생 만 명당 유학생 수	0.6	1.8	20.8	20.8	32.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베이스(2008)

부경순(2003)에 따르면, 78.9%의 초등학생들이 3학년 이전에 영어사교육을 경험하였고, 초등 1~2학년 학생 중 영어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생들이 74%에 달했다(박약우 외, 2007) 또, 5~6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어(박지성, 2003; 정현숙, 2005) 우리나라의 학생들 다수가 영어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영어사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어사교육 증가에 따른 국내 영어사교육 시장 규모는 15조원에 이르며(전효찬·최호상, 2006), 매년 약 1조 5천억 원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상장된 영어교육 5개 전문 업체(정상제이엘에스, 청담러닝, YBM사시닷컴, 능률교육, 확인 영어사)의 상반기 매출은 15.2%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문혜정, 2009). 또, 주기적인 영어교육 관련 주식 가격의 급등(최은주, 2009) 현상은 영어사교육의 증가를 입증하고 있었다. 영어사교육 열기는 막대한 국가적 교육비 손실과 가족해체, 영어사교육비를 벌기 위한 주부들의 구직, 소득계층간의 위화감, 학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생 생활지도의 부재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2.3.3 영어사교육 효과

영어사교육 증가의 폐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영어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신뢰하고(방경희, 2007), 사교육 경험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이동욱, 2008).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학원 강사가 학교 교사보다 전문성과 열의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제민지, 2002; 권아영, 2008; 연보라, 2008).

영어사교육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김진남(2005)은 영어사교육 병행 여부와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영어사교육을 받을수록 학생들의 영어학업 성취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민정, 2009). 영어사교육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 학습태도 등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미나, 2007; 김민정, 2009; 윤은경, 2005; 윤이나, 2008; 정현숙, 2005).

영어사교육을 받은 기간도 영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현정(2002)은 조기영어사교육 경험이 길었던 학생의 쓰기 능력이 더 우수함을 보고하였고, 공희진(2007)도 영어사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고, 선행 학습 시기가 빠를수록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가 높았음을 밝히고 있다.

영어사교육으로 우수한 영어실력을 얻을 수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으로 영어사교육은 지역 혹은 교육환경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어능력의 차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김진남, 2005). 시도별 초등학생 해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듯이 전체의 71.6%가 서울과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고, 조기유학을 하는 초등학생들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적 측면으로 인해 주로 서울의 강남, 수도권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의 고소득층 가정 출신이었다(윤정일·백순근, 2006). 초등학생의 시·도별 유학생 수는 <표 9>와 같다.

<표 9> 시·도별 초등학생 유학생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생수	4,216	513	308	509	183	291	282	4,615	207	138	215	198	113	250	265	32
학생 만 명당 유 학생 수	66.6	22.6	16.2	24.7	14.8	24.1	30.0	50.1	18.7	11.8	14.3	13.8	8.0	13.3	10.4	6.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베이스(2008)

가정환경에 따른 영어사교육 경험의 차이는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자신감,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었다. 영어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김민정, 2009; 소도숙, 2004; 정현숙, 2005; Cheng & Lee, 2003; Jung & Kang, 2005). <표 10>에서 보듯이 3시간 이상 영어사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의 영어성취도(168.77)와 받지 않은 학생의 점수(159.24)는 차이가 많았으며, 사교육을 받은 시간과 학업 성취도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7).

<표 10> 초등학생의 영어사교육 정도와 영어성취도

	하지 않음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합계
빈도	4077	2776	4584	4793	6273	22503
(%)	18.12	12.34	20.374	21.30	27.88	100
평균	159.24	163.15	165.24	167.23	168.77	165.30
표준편차	10.34	10.34	9.62	8.78	8.55	9.98

출처: 200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7)

초등 영어성취도 평가결과에서도 학부모 학력이 높고 영어사교육을 경험한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성취도 평균점수가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7)(<표 11>참조). <표 12>에서 보듯이 중졸 학력의 학부모를 가진 초등학생들의 영어점수는 157.68인 반면, 대학원 학력의 학부모를 가진 학생의 점수는 167.43으로 점수 차가 매우 컸다. 강영혜 외(2004)와 이미경 외(2004)도 학생의 학업 성취도 수준은 학부모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짐을 밝힌 바 있다.

<표 11> 학부모 학력에 따른 초등학생의 영어성취도

	안 계심	초등 졸업 이하	중졸	고졸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계
빈도	6038	137	422	6181	1153	4476	3933	22340
(%)	27.03	0.61	1.89	27.67	5.16	20.04	17.61	100
평균	162.72	157.09	157.68	163.81	164.57	170.16	167.43	165.30
표준편차	10.25	10.08	10.61	9.47	9.99	8.15	9.498	9.97

출처 : 200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7)

<표 12> 초등학교 6학년 지역별 영어성취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지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지역별평균 차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10,036	165.77	(9.93)		0.01	4.02***
중·소도시	9,714	165.76	(9.77)			1.04***
읍·면지역	3,048	161.75	(10.33)			

출처: 200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7)

***p<.001

이러한 가정환경의 영어사교육 결정으로 인한 영어 학습기회 격차가 초래하는 영어교육 격차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누적되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매우 심각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다(유한구, 2006). 영어사교육의 증가는 영어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천하여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던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해서 지출되는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는 점(김현진, 2004; 전성일, 2003)을 고려한다면,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은 우리나라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영어사교육 완화를 위한 영어공교육 정상화는 교육결정권자인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부모의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와 함께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인식분석을 통해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요인을 규명하여 영어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학교영어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 과제 해결을 위해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도구, 그리고 자료의 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초등학생, 초등학교 교사와 영어사교육 전문가(영어학원 강사 및 운영자)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590명 중 유효 참여자는 총 1,436명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3학년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811명(면담자 5명, 설문참여자 806명)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학생 중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426명, 초등학교 교사 102명, 영어사교육기관의 한국인 영어강사 97명(운영자 8명 포함)이다. 자료수집 시기인 2009년과 2010년은 초등학교 정규영어교육이 3학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므로, 1~2학년 학생들과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부모 설문조사에는 총 960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응답이 부정확한 설문지를 제외한, 806명의 학부모 응답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부모 설문은 영어사교육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정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학교 급지별로 비슷한 숫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3>에서 보듯이,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는 학교 급지별로는 가(최상)급지 211명(26%), 나(상)급지 204명(25.2%), 다(하)급지 196명(24.2%), 라(농어촌)급지 200명(24.6%)이었다. 자녀 학년별로는 3~4학년 학부모 407명

(50.2%), 5~6학년 학부모 404명(49.8%)이었다.

<표 13> 학부모 참여자 현황(명)

학교 급지	3~4학년 학부모			5~6학년 학부모			총계
	면담자	설문	(소계)	면담자	설문	(소계)	
가	1	173	(174)	2	35	(37)	211
나	.	21	(21)	.	183	(183)	204
다	1	97	(98)	.	97	(97)	195
라	.	114	(114)	1	86	(87)	201
계	(2)	(405)	(407)	(3)	(401)	(404)	811

학생 설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초등학생 42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설문 응답 문항의 특성상 현재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만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학생 참여자 현황은 <표 14>에서 보듯이, 급지별 학생 참여자 수는 가급지 156명(36.6%), 나급지 160(37.6%), 다급지 110명(25.8%)이며, 3~4학년 204명(47.9%), 5~6학년 222명(52.1%)이다.

<표 14> 학생 참여자 현황(명)

학년 급지	3~4학년	5~6학년	총계
가	78	78	(156)
나	71	89	(160)
다	55	55	(110)
계	(204)	(222)	(426)

교사 설문조사에는 부산광역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남교사 21(20.6%)명과 여교사 81명(79.4%) 등 총 102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현황은 <표 15-1, 2>와 같다.

<표 15-1> 교사 성별

	빈도	퍼센트
남	21	20.6
여	81	79.4
계	102	100

<표 15-2> 참여 교사별 교직경력

경력	10년 미만	11~20년	21~30년	31~40년	총계
빈도	15	28	37	22	102
퍼센트	14.7	27.5	36.3	21.6	100

참여한 교사들의 교직경력을 살펴보면 <표 15-2>에서 보듯이, 10년 미만 15명(14.7%), 11년~20년 28명(27.5%), 21년~30년 37명(36.3%), 31년~40년 22명(21.6%)이었다. 또, 급지별, 학년별 참여교사 현황은 <표 15-3>와 같다.

<표 15-3> 급지, 학년별 교사 참여자 현황(명)

급지	학년				영어전담교사	총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가	10	10	14	3	37	
나	13	11	10	1	35	
다	.	7	10	.	17	
라	2	3	8	.	13	
계	25	31	42	4	102	

총 102명의 참여교사 중 가급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37명(36.3%), 나급지 35명(34.3%), 다급지 17명(16.7%), 라급지 13명(12.7%)이었다. 담임 학년별로는 1~2학년 담임교사 25명(24.5%), 3~4학년 31명(30.4%), 5~6학년 42명(41.2%), 영어전담교사 4명(3.9%)이 참여하였다.

영어사교육 전문가 설문을 위해 부산시 해운대구와 사상구, 동래구 소재

의 S어학원 외 16개 영어사교육 전문기관 한국인 영어강사 97명(운영자 8명 포함)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현황은 <표 16-1>과 <표 16-2>와 같다.

<표 16-1> 영어사교육 전문 강사 참여자 성별

	전문 강사	운영자
남	9	5
여	80	3
계	(89)	(8)

<표 16-2> 영어사교육 전문 강사 교수경력

경력	2년 미만	2~5년	6~10년	10년 이상	총계
빈도	19	37	30	11	97
퍼센트	19.6	38.1	30.9	11.3	100

영어사교육 전문 강사들의 교수경력은 <표 16-2>에서 보듯이 2년 미만 19명(19.6%), 2년~5년 37명(38.1%), 6년~10년 30명(30.9%), 10년 이상이 11명(11.3%)이었다. 참여자 중 초등 초급 수준을 담당하는 교사는 9명(9.3%), 초등 중급은 26명(26.8%), 초등 고급 24명(24.7%), 초등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대비반은 12명(12.4%), 모두 가르치는 강사는 26명(26.8%)이었다. 참여강사 담당 수준별 현황은 <표 16-3>와 같다.

<표 16-3> 영어사교육 전문 강사 담당 수준 현황

	초등 초급	초등 중급	초등 고급	초등 토익, 토플 텡스 대비반	모두	총계
빈도	9	26	24	12	26	97
퍼센트	9.3	26.8	24.7	12.4	26.8	100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총 4개의 설문지로 학부모용, 학생용, 교사용, 그리고 영어사교육 전문가용 설문지이다(<부록 2,3,4,5> 참조). 각 설문지는 기본 정보와 인식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2.1 학부모용 설문지

학부모용 설문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영어사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과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자료와 박장현(2001)과 김수민(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영어사교육과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현상학적 정보 수집을 통해,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자료를 얻고자 먼저, 인식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5명의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사람은 가급지 3명, 다급지 1명, 라급지 1명이며, 자녀 학년별로는 3~4학년 학부모 3명, 5~6학년 학부모 2명이었다. 선정된 면담 참여자들은 비교적 학교 교육과 특히, 자녀 영어교육에 관심이 높은 여성 학부모들을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추천 받아 선정되었다. 면담자 선정은 정보의 풍부성과 경험 있는 참여자, 표본의 다양성, 중요성 있는 표본 선택기준(Patton, 1989)을 고려하였으며, 학부모 면담 참여자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표 17>과 같다.

면담 참여자들을 급지별로 살펴보면, 가급지(최상) 3명, 다(하)급지 1명, 라급지(농어촌) 1명이며, 연령은 35세 이상부터 45세 이하로 3, 4, 5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되었다. 면담 참여자 중 2명(가급지 1명, 라급지 1명)은 자녀가 현재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이

중 가급지 학부모의 자녀는 영어권 국가에 3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나머지 3명의 학부모는 자녀 모두 영어전문학원에서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 중 1명의 자녀는 6세 동생과 함께 1년간 필리핀에서 영어교육을 받았다.

<표 17> 학부모 면담 참여자 및 자녀 영어사교육 현황(2009.02)

면담참여자	성별	급지	연령	자녀학년	자녀 영어사교육 현황
LKS	여	가	45	4	영어 전문 학원, 영어비디오, 필리핀에서 1년 거주 하며 영어교육 받음.
LSH	여	가	38	3	미국에서 3년 거주, 영어사교육 시키지 않고 있음.
LHJ	여	가	42	5	영어 전문 학원, 주2회 원어민 회화
PMA	여	다	44	5	영어 전문 학원
LMJ	여	라	43	4	유치원 방과 후 영어학습 경험

면담 과정은 개인별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 소재 C 초등학교 연구자 교실과 연구자의 동료가 근무하는 D, K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기간은 2009년 2월 18일에 시작하여 2009년 2월 28일에 모두 종료되었다. 면담의 주제는 연구자가 작성한 안내문을 통해 면담 일주일 전에 참여자 자녀들을 통해 전달되어, 참여자가 사전에 충분히 면담 내용에 대해 생각하도록 배려하였다.

면담 방법은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면담자의 입장이나 느낌, 의견을 자유롭고 폭넓게 표현할 수 있도록 비구조화 된 면담형식으로 시작하였다. 두 번째 면담에서는 첫 면담 후 연구 참여자가 영어사교육의 실제와 영어교육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취학 전 영어사교육, 취학 후 자녀 영어사교육, 영어교육과 관련 된 사회 구조적 측면, 학교영어교육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마지막 면담에서는 본 연구자 의도

에 의해 구조화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면담을 통해 학부모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학교영어교육과 영어사교육에 대한 폭넓은 상황과 심층적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

면담 과정의 대화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전사되었으며, 수집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아 코딩하였다. 학부모 폐쇄형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면담자료를 범주화(Spradley, 1979)하여 분류한 자료는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은 <표 18>, <표 19>에 제시하였다.

설문지는 자녀의 영어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응답하는 영어사교육에 관한 취학 전, 취학 후 인식, 모두 응답하는 사회구조적 측면과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총 121개 문항(기본 사항 6개 문항 포함)을 4개의 인식영역과 18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부록 2>참조). 설문문항 중 폐쇄형(Likert-scale)문항은 5단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설문지의 폐쇄형 문항은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취학 전과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시킨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 학부모 모두가 응답하는 문항에 대해 각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가 응답한 20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777$,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부모가 응답한 11개 문항은 $\alpha=.632$,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가 응답한 37개 문항은 $\alpha=.857$,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부모가 응답한 21개 문항은 $\alpha=.754$, 학부모 모두가 응답한 18개 문항은 $\alpha=.752$ 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인식영역과 영역별 세부요인, 세부 요인별 설문 항목 내용은 <표 18>, <표 19>와 같다.

<표 18> 학부모용 설문지 구성

인식영역	영역별 세부 요인	유형	문항수	
취학 전 영어사교육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경우	영어사교육 실태 영어사교육을 시킨 이유 영어사교육 환경 영어사교육 효과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힘든 점	선다형 폐쇄형	35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이유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든 점	폐쇄형	
취학 후 영어사교육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경우	영어사교육 실태 영어사교육을 시킨 이유 영어사교육 환경 영어사교육 효과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영어사교육을 중단 조건	선다형 폐쇄형	62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이유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든 점 영어사교육을 시작할 조건	폐쇄형	
사회 구조적 측면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	폐쇄형	9	
학교영어교육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	폐쇄형	9	
기본 사항		선다형	6	
4개 인식 영역	18개 세부 요인		121	

<표 19> 세부 요인별 설문 항목 내용

세부 요인	문항 내용	유형	문항수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영어사교육 방법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선다형	4
취학 전 영어사교육 이유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유발 학교 영어공부 대비 학부모의 영어교육 중요성 인식 조기영어교육 효과 기대 영어실력 차별화 기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 미래진로 도움	폐쇄형	7

<표 19>의 계속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	영어능력 우수교사 소수 교육 영어전용환경 수준별 맞춤교육 보장	폐쇄형	4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	영어 학습동기 유발 영어능력 향상	폐쇄형	2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힘든 점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자녀의 흥미, 관심 부족 영어사용 환경부족 영어사교육 교재 불신 학부모의 영어 학습지도 능력한계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 늦은 영어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	폐쇄형	7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이유	자녀 흥미와 관심 부족 영어공교육 제공 기대 모국어능력 저하 우려 경제적 부담 영어사교육 환경 불신 영어조기교육 효과 불신	폐쇄형	6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든 점	자녀에게 미안 영어능력 부족 우려 학부모 지도능력 한계 조기영어교육 미 실시에 대한 불안 자녀 흥미, 관심 부족	폐쇄형	5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비 자녀 영어학습 요구	선다형	4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시킨 이유	영어교육 광고와 권유 학부모의 영어사교육 필요성 인식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한 영어능력 습득부족 학교 밖 영어사용 환경 부재 주변 영어열기 위기감 특목중·고 입학 목적	폐쇄형	7

<표 19>의 계속

취학 후 영어사교육 환경	검증된 원어민 개인 및 소수 교육 영어전용환경 맞춤교육 가능 사교육 교사 실력 우수 다양한 내용과 수준	폐쇄형	6
취학 후 영어사교육 효과	흥미 신장 영어 능력 향상 인증시험 대비 가능	폐쇄형	3
취학 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영어사교육비 부담 자녀 영어사교육 욕구 저하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 다수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 상대적 빈곤 경험 영어사교육의 양과 질 부족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비 투자 부족 영어권 조기유학 선택 욕구에 대한 아쉬움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	폐쇄형	8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	주 3회 원어민 몰입영어 실시 영어사교육비 부담 가중 학교에서 영어사교육 수준의 교육 제공 수준별 영어공교육 제공 영어사용이 가능한 환경구축 중고 영어성적 절대 평가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 학교영어로 진학과 입시 해결 효율적 영어교육방송 운영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 대입 영어능력 반영 낮음 취업, 승진 시 영어능력 반영 낮음	폐쇄형	13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이유	낮은 자녀 영어학습 흥미도 경제적 여건 영어사교육 환경 불신 필요한 분야에만 요구되는 선택적 영어능력 영어공교육 신뢰 영어사교육 효과 없음	폐쇄형	6

<표 19>의 계속

<p>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든 점</p>	<p>조기영어교육 미 실시에 대한 불안 영어능력 부족 우려 학부모 지도능력 부족 자녀에게 미안 자녀 흥미·관심 부족</p>	<p>폐쇄형</p>	<p>5</p>
<p>영어사교육을 시작 할 조건</p>	<p>경제적 여건 호전 시 학년 진급 초등 1학년 영어도입 학교영어 시수 증가 학교영어교육 부족 특목 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요구 대입 영어능력 반영 높음 취업, 승진 시 영어능력 반영 영어능력 향상 필요 자녀의 영어학습 요구</p>	<p>폐쇄형</p>	<p>10</p>
<p>영어 교육 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p>	<p>영어학습 열기 과열에 긴장 특목중·고 진학 위한 영어인증 점수 취득 일류대 입학 위한 특목 중·고 진학 특목 중·고 진학 영어사교육 필수 취업 보장 위한 일류대 졸업 선호 직장 위해 영어 능력 필수 교육격차 사회격차 조장 경쟁위주 입시체도로 인한 영어교육부담 가중 필요에 따른 영어학습의 중요성 강조</p>	<p>폐쇄형</p>	<p>9</p>
<p>학교영어교육 에 관한 인식</p>	<p>초등 1학년 영어 도입은 바람직 TEE 실시 수준별 영어교육 실시함 영어공교육 투자는 적절함 우수 영어전담교사가 지도함 원어민 교사 수 만족함 영어 사용 기회 충분함 방과 후 영어교육 만족함 영어교과시수 증대는 바람직</p>	<p>폐쇄형</p>	<p>9</p>
<p>기본사항</p>	<p>응답자 성별, 연령, 학력, 한 달 가구소득, 자녀 학년, 자녀 성별</p>	<p>선다형</p>	<p>6</p>
<p>계</p>			<p>121</p>

3.2.2 교사용 설문지

초등영어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영어사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을 묻는 설문지(<부록 3>참조)는 학부모 면담자료와 박장현(2001)의 연구를 참고로 제작하였다. 총 36개(기본사항 4개) 문항은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16개 문항과 영어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묻는 문항 16개, 기본사항 4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폐쇄형 설문 문항은 5단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폐쇄형 문항의 신뢰도는 $\alpha=.841$ 로 높았다. 교사용 설문지 구성은 <표 20>과 같다.

<표 20> 초등학교 교사용 설문지 구성

인식 요인	문항 내용	유 형	문항 수	인식 요인	문항 내용	유 형	문항 수
학생 들이 사교 육을 받는 이유	학생의 흥미와 관심	폐 쇄 형	16	정상 화 방안	인증교사 영어 지도	폐 쇄 형	16
	영어학습 광고효과				원어민교사 몰입교육		
	학부모선택				수준별, 맞춤 영어교육		
	실력향상				사교육 수준의 영어교육		
	영어노출기회				진학 시 내신 중요도 감소		
	영어열기 분위기				학교 내 영어사용 환경구축		
	특목 중,고 진학				공교 수준별 무상 방과 후 교육		
	원어민 지도				학교영어교육이 진학, 취업 해결		
	소그룹 학습 선호				효율적 교육방송운영		
	영어전용 학습 환경				국가영어인증제 실시		
	수준별 맞춤 교육				국가영어인증제로 특목 중고 진학		
	우수한 사교육교사				감소된 대입 영어성적 반영률		
	학습수준과 내용 차별화				취업, 승진 시 영어능력 반영 감소		
	영어능력 확인가능(점수화)				학급당 20명 내외 학생 수		
	주기적 영어학습 상담 가능				학교 영어학습 시수증가		
	학교영어교육 불신				학교단위 교육과정 자율권 부여		
기본사항 : 4문항	성별, 교직경력, 담당학년, 영어교수경력	계	36				

3.2.3 학생용 설문지

학생용 설문지는 영어사교육의 직접적인 경험자인 초등학생에게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여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황영선(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현재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3~6학년 초등학생이 응답자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문항의 내용과 응답척도를 단순화하였다. 또, 설문항목의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조사를 위해 초등학생들의 언어로 진술하였다. 설문 구성은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11개 문항과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여건을 묻는 문항 10개, 응답자 기본사항 2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부록 4> 참조). 설문문항 중 폐쇄형 문항은 3단계(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로 측정되었다. 폐쇄형 문항의 신뢰도는 $\alpha=.708$ 로 높았다. 설문지 구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초등학생용 설문지 구성

인식 요인	문항 내용	유 형	문항 수	인식 요인	문항 내용	유 형	문항 수
영어 사교 육을 받는 이유	나의 높은 흥미와 관심	폐 쇄 형	11	영어학습 흥미 상실	폐 쇄 형	10	
	나의 영어능력 향상			비싼 영어사교육비			
	학부모님의 영어학습 강요			영어실력향상 부진			
	나의 미래대비 필요성			학교 수업수준 향상			
	수준 낮은 학교 영어수업			학교에서 원어민 수업			
	원어민 영어지도			영어사교육 수준의 학교			
	재미있는 영어사교육 수업			중단 영어교육			
	학교와 차별화된 학습내용			할 학교 영어시간 증가			
	영어 읽기, 쓰기학습 가능			여건 재미있는 학교영어 수업			
	수준별 개인별 맞춤학습			미래 영어능력 불필요			
	불안감			방과 후 무료영어교육			
기본사항	성별, 학년			단답형	2		
				계	23		

3.2.4 영어사교육 전문가용 설문지

영어사교육 전문가용 설문지는 영어사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영어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학부모와 교사 설문지를 참고로 사교육 교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인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술하였다. 영어사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영어사교육 전문가에게 학생들의 학원수강 이유를 묻는 문항 16개와 학원수강을 중단할 여건을 묻는 문항 10개, 응답자 기본사항 6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부록 5> 참조). 설문 문항 중 폐쇄형 문항은 5단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폐쇄형 문항의 신뢰도는 $\alpha=.748$ 로 높았다. 설문지 구성은 <표 22>와 같다.

<표 22> 영어사교육 전문가용 설문지 구성

인식 요인	문항 내용	유형	문항수
학원 수강 이유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	폐 쇄 형	16
	학원영어교육 광고효과		
	학부모의 영어공교육 불신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		
	학부모의 영어 지도능력 한계		
	영어능력 저하 불안감		
	특목 중, 고 진학 위한 공인영어점수 취득		
	원어민 영어교사 확보		
	소수 그룹 학습		
	영어전용 환경 구비		
	수준별 맞춤 영어 학습 가능		
	강사의 우수한 영어능력		
	학교와 차별화된 수준 높은 교육과정		
	가시적 영어능력향상 확인 가능		
	주기적인 영어교육 상담 가능		
	영어권 국가 교재 사용		

<표 22>의 계속

학원 수강을 중단할 교육여건	자녀 영어 학습 흥미 상실	폐 쇄 형	14
	한국인 교사만 지도		
	수준별 맞춤 영어공교육 실현		
	학원수준의 영어 공교육과정 구성		
	진학 시 영어 중요도 감소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		
	학교의 방과 후 무료영어교육		
	영어실력 향상 부진		
	학교 영어로 진학, 입시 해결		
	영어 교육방송 효율적 제공		
	국가영어능력인증제 실시		
기본사항	국가영어능력인증점수 진학에 반영	단답형	6
	진학, 대입에 영어성적 반영 감소		
	취업, 승진 시 영어능력 반영 감소		
	학교 영어 학습시간 증가		
	성별, 강의경력, 담당수준, 수강 학생 수, 주당 강의 시간 수, 학급 당 학생 수.	계	36

3.3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3.3.1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년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학부모 설문제작 기초자료를 위한 면담은 2009.02.18~2009.02.28일 사이에 부산광역시 소재 C초등학교 연구자 교실과 연구자의 동료가 근무하는 D, K초등학교 교실에서 실시되었다. 5명의 면담 참여자들은 각각 세 차례의 면담을 가졌으며, 대화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전사되었다.

학부모 설문지는 2009년 3월~2009년 5월에 걸쳐 C초등학교 3~6학년

학부모 304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실시 후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이나 학부모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항들은 수정·보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2009년 6월부터 학생들을 통해 8개 초등학교 3~6학년 학부모 960명에게 배부되었고, 2009년 7월 20일에 모두 수거되었다. 설문 안내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였다.

학생설문은 2009년 9월에 4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중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담임제량 시간에 실시되었다. 초등학생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3단계의 응답척도로 제작되어 7분내외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3~4학년은 정확한 응답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영어사교육 범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문 문항을 읽어주는 안내를 부탁하였다. 교사설문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C초등학교 교사들과 N교사, S교사의 현 근무지와 전임근무지 5개 초등학교를 소개 받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을 부탁하였다. 주기적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며 다양한 급지의 교육경험이 있는 초등교사의 특성상 학교급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6개 초등학교 교사 102명에게 2009년 11월 중에 배부하여 2009년 12월 10일에 모두 수거하였다. 영어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은 약 10분 정도의 응답 시간이 소요되었다.

영어사교육 전문가 설문자료 수집은 영어학원 강사와 운영자 97명을 대상으로 2010년 1월 5일~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부산시 해운대구와 사상구, 동래구 소재의 S어학원 외 16개 영어사교육 전문기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을 부탁하였다. 응답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외국인 강사는 제외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 모두에게 응답 설문자료는 본 연구에만 사용할 것과 참여자 익명성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기본 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도록 당부하였다.

3.3.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영어사교육 실태와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ANOVA), t-검정, Welch-Aspin 검정, 평균값의 통계적 우선순위 분석, 중다회귀분석, 메타분석,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 중 리커트 5단계 척도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이며, 학생용 설문지의 리커트 3단계 응답은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아니다, 1점으로 배점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연구과제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과제 1-(1)]의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 영어사교육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다. 또, 학교급지, 학부모학력, 학부모 소득, 자녀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여부, 영어사교육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chi-square) 검정과 t-검정, Welch-Aspin 검정을 실시하였다. 영어사교육 방법은 다중응답 빈도분석과 학교급지, 학력, 소득, 자녀학년에 따라 영어사교육 방법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과제 1-(2)]의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학부모의 응답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인식의 우선순위를 분석해보았다.

[연구과제 1-(3)]의 취학 전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 인식 문항 중(독립변수)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종속변수)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요인들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결정에 미치는 효과 크기(effect size)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과제 2-(1)]의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과제 1-(1)]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과제 2-(2)]의 취학 후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과제 1-(2)]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과제 2-(3)]의 취학 후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과제 1-(3)]과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과제 3]은 초등학생, 초등학교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 항목에 대하여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 요인별로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요인별 순위를 분석하여 영어사교육 우선결정 요인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모두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학부모,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4.1 취학 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영어사교육 결정요인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고,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와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각 요인들이 영어사교육 결정에 미치는 효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4.1.1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

4.1.1.1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 분석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영어사교육 기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영어사교육 방법은 다중 응답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23>에서 보듯이 이미 취학 전에 전체 응답자(806명) 자녀의 49.5%(399명)가 영어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에서 보듯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399명)의 자녀들은 대부분 6세(66.6%)에 영어사교육을 시작하였으며, 5.3%는 4세 미만 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였다. 또, <표 25>에서 보듯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 중 1년 이상 실시한 사람은 89.7%(358명)로 취학 전에 대부분 1년 이상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

	빈도	퍼센트(%)
영어사교육 실시	399	49.5
영어사교육 미실시	407	50.5
계	806	100.0

<표 24>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시기

영어사교육 시작시기	빈도	퍼센트(%)
4세 미만	21	5.3
4세	21	5.3
5세	92	23.1
6세	265	66.4
계	399	100.0

<표 25>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	빈도	퍼센트(%)
6개월 미만	11	2.8
6개월 이상~1년 미만	30	7.5
1년 이상~2년 미만	207	51.9
2년 이상~3년	151	37.8
계	399	100.0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표 26>에서 보듯이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영어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52.1%(208명)로 나타났다. 또, <표 27>에서 보듯이 48.6%의 학부모가 한 달 10만원 이상을 자녀 영어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4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도 4.5%나 되었다. 통계청 조사 결과(2008), 한 달 8만원인 초등학생의 영어사교육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표 26>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빈도	퍼센트(%)
1~2시간	191	47.9
3~4시간	81	20.3
5~6시간	70	17.5
6~7시간	21	5.3
8시간 이상	36	9.0
계	399	100.0

<표 27>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취학 전 영어 학습비용	빈도	퍼센트(%)
10만원 미만	205	51.4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18	29.6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6	9.0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22	5.5
40만원 이상	18	4.5
계	399	100.0

취학 전에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자녀 영어사교육 방법의 다중응답분석 결과, 비교적 비용부담이 적은 영어학습지(42.1%)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영어전문학원(21.1%)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28>참조). 특히, 영어 유치원도 16.3%로 나타나 취학 전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8>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n=399$)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빈도	퍼센트(%)
영어 유치원	65	16.3
영어 전문 학원	84	21.1
영어 학습지	168	42.1
개인 또는 그룹 과외	42	10.5
가정에서 직접 지도	43	10.8
조기유학	1	0.3
온라인 학습	8	2.0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82	20.6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 응답자 806명의 49.5%가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 역시 학부모들이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김은희, 2007; 백지원, 2009; 장영준·최지영·김명숙, 2008; 한유미·이진화, 1997),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74%가 유치원이나 입학 후 영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박약우·박기화·최희경·이의갑, 2007).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취학 전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취학 전 자녀 영어교육을 실시한 응답자 399명을 대상으로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기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는 부경순(2003)의 연구 결과와 같이 6세(66.6%)가 가장 많았으며, 5.3%는 4세 미만부터 시작하였다. 천희영 외(2002)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연구 보고된 유아영어교육 관련 논문 분석에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유아영어교육의 적절한 시기를 2~7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 1학년의 영어도입정책 시행의 보류는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시기 욕구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은 1년 이상인 경우는 89.7%(358명)로 조사되었는데, 부경순(2003)이 보고한 68.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해가 갈수록 조기영어교육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지윤(2009)은 초등 6학년 영어 학습부진 원인 중 적은 영어노출량을 지적하고 있는데, 영어노출량의 격차가 이미 취학 전부터 시작되어 영어교육격차 현상은 초등학교 영어교육현장 만의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조기영어교육이 아직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현실에서(양옥승 외, 2001) 적절한 조기영어교육방법 모색이 요구된다.

취학 전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는 학부모는

52.1%였다. 48.6%의 학부모가 한 달 10만원 이상을 자녀 영어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4.5%는 월 40만원 이상의 영어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1994년 연구에서 우남희와 이종희는 조사 대상자의 95.6%가 한 달 10만원 미만의 조기영어사교육 비용을 지출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우남희·이종희, 1994)에서 조기영어교육 기관의 수강료를 최소 8만 5천원에서 최고 80만원으로 밝히고 있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취학 전 영·유아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취학 전에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자녀 영어사교육 방법은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부경순, 2003; 조승희, 2008)와 마찬가지로 영어학습지(42.1%)와 영어전문학원(21.1%)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학습지는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고(D사 유아영어학습지 월 39,000원,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nayahoho67/130043697031>), 학부모 대신 학습지 교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달 7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안석배, 2009) 유아대상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16.3%)의 선호도도 비교적 높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 지적된 유아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과 유아영어교육격차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 열기와 영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수의 유아교육 기관(박화윤·안라라·하양승, 1997; 이현주, 2004)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조기영어사교육 기간과 비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우남희 외, 1994, 2002) 있어 초등영어교육 도입 이후 확대된 영어사교육 문제가 취학 전으로 하향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황혜신·황혜정, 2000). 그러나 평균 7세에 영

어교육을 받기 시작한 아동 집단이 4세부터 시작한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우수한 영어능력을 보인 연구 결과(우남희 외, 2002)를 고려해보면, 취학 전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이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기영어교육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조기영어교육 요구의 타당성 역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천희영 외, 2002)라고 하겠다.

4.1.1.2 학교급지와 학부모 학력, 소득, 자녀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차이

1)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차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 중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영어사교육 기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영어사교육 방법이 학교급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29>에서 보듯이 학교급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1.76$, $p=.000$).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응답자 비율은 가급지(67.3%)가 나(42.6%), 다(50%), 라(37.5%)급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9>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n=806$)

학교 급지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계
	미실시	실시	
가	68 (32.7)	140 (67.3)	208 (100)
나	117 (57.4)	87 (42.6)	204 (100)
다	97 (50.0)	97 (50.0)	194 (100)
라	125 (62.5)	75 (37.5)	200 (100)
계	407 (50.5)	399 (49.5)	806 (100)

$\chi^2(df)=41.760(3) \quad p=.000$

(2)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0>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10.22, p=.116$).

<표 30>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시기의 차이($n=399$)

학교급지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계
	4세 이하	5세	6세	
가	18 (12.9)	33 (23.6)	89 (63.6)	140 (100)
나	14 (16.1)	21 (24.1)	52 (59.8)	87 (100)
다	8 (8.2)	22 (22.7)	67 (69.1)	97 (100)
라	2 (2.7)	16 (21.3)	57 (76.0)	75 (100)
계	42 (10.5)	92 (23.1)	265 (66.4)	399 (100)

$\chi^2(df)=10.215(6) \quad p=.116$

(3)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1>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chi^2=28.6$, $p=.000$)가 있었다. 영어사교육을 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가급지는 57.8%, 나급지는 62.1%, 다는 63.9%), 라는 68%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년 이상의 경우에는 가급지(42.1%)와 나급지(59.8%)가 다급지(36.1)와 라급지(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학교급지 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²⁾을 실시한 결과,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은 학교급지 간에 유의한 차이($F=4.1$, $p=.008$)가 있었다. 사후비교분석 결과, 가와 라, 나와 라급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1> 참조).

<표 31>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n=399)

학교급지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			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가	10 (7.1)	71 (50.7)	59 (42.1)	140 (100)
나	4 (4.6)	50 (57.5)	52 (59.8)	87 (100)
다	7 (7.2)	55 (56.7)	35 (36.1)	97 (100)
라	20 (26.7)	31 (41.3)	24 (32.0)	75 (100)
계	41 (10.3)	207 (51.9)	151 (37.8)	399 (100)

$$\chi^2(df)=28.6(6) \quad p=.000$$

2) 임시로 '영어사교육 기간' 중 '1년 미만'= 1, '2년 미만'=2, '2년 이상'=3을 부여하여 학교급지를 독립변수, '영어사교육 기간'를 종속변수로 설정.

(4)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2>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0.84$, $p=.002$). 주당 5시간 이상 영어사교육을 받은 경우 나(28.7%), 다(27.8%), 라(31.8%)급지에 비해 가급지(40.7%)의 비율이 가장 높아 도심지 학부모의 자녀들이 변두리나 농어촌 지역에 비해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노출되는 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지 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³⁾을 실시한 결과,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학교급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198$, $p=.002$). 사후비교분석 결과, 가와 나, 가와 다, 그리고 가와 라급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2>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n=399$)

학교급지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계
	1-2시간	3-4시간	5시간이상	
가	47 (33.6)	36 (25.7)	57 (40.7)	140 (100)
나	48 (55.2)	14 (16.1)	25 (28.7)	87 (100)
다	57 (58.8)	13 (13.4)	27 (27.8)	97 (100)
라	39 (52)	18 (24)	18 (24)	75 (100)
계	191 (47.9)	81 (20.3)	127 (31.8)	399 (100)

$$\chi^2(df)=20.844(6) \quad p=.002$$

3) 임시로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중 '1~2시간=1', '3~4시간=2', '5시간 이상=3'을 부여하여 학교급지를 독립변수,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

(5) 학교급지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3>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4.55$, $p=.000$). 한 달 10만원 미만~20만원의 경우 라급지(97.3%)에 비해 가(65.7%), 나(81.6%), 다(89.7%)급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20만원 초과~40만원 미만의 경우 가(23.6%), 나(16.1%), 다(10.3%), 라(1.3%)급지의 순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인 라급지의 비율이 낮았다.

학교급지 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⁴⁾을 실시하고 사후비교분석 한 결과,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학교급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5.074$, $p=.000$). 사후비교분석 결과, 가와 나, 가와 다, 가와 라 급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가와 라 급지 간의 평균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33>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n=399$)

학교 급지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계
	10만원 미만~20만원	20만원 초과~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가	92 (65.7)	33 (23.6)	15 (10.7)	140 (100)
나	71 (81.6)	14 (16.1)	2 (10.3)	87 (100)
다	87 (89.7)	10 (10.3)	0 (1.3)	97 (100)
라	73 (97.3)	1 (1.3)	1 (1.3)	75 (100)
계	323 (81)	58 (14.5)	18 (4.5)	399 (100)

$$\chi^2(df)=44.554(6) \quad p=.000$$

4) 임시로 '월 평균 영어사교육 비용' 중 '10만원 미만~20만원'=1, '20만원초과~40만원미만'=2, '40만원 이상'=3을 부여하여 학교급지를 독립변수, '월 평균 영어사교육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

(6)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취학 전 자녀의 영어사교육 방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표 34>에
서 보듯이 대부분의 영어사교육 방법에서 가급지의 비율이 높았으나, 상대적으
로 낮은 교육비용이 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다
(7.0%)와 라(6.8%)급지가 높았다. 고액의 영어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영어유치
원의 경우 도심지역인 가(10%), 나(2.8%)급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n=399)

학 교 급 지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계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영어 학습지	개인 그룹 과외	학부모 지도	조기 유학	온라인 학습	어린이집, 유치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	40 (10)	24 (6)	54 (13.5)	21 (5.3)	19 (4.8)	0 (0)	2 (0.5)	18 (4.5)	140 (35.1)
나	11 (2.8)	18 (4.5)	46 (11.5)	10 (2.5)	8 (2.0)	1 (0.3)	1 (0.3)	9 (2.3)	87 (21.8)
다	7 (1.8)	27 (6.8)	41 (10.3)	8 (2.0)	7 (1.8)	0 (0)	2 (0.5)	28 (7.0)	97 (24.3)
라	7 (1.8)	15 (3.8)	27 (6.8)	3 (0.8)	9 (2.3)	0 (0)	3 (0.8)	27 (6.8)	75 (18.8)
계	65 (16.3)	84 (21.1)	168 (42.1)	42 (10.5)	43 (10.8)	1 (0.3)	8 (2.0)	82 (20.6)	399 (100)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에 있어 가급지의 학부모들이 나와 다,
그리고 라급지에 비해 자녀 영어사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
다. 즉,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급지 학부모들은 나, 다, 라급지 학부

모에 비해 자녀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 최근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서울 80%, 광역시 64%, 중소도시 61%, 읍면 43%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정지영, 2005) 또한 위 결과를 잘 대변하고 있어, 지역격차에 따라 심화될 유아영어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는 학교급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급지 학부모들이 4세 이하에 영어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아 학교급지가 높은 지역에서 영어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가 학교급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설문조사 자료 수집에서 나와 다, 라급지의 학부모들이 영·유아보육 시설인 어린이집과 일반 유치원에서 방과 후에 실시되는 영어사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현주(2004)는 충북 어린이집 영어교육 현황 조사에서 98.8%가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미 많은 보육시설에서 자체 개발된 유아영어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취학 전 영어교육 시작 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을 받는 기간도 학교급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가와 라, 나와 라급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교급지가 높을수록 영어사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었다. 취학 전에 67%의 유치원(김진영, 2000)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취학 전 영어교육에 찬성하며(이선희·오영희·박영신, 1998; 차지인, 2003)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점(이선희 외, 1998)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역이나 계층에 따른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학 전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점(차지인, 2003)을 감안한다면,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앞으로 더욱 길어지고 평준화 될

것으로 전망되나, 조기영어사교육의 양과 질로 인한 영어사교육비 투자가 조기영어교육의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최근 국공립유치원 경비는 월 10만원 미만, 사립은 월 17만원~50만원인 반면, 월 80만원의 사설 영어학원 유아반 보습비와 서울 강남지역에 20%이상이 100만원을 초과한 최고 150만원 정도(정지영, 2007)의 특화된 고액 유아영어교육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영어사교육 비용에 따라 취학 전부터 영어교육의 장이 차별화 되어 교육환경에 따른 위화감 조성과 함께 영어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가급지가 나와 다, 그리고 라급지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당 5시간 이상 영어사교육을 받은 경우에서 가급지(40.7%)의 비율이 가장 높아 학부모의 경제력은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노출되는 양과 비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소재 A와 I 영어유치원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 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중앙엠앤비, 2010) 학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 열기와 함께 앞으로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급지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검토에서 가급지가 나, 다, 라급지에 비해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와 라급지 간 평균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미 지적된 지역 간 영어사교육 경험 격차(박약우, 2005)와 교육환경 간 영어사교육 비용격차(김진남, 2005)가 취학 전부터 발생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엄미선(2009)도 학부모 배경과 영어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상위 교육환경 학부모들은 하위계층에 비해 자녀에게 더 많은 영어교육 비용과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학부모의 영어사교육비 경감과 취학 전 바람직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취학 전에 학부모들이 선택한 영어사교육 방법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비용이 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영어사교육 방법 이용에서 가급지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고액의 영어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도심지역인 가와 나 급지 비율이 높아 영어사교육 방법의 선택 또한 학부모의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를 제외한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와 기간, 주당 학습 시간, 한 달 비용은 학교급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중심지(가)와 농어촌지역(라)에서 더욱 뚜렷하였으며, 고액의 영어사교육 비용을 부담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서 더욱 차이를 드러내었다. 그 결과 지역 간, 계층 간 영어사교육 기회와 양의 격차가 취학 전 유아교육 단계부터 심화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c).

2)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차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사교육 실시여부, 영어사교육 시작시기, 영어사교육 기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과 영어사교육 방법이 각각 학부모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5>에서 보듯이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7.7$, $p=.000$). 실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대졸(56.1%), 전문대졸(51.2%), 고졸(39.3%)의 순으로 나타나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취학 전 자

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5>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n=806$)

학부모 학력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계
	미실시	실시	
고졸이하	162 (60.7)	105 (39.3)	267 (100)
전문대졸	84 (48.8)	88 (51.2)	172 (100)
대졸이상	161 (43.9)	206 (56.1)	367 (100)
계	407 (50.5)	399 (49.5)	806 (100)

$\chi^2(df)=17.702(2) \quad p=.000$

(2)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6>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chi^2=4.87, p=.301$), 4세 이하에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비율이 대졸(13.6%)학력의 학부모가 전문대졸(6.8%)과 고졸(7.6%)학력의 학부모에 비해 높았다.

<표 36>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시기의 차이($n=399$)

학부모 학력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계
	4세 이하	5세	6세	
고졸이하	8 (7.6)	22 (21.9)	74 (70.5)	105 (100)
전문대졸	6 (6.8)	20 (22.7)	62 (70.5)	88 (100)
대졸이상	28 (13.6)	62 (23.8)	129 (62.6)	206 (100)
계	42 (10.5%)	92 (23.1)	265 (66.4)	399 (100)

$\chi^2(df)=4.8685(4) \quad p=.301$

(3)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표 37>에서 보듯이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3.5$, $p=.009$). 영어사교육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졸학력(7.8%)의 비율이 가장 낮으나, 2년 이상인 경우 대졸(45.1%)의 비율이 고졸(32.4%)보다 높게 나타나, 고학력 학부모의 자녀들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노출 되는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n=399$)

학부모 학력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고졸	10 (9.5)	61 (58.1)	34 (32.4)	105 (100)
전문대졸	15 (17.0)	49 (55.7)	24 (27.3)	88 (100)
대졸 이상	16 (7.8)	97 (47.1)	93 (45.1)	206 (100)
계	41 (10.3)	207 (51.9)	151 (37.8)	399 (100)

$\chi^2(df)=13.512(4) \quad p=.009$

학부모 학력 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⁵⁾을 실시한 결과, 영어사교육 기간은 학부모 학력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14$, $p=.002$). 사후비교분석 결과, 학력 정도가 비슷한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력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고졸과 전문대졸, 고졸과 대

5) 임시로 '영어사교육 기간' 중 '1년 미만=1', '2년 미만=2', '2년 이상=3'을 부여하여 학교급지를 독립 변수, '영어사교육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

줄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결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
 검되어야 할 과제이다.

(4)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8>에서 보듯이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은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9.962$, $p=.000$). 주당 1~
 2시간의 경우 고졸(69.5%), 전문대졸(47.7%), 대졸(36.9%) 학력의 순으로
 높았으나, 주당 5시간 이상 영어사교육을 시킨 경우에는 대졸(39.3%)이 전
 문대졸(31.8%)과 고졸(17.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 학부모 자녀
 들이 취학 전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학부모 학력에 따른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n=399$)

학부모 학력	취학 전 주당 영어학습시간			계
	1~2시간	3~4시간	5시간이상	
고졸 이하	73 (69.5)	14 (13.3)	18 (17.1)	105 (100)
전문대졸	42 (47.7)	18 (20.5)	28 (31.8)	88 (100)
대졸 이상	76 (36.9)	49 (23.8)	81 (39.3)	206 (100)
계	191 (47.9)	81 (20.3)	127 (31.8)	399 (100)

$$\chi^2(df)=29.962(6) \quad p=.000$$

학부모 학력 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⁶⁾을 실시한 결과,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학부모 학력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14.42$, $p=.000$). 사후비교분석 결과, 고졸이하와 전문

6) 임의로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중 '1~2시간=1', '3~4시간=2', '5시간 이상=3'을 부여하여 '학부모
 학력'을 독립변수,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

대졸 간,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학력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학부모 학력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9>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5.38, p=.000$). 한 달 10만원 미만~20만원의 경우 고졸(93.3%)학력의 비율이 전문대졸(87.5%), 대졸(71.8%)에 비해 높은 반면, 2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경우에는 고졸(6.7%), 전문대졸(12.5%), 대졸(28.2%)의 순으로 높아, 고학력 학부모 자녀들의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9> 학부모 학력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n=399$)

학부모 학력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계
	10만원 미만~20만원	20만원 초과~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고졸	98	7	0	105
이하	(93.3)	(6.7)	(0)	(100)
전문	77	7	4	88
대졸	(87.5)	(8.0)	(4.5)	(100)
대졸	148	44	14	206
이상	(71.8)	(21.4)	(6.8)	(100)
계	323	58	18	399
	(81)	(14.5)	(4.5)	(100)

$$\chi^2(df)=25.379(4) \quad p=.000$$

학부모 학력 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⁷⁾을 실시한 결과,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학부모 학력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75, p=.000$). 사후비교분석 결과,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간,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력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7) 임시로 '월 평균 영어사교육 비용' 중 '10만원 미만1~20만원=1', '20만원 초과~40만원 미만=2', '40만원 이상=3'을 부여하여 '학부모 학력'을 독립변수, '월 평균 영어사교육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

(6)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학부모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표 40>과 같다.

<표 40>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학부모 학력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영어 유치원	영 어 학 원	영 어 학습지	개인 그룹 과외	학부모 지도	조기 유학	온라인 학습	어린 이집, 유치원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고졸 이하	9 (2.3)	22 (5.5)	45 (11.3)	13 (3.3)	6 (1.5)	0 (0)	0 (0)	30 (7.5)	105 (26.3)
전문 대졸	12 (3.0)	25 (6.3)	40 (10.0)	8 (2.0)	8 (2.0)	0 (0)	2 (0.5)	15 (3.8)	88 (22.1)
대졸 이상	44 (11.0)	37 (9.3)	83 (20.8)	21 (5.3)	29 (7.3)	1 (0.3)	6 (1.5)	37 (9.3)	206 (51.6)
전체	65 (16.3)	84 (21.1)	168 (42.1)	42 (10.5)	43 (10.8)	1 (0.3)	8 (2.0)	82 (20.6)	399 (100)

<표 40>에서 보듯이 취학 전 자녀의 영어사교육 방법 선택에 있어 학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사설영어유치원(대졸이상; 11%, 전문대졸; 3%, 고졸; 2.3%)과 영어전문학원(대졸; 9.3%, 전문대졸; 6.3%, 고졸; 5.5%)을 선호하였다. 고졸학력에서는 영어학습지(11.3%)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7.5%)에서 취학 전에 주로 영어사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된 모든 영어사교육 방법 사용에서 대졸이상 학력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는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학력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학력 학부모에서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염미선(2009)과 김진남(2005)도 고학력의 학부모는 대부분 좋은 직업을 얻어 상위 교육환경을 유지하며 자녀 영어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는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4세 이하에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비율이 대졸 학력의 학부모가 전문대졸과 고졸 학력의 학부모에 비해 높았다. 정인자(2005)도 학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취학 전 자녀 영어교육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은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고학력 학부모의 자녀들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이 길었다. 또, 학력 간에는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부모 학력 간에는 전문대졸과 대졸 학력 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 나머지 학력 비교에서는 학부모 학력 간 차이가 없었다. 신동주(2004)도 영어교육 시작시기 조사에서 외국대학 졸업 학력 학부모를 제외한 고졸, 전문대졸, 대졸 학부모 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취학 전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 비율이 가장 높으며, 방문 학습지와 가정에서 직접 학부모가 지도하여(방경희, 2007), 학부모 학력 간 영어사교육 기간에서 차이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영·유아 영어교육 사업은 조기영어교육의 열풍을 타고 매년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로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고학력 학부모일수록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졸이상 학부모의 39.3%는 주당 5시간 이상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고 있었다. 또, 고졸이하 학력 학부모와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력 학부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13$, $p=.000$), 교육환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초등학교 입학 전(유한구, 2006)이라 할 수 있다. 영어사교육 환경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부모 학력 배경(Coleman, 1966)은 유아기부터 영어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요소이며 해소되어야 할 무거운 과제임을 암시한다.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간,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력 간에 차이를 보여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졸 학력의 학부모는 한 달 10만원 미만~20만원인 경우의 비율이 높은 반면, 2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경우에는 가장 낮게 나타나 고학력 학부모들이 자녀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신동주(2004)도 학부모 학력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조사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취학 전 자녀의 영어사교육 방법 선택에 있어 학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사설영어유치원과 영어전문학원을 선호하였으며, 고졸이하 학력에서는 영어학습지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취학 전에 주로 영어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모든 영어사교육 방법 선택에 있어서 대졸이상 학력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김진남(2005)도 사회계층이 높아질수록 영어사교육 유형별 개수가 많아진다고 보고하여, 취학 전부터 영어사교육 방법 선택의 차이 또한 영어교육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위 결과를 요약하자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와 기간, 주당 영어학습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에서 학부모 학력 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졸 이상 학력과 고졸 이하 학력 학부모 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졸 이상 학력의 학부모들이 고액의 영어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사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학력 간 영어사교육 기회와 양의 차이가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차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 중 영어사교육 실시여부, 영어사교육 시작시기, 영어사교육 기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과 영어사교육 방법이 각각 학부모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두 독립 표본 t 검정, Welch-Aspin 검정을 실시하였다.

(1)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1>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1.15$, $p=.000$).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⁸⁾ 학부모(55.4%)는 300만원 미만인 학부모(38.4%)에 비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비율이 높았다.

<표 41>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n=806$)

학부모 소득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계
	미실시	실시	
300만 원 미만	173 (61.6)	108 (38.4)	281 (100)
300만 원 이상	234 (44.6)	291 (55.4)	525 (100)
계	407 (50.5)	399 (49.5)	806 (100)

$$\chi^2(df)=21.147(1) \quad p=.000$$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교육 실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Welch-Aspin 검정⁹⁾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 소득이 300만원 이상($M=1.55$,

8) 통계청(2008) 추산 중산층 가구의 명목 소득 261만 6647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9) 집단변수를 '학부모소득'(300만원 미만=1, 300만원 이상=2의 값을 부여), 검정변수를 '영어사교육 실시'(실시함=1, 실시하지 않음=2의 값을 부여)로 설정하여 분석.

SD=.498)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M=1.38, SD=.487)에 취학 전 자녀 영어 사교육 실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684$, $p=.000$). 즉 고소득 학부모 자녀들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41-1> 학부모 소득에 따른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에 대한 Welch-Aspin 검정 결과

학부모 소득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1.38	1.55
표준편차	.487	.498
사례수	281	525
t 통계값	-4.684	
유의확률	.000	

(2)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2>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2.57$, $p=.276$). 4세에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300만원 미만은 6.5%로 나타났다.

<표 42>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n=399$)

학부모 소득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계
	4세 이하	5세	6세	
300만 원 미만	7 (6.5)	26 (24.1)	75 (69.4)	108 (100)
300만 원 이상	35 (12.0)	66 (22.7)	190 (65.3)	291 (100)
계	42 (10.5)	92 (23.1)	265 (66.4)	399 (100)

$\chi^2(df)=2.572(2)$ $p=.276$

(3)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5.46$, $p=.065$). <표 43>에서 보듯이, 2년 이상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득 300만 원 이상 집단은 39.9%, 300만 원 미만 집단의 32.4%보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비율이 높았다.

<표 43>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n=399$)

학부모 소득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00만 원 미만	17 (15.7)	56 (51.9)	35 (32.4)	108 (100)
300만 원 이상	24 (8.2)	151 (51.9)	116 (39.9)	291 (100)
계	41 (10.3)	207 (51.9)	151 (37.8)	399 (100)

$\chi^2(df)=5.46(4)$ $p=.065$

χ^2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부모 소득 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 검정¹⁰⁾을 실시한 결과, 소득 300만원 미만 ($M=2.17$, $SD=.677$)과 300만원 이상($M=2.32$, $SD=.618$) 부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9$, $p=.037$).

(4)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4>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6.04$, $p=.000$). 취학 전 주당 1~2시간을 제외한 3~4시간과 5시간

10) 집단변수를 ‘학부모소득’, 검정변수를 ‘영어사교육 기간’(1년 미만=1, 1년 이상~2년 미만=2, 2년 이상=3의 값을 부여)으로 설정하여 분석.

이상인 경우 소득 300만원 이상(21.3%, 31.8%)이 300만원 미만(17.6%, 14.8%)보다 높게 나타나, 학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영어사교육 시간을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n=399$)

학부모 소득	취학 전 주당 영어학습 시간			계
	1~2시간	3~4시간	5시간이상	
300만 원 미만	73 (67.6)	19 (17.6)	16 (14.8)	108 (100)
300만 원 이상	118 (40.5)	62 (21.3)	111 (38.1)	291 (100)
계	191 (47.9)	81 (20.3)	127 (31.8)	399 (100)

$\chi^2(df)=26.037(2) \quad p=.000$

학부모 소득에 따른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하여¹¹⁾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득 300만원 미만($SD=.742$)과 300만원 이상($SD=.888$)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t=-5.251, p=.000$), 학부모 소득 간 자녀들의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χ^2 검정으로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9.98, p=.000$).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으로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 300만원 이상(24.4%)은 300만원 미만(4.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학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1) 집단변수를 '학부모소득', 검정변수를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1~2시간=1, 3~4시간=2, 5시간 이상=3의 값을 부여)으로 설정하여 분석.

<표 45>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n=399$)

학부모 소득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계
	10만원 미만~20만원	20만원 초과~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103 (95.4)	4 (3.7)	1 (0.9)	108 (100)
300 만원 이상	220 (75.6)	54 (18.6)	17 (5.8)	291 (100)
계	323 (81)	58 (14.5)	18 (4.5)	399 (100)

$$\chi^2(df)=19.976(2) \quad p=.000$$

학부모 소득 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¹²⁾을 실시한 결과, 소득 300만원 미만($M=1.06$, $SD=.268$)은 300만원 이상($M=1.30$, $SD=.574$)과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t=-4.30$, $p=.000$) 것으로 나타났다.

(6)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학부모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중 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영어학습지(10.3%)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9.5%) 실시하는 영어사교육 방법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영어학습지(31.4%), 영어 학원(16.5%)과 고액의 영어사교육비가 지출되는 영어유치원(14.5%) 등의 영어사교육 방법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12) 집단변수를 '학부모소득', 검정변수를 '월 평균 영어사교육 비용'(10만원 미만~20만원=1, 20만원 초과~40만원 미만=2, 40만원 이상=3의 값을 부여)으로 설정하여 분석.

<표 46>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학부모 소득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영어 학습지	개인 그룹 과외	학부모 지도	조기 유학	온라인 학습	어린이집, 유치원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300 만원 미만	7 (1.8)	18 (4.5)	41 (10.3)	15 (3.8)	4 (1.0)	0 (0)	1 (0.3)	38 (9.5)	108 (27.1)
300 만원 이상	58 (14.5)	66 (16.5)	127 (31.8)	27 (6.8)	39 (9.8)	1 (0.3)	7 (1.8)	44 (11.0)	291 (72.9)
계	65 (16.3)	84 (21.1)	168 (42.1)	42 (10.5)	43 (10.8)	1 (0.3)	8 (2.0)	82 (20.6)	399 (100)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는 소득이 높은 학부모들이 낮은 학부모들에 비해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 실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 학부모 소득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고소득 학부모의 자녀들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들은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일수록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시키는 데 더욱 적극적이며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보고하여(정양수·김경애, 2008) 가정환경은 조기영어사교육 혜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는 학부모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미 언급했듯이, 조기영어교육 열풍에 따라 영어학습지와 어린이집, 일반 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Y**사는 생후 3개월부터 시작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http://lovegono.blog.me/130>)

091426416 참조)하는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열풍이 거세지고 있어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은 학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부모 소득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학부모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는 기간이 길었다. 학부모 소득에 따라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고소득 학부모의 자녀들이 취학 전 주당 3시간 이상 영어공부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학부모 소득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소득 학부모들이 취학 전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한 달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학부모 소득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와 영어사교육 기간 등 영어교육 기회의 평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높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들여 차별화 된 영어교육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은 학부모들은 취학 전 자녀의 영어사교육 방법 중 영어학습지와 함께 비교적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영어전문학원과 고액의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영어유치원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이 저렴한 영어학습지와 일반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 방법을 택하고 있어, 학부모 소득 격차가 취학 전 영어사교육 유형에서부터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취학 전에 이루어지는 조기영어사교육에서 학부모 소득은 따라 자녀의 영어사교육 경험, 영어학습의 양과 질 그리고 학습 방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영어교육격차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가정환경 차이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어린이집

과 일반 유치원에 자녀의 영어교육을 의존하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화된 취학 전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역차별 정책의 실시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시는 3세 이상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어린이집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범 실시 후 하반기부터 확대 실행할 계획(김환기, 2010)을 발표하였다.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마련한 저소득 층 무상영어교육센터인 ‘군포국제교육센터’ 운영 등도 소득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하겠다.

4)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차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사교육 실시,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영어사교육 기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과 영어사교육 방법이 각각 자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7>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8.48$, $p=.000$).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3~4학년인 경우(28.7%)가 5~6학년(20.8%) 보다 높은 반면,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6학년(28.9%)이 3~4학년(21.6%)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학년이 낮을수록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N=806)

자녀 학년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계
	미실시	실시	
3~4학년	174 (43.0)	231 (57.0)	405 (100)
5~6학년	233 (58.1)	168 (41.9)	399 (100)
계	407 (50.5)	399 (49.5)	806 (100)

$$\chi^2(df)=18.481(1) \quad p=.000$$

자녀 학년 간 영어교육 실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¹³⁾을 실시한 결과, 3~4학년(M=1.57, SD=.496)과 5~6학년(M=1.42, SD=.494)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t=4.344, p=.000), 자녀 학년이 낮을수록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을 받는 정도가 높았다.

<표 47-1> 자녀 학년에 따른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정결과

자녀 학년	3~4학년	5~6학년
평균	1.57	1.42
표준편차	.496	.494
사례수	405	401
t 통계값	4.344	
유의확률	.000	

(2)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자녀 학년에 따른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8>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793$, $p=.673$). 영어 방문 학습지, 그리고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13) 집단변수를 '자녀 학년'(3~4학년=1, 5~6학년=2의 값을 부여), 검정변수를 '영어사교육 실시'(실시함=1, 실시하지 않음=2의 값을 부여)로 설정하여 분석.

영어교육으로 인해 영·유아 시기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표 48>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n=399$)

자녀 학년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계
	4세 이하	5세	6세	
3~4학년	22 (9.5)	52 (22.5)	157 (68.0)	231 (100)
5~6학년	20 (11.9)	40 (23.8)	108 (64.3)	168 (100)
계	42 (10.5)	92 (23.1)	265 (66.4)	399 (100)

$$\chi^2(df)=.793(2) \quad p=.673$$

(3)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9>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52$, $p=.770$). 현재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3~6학년 학생들은 주로 1년 이상~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을 받은 것(3~4학년, 53.2%, 5~6학년, 50%)으로 나타났다.

<표 49>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의 차이($n=399$)

자녀 학년	취학 전 영어사교육 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3~4학년	24 (10.4)	123 (53.2)	84 (36.4)	231 (100)
5~6학년	17 (10.1)	84 (50.0)	67 (39.9)	168 (100)
계	41 (10.3)	207 (51.9)	151 (37.8)	399 (100)

$$\chi^2(df)=.523(2) \quad p=.770$$

(4)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 결과는 <표 50>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4.21$, $p=.122$). 주당 3시간의 경우 3~4학년(55.9%)의 비율이 5~6학년(47.1%)에 비해 높았다.

<표 50>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n=399$)

자녀 학년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계
	1~2시간	3~4시간	5시간이상	
3~4학년	102 (44.2)	54 (23.4)	75 (32.5)	231 (100)
5~6학년	89 (53.0)	27 (16.1)	52 (31.0)	168 (100)
계	191 (47.9)	81 (20.3)	127 (31.8)	399 (100)

$\chi^2(df)=4.208(2) \quad p=.122$

(5)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는 <표 51>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1.71$, $p=.425$). 그러나 20만원을 초과한 영어사교육 비용의 비율은 3~4학년(21.2%)이 5~6학년(16.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1>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n=399$)

자녀학년	취학 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계
	10만원 미만~20만원	20만원 초과~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3~4학년	182 (78.8)	37 (16.0)	12 (5.2)	231 (100)
5~6학년	141 (83.9)	21 (12.5)	6 (3.6)	168 (100)
계	323 (81.0)	58 (14.5)	18 (4.5)	399 (100)

$\chi^2(df)=1.713(2) \quad p=.425$

(6)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을 비교한 결과, <표 52>에서 보듯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과 개인·그룹과외를 제외한 모든 영어교육 방법 선택에서 5~6학년의 비율이 3~4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2>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자녀 학년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영어 학습지	개인 그룹 과외	학부모 지도	조기 유학	온라인 학습	어린이집, 유치원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3~4 학년	43 (10.8)	47 (11.8)	91 (22.8)	28 (7.0)	29 (7.3)	0 (0)	4 (1.0)	48 (12.0)	231 (57.9)
5~6 학년	22 (14.5)	37 (16.5)	77 (31.8)	14 (6.8)	14 (9.8)	1 (0.3)	4 (1.8)	34 (11.0)	168 (42.1)
계	65 (16.3)	84 (21.1)	168 (42.1)	42 (10.5)	43 (10.8)	1 (0.3)	8 (2.0)	82 (20.6)	399 (100)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영어사교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4학년이 5~6학년보다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6학년이 더 높았다. 학년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년이 낮아질수록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전 자녀 학년에 따른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와 영어사교육 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3~6학년 학생들은 취학 전에 주로 1년 이상~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영어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취학 전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과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3~4학년이 5~6학년에 비해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20만 원을 초과한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에 있어 3~4학년이 5~6학년에 비해 비율이 높아, 학년이 낮아질수록 영어사교육 학습 시간이 많으며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이 높음을 짐작하게 한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방법을 비교한 결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과 개인·그룹과외를 제외한 모든 영어사교육 방법 선택에서 5~6학년의 비율이 3~4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설문 당시 5~6학년의 나이가 만 12세와 13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화 시대 영어 중요성이 초등영어교육 도입 시기와 맞물린 1996년과 1997년에 출생한 세대들로서 초등영어교육 도입 이후 폭발적으로 높아진 학부모들의 관심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김은아(1995)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연구에서도 86.5% 이상의 어머니들이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는 학년이 낮을수록 실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와 기간, 주당 학습 시간, 한 달 비용은 자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10여 년 간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부모들의 취학 전 영어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대변해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4.1.2 취학 전 자녀의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4.1.2.1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의 인식 분석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받게 한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 영어사교육 환

경, 영어사교육 효과 그리고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힘들었던 점 등 4개 영역 문항들(<표 18, 19> 참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 (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문항별 인식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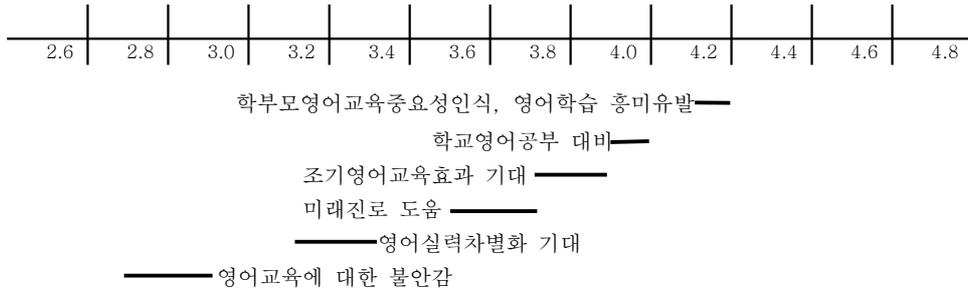
1)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에 관한 인식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의 평균 순위를 살펴보면 <표 53>에 서 보듯이 영어학습 흥미 유발(M=4.18) 요인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학 부모의 영어학습의 중요성 인식(M=4.17), 영어실력 차별화 기대(M=3.27),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M=2.83)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53>과 <그림 1>에서 보듯이,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통계적 순위를 살펴보면, 영어학습 흥미 유발 요인과 학부모의 영어교육 중요성 인식 요인이 가장 우선하며, 다음으로 학교영어공부 대비, 조기영어교육 효과 기대, 자녀 미래 진로 도움, 영어실력 차별화 기대를,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불안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 인식 우선순위(n=399)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학습 흥미유발	4.18	.034	.668	4.112	4.248
학부모 영어교육 중요성 인식	4.17	.035	.708	4.100	4.24
학교영어공부 대비	3.95	.038	.762	3.874	4.026
조기영어교육 효과 기대	3.82	.045	.894	3.730	3.91
미래 진로 도움	3.62	.046	.913	3.528	3.712
영어실력차별화 기대	3.27	.051	1.025	3.168	3.372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	2.83	.051	1.026	2.728	2.932

<그림 1>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에 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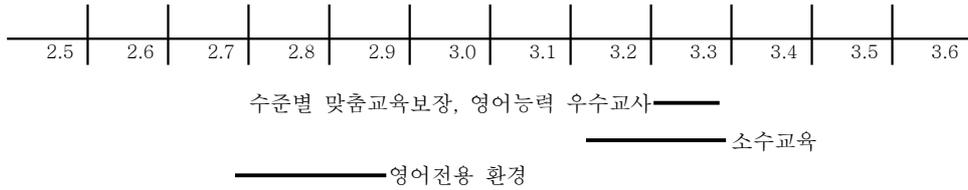
2)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에 관한 인식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 환경에 관한 인식 순위를 살펴보면 <표 54>에 서 보듯이 수준별 맞춤교육 보장(M=3.25)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영어능 력 우수교사(M=3.24)였고, 영어전용환경(M=2.77)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평균값의 통계적 순위에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수준별 맞춤교육 보장 과 함께 교사 영어능력 우수 그리고 소수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이 가장 우선하였다. 이는 영어전용 환경 인식과 뚜렷한 순위 차이를 보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어사교육 환경으로 영어능력이 우수한 교사와 소수 그룹의 수준별 맞춤교육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54>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 우선순위(n=399)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수준별 맞춤교육 보장	3.25	.048	.961	3.154	3.346
영어능력 우수교사	3.24	.040	.794	3.160	3.320
소수교육	3.17	.050	.992	3.070	3.270
영어전용환경	2.77	.051	1.014	2.668	2.872

<그림 2>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에 대한 문항 값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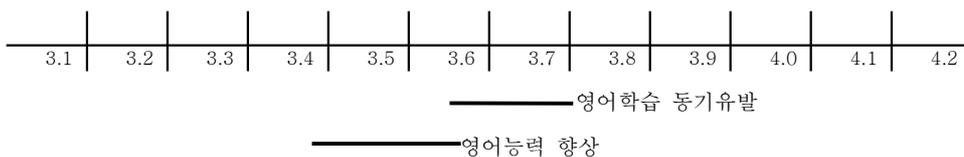
(3)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 문항들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표 55>에서 보듯이 영어학습 동기유발(M=3.62), 영어능력 향상(M=3.47)의 순서로 나타났다.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내에서 평균값의 통계적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영어학습 동기유발이 영어능력 향상 인식보다 우선하는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들은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표 55>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n=399)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표준오차×2	
영어학습 동기유발	3.62	.043	.860	3.534	3.706
영어능력 향상	3.47	.043	.864	3.384	3.556

<그림 3>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에 대한 문항 값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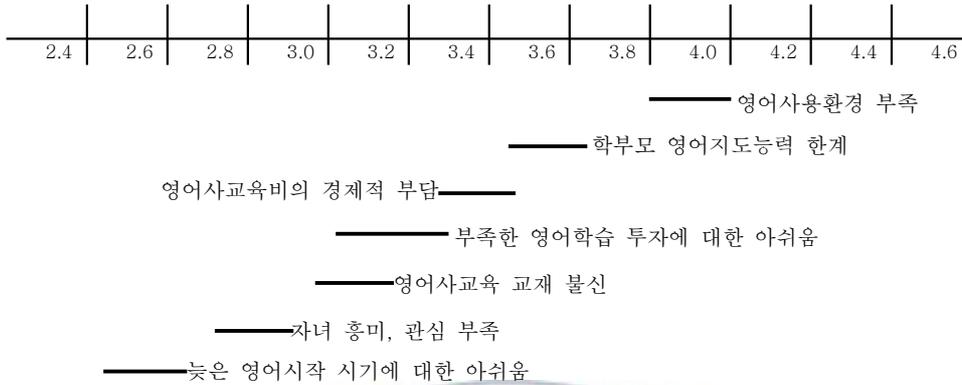
4) 취학 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에 관한 인식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에 관한 인식 문항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표 56>에서 보듯이 영어사용 환경 부족(M=3.89)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영어지도능력 부족(M=3.54)이었으며, 늦은 영어시작 시기에 대한 아쉬움(M=2.52)이 가장 낮았다.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살펴본 평균값의 통계적 순위에서 학부모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영어사용 환경의 부족을 지적했다. 두 번째 학부모의 영어지도능력 부족과 함께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세 번째는 부족한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과 영어사교육 교재 불신요인이었다. 네 번째로는 학부모의 교육열에 비해 자녀의 낮은 영어 흥미도와 관심, 마지막으로 늦은 영어시작 시기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이 영어사용 환경의 부족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한 점은 자녀들의 자연스런 영어 습득을 위해 영어적 환경 제공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6>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N=399)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사용 환경 부족	3.89	.043	.866	3.804	3.976
학부모 영어지도능력 한계	3.54	.047	.939	3.446	3.634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3.44	.052	1.030	3.336	3.544
부족한 영어학습 투자에 대한 아쉬움	3.19	.056	1.129	3.078	3.302
영어사교육 교재 불신	3.04	.046	.922	2.948	3.132
자녀 흥미관심 부족	2.81	.047	.942	2.716	2.904
늦은 영어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	2.52	.050	.989	2.420	2.620

<그림 4> 취학 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에 관한 항목 값의 범위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학부모들이 영어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녀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유발을 위함이었다(신동주, 2004). 그러나 백지원(2009)은 자녀의 영어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기영어사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고 있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비슷한 항목인 학교영어공부 대비는 두 번째 인식 순위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조기영어교육 효과 기대, 자녀 미래 진로 도움, 영어실력 차별화 기대, 마지막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주변 불안감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영어학습 흥미유발을 우선 이유로 꼽았으나, 통계적 순위에서는 이와 함께 학부모의 영어교육의 중요성 인식 같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에 대해 학부모들은 수준별 맞춤교육 실시와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한 능력, 그리고 소수 그룹 구성의 영어사교육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영어학습을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영어교육 환경을 추구한 결과라고 해석되어

진다. 다음으로 영어전용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로 먼저 자녀의 영어학습 동기유발을 들었는데, 학부모들은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로 특히 유아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다는 것을 가장 큰 효과로 인식한다는 보고(차지인, 2003)와 일치한다. 다음으로는 영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취학 전 영어사교육은 영어능력 향상보다는 자녀 영어학습 동기 유발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가장 힘든 점으로 영어 사용 환경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차지인, 2003), 김홍일(2006)도 자녀 영어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영어환경 조성 미흡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영어지도능력 한계와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세 번째는 영어사교육 교재 불신과 부족한 영어학습 투자에 대한 아쉬움, 네 번째는 학부모의 교육열에 비해 낮은 자녀의 흥미와 관심 부족, 마지막으로 늦은 영어시작 시기에 대한 아쉬움 순서로 어려워하고 있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한 영어사용 환경의 부족은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자녀들의 자연스런 영어 습득을 위해 영어 환경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 환경 조성은 영어사교육 현장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기대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스토리텔링, 영어 노래 등을 통해 영어에 친숙함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면 모국어 습득하는 것과 유사한 자연스런 상황에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김은아, 1995; 이선희 외, 1998; 진현수, 2001; 한유미 외, 1997)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었다(신동주, 2004). 또 영어사교육은 우수한 영어 능력을 갖춘 교사에 의해 소수 그룹 구성의 수준별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며 자녀의 영어에 대한 흥미유발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우남희 외, 2002). 그러나 생활 속에서 영어사용 환경의 부족과 학부모의 영어 지도능력 한계, 영어사교육 비용의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홍일, 2006).

4.1.2.2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부모의 인식 분석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들었던 점 등 2개 영역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문항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인식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문항들의 평균 비교 결과, <표 57>에서 보듯이 영어조기교육 효과 불신(M=3.28)의 값이 가장 높았으며, 영어공교육 제공 기대(M=2.55)요인이 가장 낮았다.

<표 57>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n*=407)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표준오차×2	
				표준오차×2	
영어조기교육 효과불신	3.28	.052	1.0580	3.176	3.384
모국어 능력저하 우려	3.14	.054	1.0920	3.032	3.248
경제적 부담	2.76	.056	1.1290	2.648	2.872
영어사교육 환경 불신	2.66	.047	.946	2.566	2.754
자녀 흥미관심 부족	2.60	.049	.983	2.502	2.698
영어공교육 제공 기대	2.55	.048	.961	2.454	2.646

또,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통계적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보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영어조기교육 효과불신과 함께 모국어 능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영어사교육 환경 불신, 그리고 자녀의 흥미관심 부족을, 마지막으로 영어공교육 제공 기대 순위로 분석되었다.

<그림 5>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2)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들었던 점에 관한 인식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들었던 점에 관한 문항들의 평균 순위를 비교해보면, 자녀 영어능력 부족 우려(M=3.08)가 가장 높으며, 자녀의 흥미와 관심 부족(M=2.37)은 가장 낮았다.

<표 58>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들었던 점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n=407)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능력부족 우려	3.08	.055	1.107	2.970 3.190
학부모지도능력 한계	3.03	.054	1.089	2.922 3.138
조기영어교육 미실시에 대한 불안	2.78	.052	1.054	2.676 2.884
자녀에게 미안	2.74	.056	1.136	2.628 2.852
자녀 흥미 관심 부족	2.37	.050	1.011	2.270 2.470

또,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통계적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6>에서 보듯이 자녀 영어능력 부족 우려와 학부모지도 능력 한계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다. 다음으로 조기영어교육 미실시에 대한 불안과 영어교육을 시키지 않아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마지막으로 자녀의 흥미와 관심 부족 순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들었던 점 인식 문항 값의 범위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영어조기교육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모국어 능력 저하 또한 우려하고 있었다. 유아조기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학부모와 학원 강사의 면담 조사 결과(교육인적자원부, 2002)에서도 역시 같은 견해를 보고하고 있다. 또, 모국어 사용에 혼란을 겪지 않는다는 신동주(2004)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를 위해 면담한 자료를 인용해 보면, 필리핀 조기영어유학 후 겪는 자녀의 모국어 혼란에 관한 우려를 볼 수 있다.

6살에 언니를 따라 필리핀에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안되고 또 특별히 문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글

문자도 안되고 영어 문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듣고 말하는 건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한국말을 하기는 해요. 남들은 보통 애들처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으면....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자기가 갈 때 come이라 하고 내가 갈 때 go라고 하는데 애는 한국말에도 온다, 간다, 구별이 잘 안돼요. 언어적인 습관이나 정서 차이가 흔들려 확립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닌가. 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더 있어서 더 살아서 영어라도 확실하게 하든지 한국말도 잘 안되고... 애는 가서 한 두 달 되서부터 한국말을 싹 잊어버리더라구요. (중략) 그러니까 문자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언니는 학교에서 문자 교육을 받다가 가니까 한글을 덜 잊어 먹었어요. 동생은 문자 교육을 받기 전에 갔으니까 한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여전히 힘들거든요. 아직도 한글 더듬더듬 읽고, 쓰는 건 막 다 틀리고 소리 나는 데로 막 적고 이렇죠. 그러니까 애(6살에 언니를 따라 필리핀에 간)는 한국어로 뭘 가르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면담자 학부모 LKS 2009.02.20)

다음으로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과 신뢰 할 수 없는 영어사교육 환경,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녀의 흥미와 관심 부족을,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배울 영어교육을 기대하며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부모들은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자녀의 영어능력 부족과 가정에서 영어지도할 수 없는 학부모 영어능력 한계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으며, 다음으로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지 않은 미안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자녀의 영어에 대한 흥미 부족 등을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든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1.3 취학 전 학부모의 자녀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

취학 전 자녀의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들이 응답한 각 인식요인의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영어사교육 비용을 종속변수¹⁴⁾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학 전 학부모의 각 인식요인 중 영어사교육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어 영어사교육 비용 변화에 대한 유의한 예측을 위해 적합한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또, 유의한 독립변수의 상관계수(r)로 메타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가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측정하였다.

4.1.3.1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와 관련된 학부모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9>와 같다. 영어사교육비를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와 관련된 일곱 개의 독립변수 중 영어흥미 유발 등 다섯 개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그 외, 영어실력 차별화 기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포함된 모형($F=6.936, p=.000$)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의 3.7%(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2%)를 설명하였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영어사교육 비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영어실력차별화 기대($t=3.86, p=.000$)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t=-2.0, p=.000$)이며, 독립변수

14) 사교육 비용 지출을 사교육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하였다(김지경, 2004). 단, 추후 연구에서는 사교육 비용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교육 지표를 나타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영어실력차별화 기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 순으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9>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와 관련된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399$)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영어실력차별화 기대	.108	0.28	.212	3.862	.000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	-.056	0.28	-.110	-1.999	.000
상수	1.041	0.094		11.061	.046

두 독립변수의 상관계수(r)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 <표 60>에서 보듯이 영어실력차별화 기대 요인의 효과크기는 .3,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 요인은 .4로서 Cohen이 제시한 기준(1977)에 따르면 영어사교육 비용에 중간크기의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0>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r (상관계수)	d (효과크기)	z	N
영어실력차별화 기대	0.164	0.3325	0.1655	399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	0.191	0.3892	0.1934	399

4.1.3.2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과 관련된 학부모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1>과 같다. 영어사교육 비용을 예측하는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네 개의 독립변수 중 교사영어능력 우수 등 세 개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그

외 영어전용환경이 포함된 모형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3.33, p=.000$),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의 9.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9.6%)를 설명하였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영어전용환경($t=6.58, p=.000$)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61>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 환경과 관련된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399$)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영어전용환경	.16	.024	.314	6.58	.000
상수	.79	.072		10.961	.000

영어전용환경 변수의 상관계수(r)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 <표 62>에서 보듯이 .6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어 Cohen이 제시한 기준(1977)에 따르면 영어사교육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62>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r(상관계수)	d(효과크기)	z	N
영어전용환경	0.314	0.6615	0.325	399

4.1.3.3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와 관련된 학부모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3>과 같다. 영어사교육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두 개의

독립변수 중 영어 학습동기 유발 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영어 능력 향상이 영어사교육 효과로 포함된 모형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25$, $p=.000$),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의 3.2%(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를 설명하였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영어능력 향상($t=3.64$, $p=.000$) 변수가 영어사교육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63>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 효과와 관련된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399$)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영어능력 향상	.11	.03	.18	3.64	.000
상수	.86	.11		8.10	.000

영어능력 향상 변수의 상관계수(r)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는 <표 64>에서 보듯이 .4의 효과크기로 나타나 Cohen(1977)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영어사교육 비용에 중간 크기의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64>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r(상관 계수)	d(효과 크기)	z	N
영어능력향상	0.18	0.366	0.182	399

4.1.3.4 취학 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취학 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과 관련 된 학부모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5>와 같다.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

정 결과,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과 관련 된 일곱 개의 독립변수 중 자녀의 흥미와 관심부족 등 네 개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영어사교육 비용의 경제적 부담, 늦은 영어 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 등이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으로 포함 된 모형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94$, $p=.000$),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의 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3%)를 설명하였다.

<표 65>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과 관련 된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399$)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늦은 영어시작 시기에 대한 아쉬움	-.06	.03	-.12	-2.00	.048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09	.03	.18	3.46	.001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	-.06	.03	-.13	-2.12	.034
상수	1.26	.10		12.34	.000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영어사교육 비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늦은 영어시작 시기에 대한 아쉬움($t=-2.00$, $p=.048$),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t=3.46$, $p=.001$),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t=-2.12$, $p=.034$)이었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영어사교육 비용의 경제적 부담, 늦은 영어시작 시기에 대한 아쉬움, 부족한 영어학습 투자에 대한 아쉬움의 순으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의한 세 독립 변수의 상관계수(r)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 <표 66>에서 보듯이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요인

의 효과크기는 .3, 늦은 영어시작 시기에 대한 아쉬움은 .4 그리고 부족한 영어학습 투자에 대한 아쉬움은 .5로서 영어사교육 비용에 중간크기의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6>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r(상관 계수)	d(효과 크기)	z	N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0.133	0.2684	0.1338	399
늦은 영어시작 시기에 대한 아쉬움	0.198	0.4040	0.2007	399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아쉬움	0.224	0.4597	0.2279	399

4.1.3.5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이 취학 전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7>과 같다. 영어사교육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아홉 개의 독립변수 중 특목중·고 진학에 유리 등 여섯 개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가 포함된 모형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67, p=.000$),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의 5.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8%)를 설명하였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영어사교육 비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t=4.08, p=.000$),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t=-.27, p=.007$),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t=-2.60, p=.010$)였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 주변

영어열기에 긴장,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의 순으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67>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사회구조적 측면과 관련 된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399$)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	.12	.03	.22	4.08	.000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	-.08	.03	-.15	-0.27	.007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	-.09	.03	-.13	-2.60	.010
상수	1.45	.16		8.87	.000

유의한 세 독립 변수의 상관계수(r)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 <표 68>에서 보듯이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 요인의 효과 크기는 .3,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은 .4, 필요에 따른 영어학습의 중요성은 .5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중간크기의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8> 사회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r(상관계수)	d(효과크기)	z	N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	0.134	0.2704	0.1348	399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	0.197	0.4019	0.1996	399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	0.235	0.4835	0.2395	399

4.1.3.6 효과크기로 본 취학 전 영어사교육 비용 결정 인식요인 순위

취학 전 영어사교육 비용을 결정하는 열 개의 유의한 요인들의 효과크기 순위는 <표 69>에서 보듯이 효과크기가 큰 요인은 영어전용 환경(.7)이었다. 또,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5),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5),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4), 늦은 영어 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4),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4), 영어능력 향상 만족(.4), 영어실력 차별화 만족(.3),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3),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3)등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요인들이었다.

<표 69> 취학 전 영어사교육 비용을 결정하는 인식 요인들의 효과 크기 순위

인식요인	상관계수(r)	효과크기(d)	순위
영어전용환경(추구)	0.314	0.6615	1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	0.235	0.4835	2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	0.224	0.4597	3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현상	0.197	0.4019	4
늦은 영어 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	0.198	0.4040	5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	0.191	0.3892	6
영어능력향상(만족)	0.18	0.3660	7
영어실력차별화(만족)	0.164	0.3325	8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	0.134	0.2704	9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0.133	0.2684	10

학부모의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학 전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열 개의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비용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항목별로 나열해보면 ① 영어실력 차별화 만족, ②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 ③ 영어전용환경, ④ 영

어능력 향상 만족, ⑤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⑥ 늦은 영어 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 ⑦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 ⑧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 ⑨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 ⑩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 등이다. 열 개 변수들의 영어사교육 비용 설명 비율의 순위는 영어전용환경(9.8%),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5.5%),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과 늦은 영어 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 영어학습에 대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5%), 영어실력 차별화 만족과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3.7%), 영어능력 향상 만족(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열 개 결정 요인 중 영어전용 환경이 영어사교육 비용 변화를 설명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능력 향상 만족이었다.

또, 열 개 결정요인들의 효과크기 순위를 구해 본 결과,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가장 큰 요인은 영어전용 환경(.7)이었다. 취학 전 학부모들이 영어사교육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게 영어로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내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하는 27개 학원 강사의 78%가 외국인 강사(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2)이며,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외국인 강사를 선호(우남희, 2002; 신동주, 200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분석 결과, 고소득 학부모일수록 영어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도 영어로만 학습하는 환경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영어전용 환경을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강사를 통해 어릴 때부터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는데, 실제로 유아대상 영어학원 강사들은 이전에 배운 영어로 인해 잘못된 발음을 습득했을 때 수정이 매우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다(우남희, 2002).

중간크기 요인들은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5)와 영어학습에 대

한 부족한 투자 아쉬움(.5),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4), 늦은 영어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4),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4), 영어능력 향상 만족(.4), 영어실력 차별화 만족(.3),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3),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3)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차별화 된 영어능력을 갖추어 주고자 취학 전에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고 있었다(백지원, 2009). 또, 영어로만 학습 가능한 환경에서 어린 나이에 빨리 시작할수록 차별화 된 영어능력 신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의 취학 전 자녀영어사교육 결정을 유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4)이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영어교육에 대한 광고로 인해 학부모들은 주변의 영어교육 열기에 매우 불안해하여 사교육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영어교육 과대광고에 대한 정책적 제재와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 영어교육에 참여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5)하는 사회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능통하게 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어전문가는 국민의 2% 정도면 충분하다(김덕기, 2002)는 보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4.2 취학 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과 영어사교육 결정요인

학부모의 취학 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과제 2],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와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인식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요인들이 영어사교육 결정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4.2.1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

4.2.1.1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 분석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영어사교육 방법은 다중응답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70>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806명 중 영어사교육을 시킨 학부모는 83.4%(672명)이며, 시키지 않은 학부모는 16.6%(134명)로 취학 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0>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n=806)

	빈도	퍼센트(%)
영어사교육 실시	672	83.4
영어사교육 미실시	134	16.6
계	806	100.0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 672명을 대상으로 자녀 영어사교육 시작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71>과 같으며, 응답자의 56.3%가 초등 1,2학년에 시작하여,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영어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시기(n=672)

영어사교육 시작시기	빈도	퍼센트(%)
1학년	313	38.8
2학년	141	17.5
3학년	129	16.0
4학년	53	6.6
5학년	28	3.5
6학년	8	1.0
계	672	100.0

<표 72>에서 보듯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취학 후 주당 평균 5~6시간이 36%(242명)로 가장 많았으며, 9시간 이상도 7.3%(49명)로 나타나 학부모의 취학 후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표 72>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n=672)

취학 후 주당 영어교육시간	빈도	퍼센트(%)
1~2시간	182	27.1
3~4시간	129	19.2
5~6시간	242	36.0
7~8시간	70	10.4
9시간 이상	49	7.3
계	672	100.0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받는 자녀의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표 73>에서 보듯이, 주로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이 지출(45.7%)되고 있으며, 취학 후에 82.2%가 한 달 10만원 이상의 영어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달 40만원 이상 고액의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도 1.4%로 나타났다.

<표 73>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n=672)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빈도	퍼센트(%)
10만원 미만	120	17.9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307	45.7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92	28.6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2	6.3
40만원 이상	11	1.6
계	672	100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64.3%가 영어전문학원에서 영어사교육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영어학습지(22%)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사교육 방법으로 해외어학연수나 영어캠프를 선택한 경우도 5.1%로 나타났다.

<표 74>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n=672)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빈도	퍼센트(%)
영어 전문 학원	432	64.3
종합학원영어교육	87	12.9
학습지	148	22.0
개인, 그룹과의	84	12.5
학부모님 직접지도	47	7.0
조기유학	2	0.3
온라인 영어학습	59	8.8
해외어학연수	8	1.2
영어캠프	26	3.9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 빈도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 응답 학부모의 83.4%가 자녀에게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고 있었다. 설문 조사 대상이 초등 3~6학년 자녀를 가진 학부모임을 감안하면, 전체 초등학생의 영어사교육 실시 정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영어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도(권미나, 2007; 박지성, 2003; 윤은경, 2005; 정현숙, 2005) 약 7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취학 전에 49.5%가 영어사교육을 받게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학부모들은 초등 입학 후 자녀의 영어교육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열기와 부담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취학 후 56.3%가 초등 1~2학년에서 영어사교육을 시작하여 영어학습 시작시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손승희, 2007). 이러한 현상은

학교영어교육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영어사교육으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영어능력 차이를 예고하고 있다.

취학 후 초등학생들은 주당 평균 5~6시간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6%). 9시간 이상 영어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7.3%) 있어, 학부모의 취학 후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초등학교부터 영어 학습량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82.2%가 취학 후 자녀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으로 1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전 48.6%와 대비되어,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위해 투자하려는 학부모들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조사의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6~10만원(박장현, 2001)과 비교해 보면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40만원 이상의 경우는 취학 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매월 영어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영어유치원과 같은 고액의 영어사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취학 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전문학원을 통해 영어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박장현, 2001; 손승희, 2007), 다음으로 학습지, 종합학원 영어교육, 개인·그룹과외, 온라인 영어학습 등의 순서로 낮았다. 영어사교육 방법으로 해외어학연수나 영어캠프를 선택한 경우도 나타나 급증하는 초등학생의 유학 추세(서울특별시 교육청, 2006)를 반영하고 있다.

4.2.1.2 학교급지와 학부모 학력, 소득,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의 차이

1)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사교육 실시,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

용, 영어사교육 방법을 학교급지에 따라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급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2.56$, $p=.000$).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응답자는 가급지 91.3%, 나와 다 급지는 각각 87.3%와 89.2%, 라급지는 65.5%로 나타났다.

<표 75>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n=806$)

학교 급지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계
	미실시	실시	
가	18 (8.7)	190 (91.3)	208 (100)
나	26 (12.7)	178 (87.3)	204 (100)
다	21 (10.8)	173 (89.2)	194 (100)
라	69 (34.5)	131 (65.5)	200 (100)
계	134 (16.6)	672 (83.4)	806 (100)

$$\chi^2(df) = 62.560(3) \quad p = .000$$

(2)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76>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22.17$, $p=.000$). 가급지에서 72.1%가 1학년부터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반면, 라급지는 38.9%로 나타났다.

<표 76>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n=672$)

학교급지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가	137 (72.1)	35 (18.4)	13 (6.8)	3 (1.6)	2 (1.1)	0 (0)	190 (100)
나	61 (34.3)	37 (20.8)	31 (17.4)	26 (14.6)	14 (9.0)	7 (3.9)	87 (100)
다	64 (37.0)	44 (25.4)	48 (27.7)	14 (8.1)	2 (1.2)	1 (0.6)	97 (100)
라	51 (38.9)	25 (19.1)	37 (28.2)	10 (7.6)	8 (6.1)	0 (0)	75 (100)
계	313 (46.6)	141 (21.0)	129 (19.2)	53 (7.9)	28 (4.2)	8 (1.2)	672 (100)

$$\chi^2(df)=122.166(15) \quad p=.000$$

<표 76-1> 학교급지에 따른 영어사교육 시작시기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학교급지	127.495	3	42.498	31.391	.000
오차	904.356	668	1.354		
합계	1031.851	671			

학교급지 간 영어사교육 시작시기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¹⁵⁾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6-1>에서 보듯이 학교급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4$, $p=.000$). 사후비교분석 결과,가와 나,가와 다,가와 라,그리고 나와 다급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가와 라급지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15) 임시로 '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4', '5학년=5', '6학년=6'을 부여하여 학교급지를 독립변수,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를 종속변수로 설정.

(3) 학교급지에 따른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77>에서 보듯이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학교급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32.32$, $p=.001$). 가급지의 경우 주당 7~8시간 영어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가(15.8%), 나(9.6%), 다(11.0%), 라(5.3%) 급지의 순서로 나타나, 도심지 급지가 농어촌 학교급지 보다 5시간 이상 영어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았다.

<표 77>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n=672$)

학교급지	취학 후 주당 영어학습시간					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가	32 (16.8)	43 (22.6)	70 (36.8)	30 (15.8)	15 (7.9)	190 (100)
나	60 (33.7)	31 (17.4)	57 (32.0)	17 (9.6)	13 (7.3)	178 (100)
다	43 (24.9)	27 (15.6)	70 (40.5)	19 (11.0)	14 (8.1)	173 (100)
라	47 (35.9)	28 (21.4)	45 (34.4)	4 (3.1)	7 (5.3)	131 (100)
계	182 (27.1)	129 (19.2)	242 (36.2)	70 (10.4)	49 (7.3)	672 (100)

$$\chi^2(df) = 32.316(12) \quad p = .001$$

학교급지 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16)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58$, $p=.000$), 사후비교분석 결과,가와 나,가와 라, 다와 라급지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고,가와 라(.547)급지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16) 임시로 '1~2시간=1', '3~4시간=2', '5~6시간=3', '7~8시간=4', '9시간 이상=5'를 부여하여 학교급지를 독립변수,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

(4) 학교급지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학교급지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78>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81.1$, $p=.000$).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라급지(32.13%)에 비해 가(10.5%), 나(14.0%), 다(19.17%)급지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반면,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의 경우 가(16.36%), 나(3.9%), 다(2.33%), 라(0%)급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78>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n=672$)

학교 급지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가	20 (10.5)	37 (19.5)	95 (50.0)	31 (16.3)	7 (3.7)	190 (100)
나	25 (14.0)	84 (47.2)	58 (32.6)	7 (3.9)	4 (2.2)	178 (100)
다	33 (19.1)	109 (63.0)	27 (15.6)	4 (2.3)	0 (0)	173 (100)
라	42 (32.1)	77 (58.8)	12 (9.2)	0 (0)	0 (0)	131 (100)
계	120 (17.9)	307 (45.7)	192 (28.6)	42 (6.3)	11 (1.6)	672 (100)

$$\chi^2(df) = 181.099(12) \quad p = .000$$

학교급지 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지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55.3$, $p=.000$).

17) 임시로 '10만원미만=1',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3',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4', '40만원 이상=5'를 부여하여, 학교급지를 독립변수,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을 종속변수로 설정.

사후비교분석 결과, 가와 나, 가와 다, 가와 라, 나와 다, 나와 라급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와 라급지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와 라급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학교급지에 따라 살펴보면 <표 79>과 같다.

<표 79>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n=672$)

학 교 급 지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영어 전문 학원	종합 학원 영어	영어 학습지	개인 그룹 과외	학부모 지도	조기 유학	온라인 학습	해외 어학 연수	영어 캠프	계
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	144 (21.4)	24 (0.3)	37 (5.5)	33 (4.9)	19 (2.8)	1 (0.1)	18 (2.7)	58 (0.7)	11 (1.6)	19. (28.3)
나	104 (15.5)	26 (3.9)	41 (6.1)	29 (4.3)	12 (1.8)	1 (0.1)	10 (1.5)	3 (0.4)	3 (0.4)	178 (26.5)
다	124 (18.5)	33 (4.9)	35 (5.2)	7 (1.0)	3 (0.4)	0 (0)	15 (2.2)	0 (0)	4 (0.6)	173 (25.7)
라	60 (8.9)	26 (3.9)	35 (5.2)	15 (2.2)	13 (1.9)	0 (0)	16 (16)	0 (0)	8 (1.2)	131 (19.5)
계	432 (64.3)	87 (12.9)	148 (22.0)	84 (12.5)	47 (7.0)	2 (0.3)	59 (8.8)	8 (1.2)	26 (3.9)	672 (100)

<표 79>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학부모가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으로 영어전문학원(64.3%)을 선택하였는데, 가(21.4%), 나(15.5%), 다(18.5%), 라(8.9%) 급지 순으로 급지에 따라 선택 정도가 상이하였다.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가(0.7%)와 나(0.4%)급지에 비해, 다와 라급지는 0%로 나타나 해외어학연수

등 고비용의 영어사교육 방법은 상위 학교급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지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에 있어서 가급지의 학부모들이 나와 다, 그리고 라급지에 비해 자녀 영어사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취학 전과 동일한 분석 결과로서,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사교육의 지역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영어사교육 완화를 위한 영어공교육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는 학교급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학년부터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경우에 도심지역(72.1%)과 농·어촌 지역(38.9%)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급지 간에도 차이를 보여, 가급지는 라급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가와 다급지, 가와 나급지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나와 다급지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상위급지 학교 일수록 저학년에서부터 영어사교육을 시작하고 있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시기 분석 결과에서도 상위급지 일수록 낮은 연령에서 영어사교육을 시작하고 있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영어사교육 시작시기의 차이가 영어학습 노출량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어 지역별 영어교육격차 현상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취학 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급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학교급지가 높을수록 5시간 이상 영어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았으며, 주당 7~8시간의 경우 가(15.8%), 나(9.6%), 다(11.0%), 라(5.3%)급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급지는 나와 라급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급지는 낮은 학교 급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지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원인이 필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한편, 라급지는 다른 모든 급지들과 차이를 보여,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학습량이 적었다.

학교급지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가급지가 나, 다, 라급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가와 라급지 간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학 전의 결과와 동일하여 유아기부터 발생한 교육환경 간 영어사교육 비용 격차(김진남, 2005)가 취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영어의 중요성 인식으로 인해 영어사교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8). 또, 지역격차에 따른 영어사교육 경험 차이로 인해 영어교육 격차(김민정, 2009)는 취학 전부터 취학 후까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영어능력 격차 해소와 사교육 완화를 위한 온라인 영어학습 콘텐츠 개발 등(박치형, 2009)의 영어교육정책 마련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취학 후 학부모들이 선택한 자녀 영어사교육 방법을 비교해 보면 종합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영어사교육 방법에서 가급지의 비율이 높았다. 종합학원의 특성상 초등학교 전 과목을 다루고 있으면서 영어전문 학원(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K어학당 주3회 수강 월 20만원 2010.03 현재)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하여(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S 종합학원 월 8만원 2010.03월 현재) 비싼 영어사교육비가 부담 되는 라급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외어학연수 등 고비용의 영어사교육 방법은 가와 나급지에서만 활용되었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은 학교급지에 따라 영어사교육 실시, 시작 시기, 영어사교육 시간, 영어사교육 비용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도심지(가)와 농·어촌(라)지역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영어사교육 비용에서 평균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수익자 부담인 영어사교육의 성격상 학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제공되는 영어학습 기회와 양의 차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의 대물림을 말해주고 있다(유한구, 2006). 최근 영어사교육비 절감에 EBS교육 프로그램이 도움된

다는(75.1%) 여론 조사 결과와 함께 무상영어교육 등을 논의하는 ‘영어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국민 대 토론회(안선회, 2009)’ 개최 등은 영어사교육비 경감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들이라 하겠다.

2)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사교육 실시, 영어사교육 시작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영어사교육 방법에 대한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80>에서 보듯이 학부모 학력에 따라 대졸(88%), 전문대졸(82%), 고졸(77.9%)의 순서로 유의한 차이($\chi^2=11.7$, $p=.003$)를 보였다. 학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80>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n=806$)

학부모 학력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계
	미실시	실시	
고졸이하	59 (22.1)	208 (77.9)	267 (100)
전문대졸	31 (18.0)	141 (82.0)	172 (100)
대졸이상	44 (12.0)	323 (88.0)	367 (100)
계	134 (16.6)	672 (83.4)	806 (100)

$$\chi^2(df)=11.701(2) \quad p=.003$$

(2)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정 결과, <표 81>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0.595$, $p=.001$). 1학년부터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대졸이상(55.7%), 전문대졸(44%), 고졸(34.1%)학력의 순서로 비율이 낮아,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저학년에서 영어사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1>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n=672$)

학부모 학력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고졸이하	71 (34.1)	56 (26.9)	49 (23.6)	17 (8.2)	10 (4.8)	5 (2.4)	208 (100)
전문대졸	62 (44.0)	28 (19.9)	26 (18.4)	15 (10.6)	9 (6.4)	1 (0.7)	141 (100)
대졸이상	180 (55.7)	57 (17.6)	54 (16.7)	21 (6.5)	9 (2.8)	8 (0.6)	323 (100)
계	313 (46.6)	141 (21.0)	129 (19.2)	53 (7.9)	28 (4.2)	8 (1.2)	672 (100)

$$\chi^2(df)=30.595(10) \quad p=.001$$

학부모 학력 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¹⁸⁾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 학력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4$, $p=.000$). 사후비교분석 결과,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력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졸과 대졸 학력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18) 임시로 '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4', '5학년=5', '6학년=6'을 부여하여 학부모 학력을 독립변수,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를 종속변수로 설정.

(3)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정 실시 결과,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0.363$, $p=.000$). 주당 1~2시간의 경우 고졸이하(35.1%), 전문대졸(34.8%), 대졸 이상(18.6%)의 순서였으나, 주당 9시간 이상의 경우는 대졸(8.7%), 전문대졸(7.8%), 고졸이하(4.8%)의 순서로 나타나 학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취학 후 자녀의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이 많았다.

<표 82>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n=672$)

학부모학 력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고졸이하	73 (35.1)	41 (19.7)	71 (34.1)	13 (6.3)	10 (4.8)	208 (100)
전문대졸	49 (34.8)	26 (18.4)	44 (31.2)	11 (7.8)	11 (7.8)	141 (100)
대졸이상	60 (18.6)	62 (19.2)	127 (39.3)	46 (14.2)	28 (8.7)	323 (100)
계	182 (27.1)	129 (19.2)	242 (36.2)	70 (10.4)	49 (7.3)	672 (100)

$$\chi^2(df)=30.363(12) \quad p=.000$$

학부모 학력 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¹⁹⁾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학력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72$, $p=.000$). 사후비교분석 결과, 고졸 이하와 대졸이상,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력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9) 임시로 '1~2시간=1', '3~4시간=2', '5시간 이상=3'을 부여하여 학부모 학력을 독립변수,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

(4) 학부모 학력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학부모 학력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정 결과,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9.668$, $p=.000$). 월 10만원 미만 경우는 고졸이하(23.1%), 전문대졸(24.8%), 대졸이상(11.5%) 학력의 순서로 나타났지만,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고졸이하(19.7%), 전문대졸(23.4%), 대졸(51.8%)의 순서의 비율로 나타나, 학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이 많았다.

<표 83> 학부모 학력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n=672$)

학부모 학력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고졸이하	48 (23.1)	119 (57.2)	36 (17.3)	3 (1.4)	2 (1.0)	208 (100)
전문대졸	35 (24.8)	73 (51.8)	24 (17.0)	9 (6.4)	0 (0)	141 (100)
대졸이상	37 (11.5)	115 (35.6)	132 (40.9)	30 (9.3)	9 (1.6)	323 (100)
전체	120 (17.9)	307 (45.7)	192 (28.6)	42 (6.3)	11 (1.6)	672 (100)

$\chi^2(df)=79.668(8)$ $p=.000$

학부모 학력 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²⁰⁾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 학력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4.95$, $p=.000$). 사후비교분석 결과,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학력 간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 임시로 '10만원 미만~20만원=1', '20만원초과~40만원미만=2', '40만원 이상=3'을 부여하여 학부모 학력을 독립변수,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을 종속변수로 설정

(5)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학부모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표 84>와 같다.

<표 84>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학부모 학 력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영어 전문 학원	종합 학원 영어	영어 학습지	개인 그룹 과외	학부모 지도	조기 유학	온라인 학습	해외 어학 연수	영어 캠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고졸 이하	125 (18.6)	40 (6.0)	54 (8.0)	22 (3.3)	3 (0.4)	0 (0)	9 (1.3)	2 (0.3)	9 (1.3)	208 (31.0)
전문 대졸	74 (11.0)	27 (4.0)	35 (5.2)	20 (3.0)	9 (1.3)	0 (0)	14 (2.1)	0 (0)	2 (0.3)	141 (21.0)
대졸 이상	233 (34.7)	20 (3.0)	59 (8.8)	42 (6.3)	35 (5.2)	2 (0.3)	36 (5.4)	6 (0.9)	15 (2.2)	323 (48.1)
계	432 (64.3)	87 (12.9)	148 (22.0)	84 (12.5)	47 (7.0)	2 (0.3)	59 (8.8)	8 (1.2)	26 (3.9)	672 (100)

종합학원 영어수강을 제외하면 대졸이상 학력이 고졸학력 학부모에 비해 모든 영어사교육 방법에서 이용 비율이 높았다. 영어전문학원 수강 비율은 대졸 이상(34.7%)학력에서 고졸 이하(18.6%), 전문대졸(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 해외 조기유학을 시키는 경우는 대졸이상 학력에서만 나타났다.

학부모 학력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차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학 후 자녀 영어사교육 실시는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학력의 순서로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학부모 학력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은 학부모의 자녀들이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후 자녀의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는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 학력의 모든 경우에서 1학년부터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시작 학년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학력의 순서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에게 영어사교육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거의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과외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학부모 학력 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는 고졸이하와 대졸 이상,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력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졸과 대졸 학력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1~2시간의 경우는 고졸이하 학력 학부모들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학력 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졸 학력 학부모의 자녀들은 62.2%가 주당 5시간 이상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9시간 이상의 경우는 대졸 이상 학력에서 전문대졸, 고졸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졸과 고졸이하, 대졸과 전문대졸 학력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목표 언어에 대한 노출시간과 영어의 능숙한 정도는 비례하는(Carroll & Sapon, 1959) 언어 학습의 특성 상, 학부모 학력에 따른 영어노출량의 차이는 학습자 개인차를 배제한다면 영어능력에 심각한 차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학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 달 10만원 미만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순서로 낮았으나, 20만원 이상 영어사교육비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학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이 많았다. 또, 대졸 학력과

고졸, 그리고 대졸과 전문대졸 학력 간 영어사교육 비용 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졸 학력의 지출정도가 더 높았다.

취학 후 자녀의 영어사교육 방법의 선택에 있어 학부모들은 학력에 상관없이 영어전문학원 수강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선택 비율을 살펴보면 고졸과 전문대졸보다 대졸학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학원에서 영어수강은 고졸학력 학부모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다 저렴한 수강료로 영어과목 외에 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대졸 학력의 학부모들은 모든 영어사교육 유형에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해외조기유학을 가는 자녀는 대졸 학력에서만 나타나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비용 부담이 높은 영어사교육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학부모 학력은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시작 시기, 주당 영어학습 시간, 영어사교육 비용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학력 학부모 간에 더욱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어, 학부모 학력 배경에 의한 영어사교육 기회와 양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의 폭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3)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사교육 실시,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과 영어사교육 방법을 학부모 소득에 따라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 Welch-Aspin 검정을 실시하였다.

(1)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정 결과, <표 85>에서 보듯이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는 학부모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3.798, p=.000$). 소득 300만원 이상(89%)인 학부모는 300만원 미만(73%)에 비해 영어사교육 실시 비율이 높았다.

<표 85>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n=806$)

학부모 소득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계
	미실시	실시	
300만원 미만	76 (27.0)	205 (73.0)	281 (100)
300만원 이상	58 (11.0)	467 (89.0)	525 (100)
계	134 (16.6)	672 (83.4)	806 (100)

$\chi^2(df)=33.798(1) \quad p=.000$

학부모 소득 간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비교를 위해 두 독립표본 t 검정²¹⁾을 실시한 결과, 300만원 이상($M=1.89, SD=.314$)과 300만원 미만($M=1.73, SD=.445$)간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932, p=.000$). 즉, 소득이 높은 학부모의 자녀가 영어사교육을 받는 정도가 높았다.

(2)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정 실시 결과, <표 86>에서 보듯이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는 학부모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4.676, p=.000$). 1학년부터 영어

21) 집단변수를 '학부모 소득'(300만원 이하=1, 300만원 이상=2의 값을 부여), 검정변수를 '영어사교육 실시'(미실시=1, 실시=2의 값을 부여)로 설정하여 분석.

사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53.5%)의 비율이 300만원 미만(30.7%)보다 높았다.

<표 86>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n=672$)

학부모 소득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300만원 미만	63 (30.7)	49 (23.9)	57 (27.8)	27 (9.8)	11 (5.4)	5 (2.4)	205 (100)
300만원 이상	250 (53.5)	92 (19.7)	72 (15.4)	33 (7.1)	17 (3.6)	3 (0.6)	467 (100)
계	313 (46.6)	141 (21.0)	129 (19.2)	53 (7.9)	28 (4.2)	8 (1.2)	672 (100)

$$\chi^2(df)=34.676(5) \quad p=.000$$

학부모 소득 간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²²⁾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득 300만원 이상($M=1.9$, $SD=1.181$) 집단과 300만원 미만($M=2.42$, $SD=1.295$) 집단 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192$, $p=.000$). 소득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낮게 나타나 고소득 학부모의 자녀들이 더 낮은 학년에서 영어사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22) 집단변수를 '학부모 소득', 검정변수를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4, 5학년=5, 6학년=6의 값을 부여)로 설정하여 분석.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87>에서 보듯이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학부모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0.34$, $p=.000$). 주당 1~2시간의 경우, 300만원 미만(39.5%)이 300만원 이상(21.6%)보다 높았으나, 5시간 이상은 300만원 이상(60%)이 300만원 미만(39.6%)보다 높게 나타나, 소득이 높은 학부모 자녀들의 영어사교육 학습 시간이 많았다.

<표 87>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n=672$)

학부모 소득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300만원 미만	81 (39.5)	43 (21.0)	60 (29.3)	12 (5.9)	9 (4.4)	205 (100)
300만원 이상	101 (21.6)	86 (18.4)	182 (39.0)	58 (12.4)	40 (8.6)	467 (100)
계	182 (27.1)	129 (19.2)	242 (36.2)	70 (10.4)	49 (7.3)	672 (100)

$\chi^2(df)=30.339(4)$ $p=.000$

학부모 소득 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두 독립 표본 t 검정²³⁾을 실시한 결과, 300만원 미만($M=2.15$, $SD=1.141$) 집단과 300만원 이상($M=2.68$, $SD=1.19$)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t=-5.408$, $p=.000$) 소득이 높은 학부모 자녀들의 영어사교육 학습 시간이 많음이 입증되었다.

23) 집단변수를 '학부모 소득', 검정변수를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1~2시간=1, 3~4시간=2, 5~6시간=3, 7~8시간=4, 9시간 이상=5의 값을 부여)으로 설정하여 분석

(4)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학부모 소득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88>에서 보듯이 영어사교육 비용은 학부모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1.23$, $p=.000$). 월 20만원 이상의 영어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45.3%) 집단의 비율이 300만원 미만(14.7%) 집단보다 높았다.

<표 88>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n=672$)

학부모 소득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2 (30.2)	113 (55.1)	27 (13.2)	3 (1.5)	0 (0)	205 (100)
300만원 이상	58 (12.4)	194 (41.5)	165 (35.3)	39 (8.4)	11 (2.4)	467 (100)
계	120 (17.9)	307 (45.7)	192 (28.6)	42 (6.3)	11 (1.6)	672 (100)

$$\chi^2(df)=71.228(4) \quad p=.000$$

학부모 소득 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독립 표본 t 검정²⁴⁾을 실시한 결과, 300만원 미만($M=1.36$, $SD=1.015$) 집단과 300만원 이상($M=2.19$, $SD=1.148$)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0.281$, $p=.000$).

24) 집단변수를 '학부모 소득', 검정변수를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10만원미만=1,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2,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3,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4, 40만원 이상=5의 값을 부여)으로 설정하여 분석

(5)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학부모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표 89>과 같다.

<표 89>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학부모 소득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영어 전문 학원	종합 학원 영어	영어 학습지	개인 그룹 과의	학부모 지도	조기 유학	온라 인 학습	해외 어학 연수	영어 캠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300만원 미만	109 (16.2)	42 (6.3)	52 (7.7)	16 (2.4)	6 (0.9)	0 (0)	13 (1.9)	1 (0.1)	3 (0.4)	205 (30.5)
300만원 이상	323 (48.1)	45 (6.7)	96 (14.3)	68 (10.1)	41 (6.1)	2 (0.3)	46 (6.8)	7 (1)	23 (3.4)	467 (69.5)
계	432 (64.3)	87 (12.9)	148 (22.0)	84 (12.5)	47 (7.0)	2 (0.3)	59 (8.8)	8 (1.2)	26 (3.9)	672 (100)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선택에 있어, 소득 300만원 이상(48.1%)인 학부모 자녀의 영어전문학원 수강 비율은 300만원 미만(16.2%) 학부모 집단보다 높았다. 소득 300만원 이상 학부모는 영어캠프(3.4%), 조기유학(0.3%), 해외어학연수(1%)를 선택하는 비율이 300만원 미만(영어캠프 0.4%, 조기유학 0%, 해외어학연수 0.1%)에 비해 높아, 소득이 높을수록 보다 비용부담이 높은 영어사교육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 영어교육을 위해 보다 나은 영어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영어로만 학습 가능한 교육환경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영어사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능력 차이에 따른 수준별 영어수업의 효율적 실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오준일, 1995)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학 후 영

어사교육 현장에서 학부모 소득 요인은 영어사교육 실시와 시작시기, 영어사교육 학습량, 영어사교육 비용, 영어사교육 학습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는 소득이 높은 학부모의 자녀들이 취학 후에 영어사교육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통계청 자료(2009.02) 역시 한 달 소득 300만원~400만원 미만 계층의 사교육 참여율은 84.4%인데 비해, 300만원 미만 계층은 77%, 100만원 미만은 36.9%에 그쳐,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성적순위는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통계청, 2009)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재고하게 한다. 아울러 치열한 입시 경쟁의 수단으로서의 영어교육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능력으로서의 영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 분위기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는 학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학년에서 시작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 학부모 소득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의 자녀가 더 낮은 학년에서 영어사교육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는 취학 전부터 가정환경인 학부모 소득에 따라 발생한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가 취학 후에도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학부모 소득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00만원 미만 집단은 1~2시간, 300만원 이상 집단은 5시간 이상 영어사교육을 받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두 소득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영어사교육 학습 시간이 많았다.

한 달 지출하는 영어사교육 비용 역시 학부모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집단의 비율이 높았으며, 300만원 이상과 300만원 미만 간에 약 2배 정도의 평균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의 학부모일수록 자녀들의 영어사교육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 영어사교육비는 2007년 대비 15.9% (통계청, 2009)가 증가하여 영어가 사교육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 달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과 100만원 미만 계층 간 자녀 사교육비 지출은 8.8배의 차이를 보여(한국경제 헤드라인, 2009.02.28 A 1면) 계층격차의 확대와 재생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학부모들은 취학 후 자녀 영어학습을 위해 영어전문학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박지성, 2003; 손승희, 2009), 300만원 이상(48.1%) 소득 집단의 비율이 300만원 미만(16.2%) 집단보다 높았다. 또, 영어캠프, 조기유학, 해외 어학연수 등 비용부담이 높은 영어사교육 방법도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높아, 학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고액 부담의 수준 높은 영어사교육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소득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학교영어교육 방법과 수준을 넘어선 자녀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영어교육과정 수준으로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자녀 영어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시키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학부모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학교영어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차이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사교육 실시,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영어사교육 방법을 자녀 학년에 따라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90>에서 보듯이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는 자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4.07$, $p = .047$). 5~6학년(86%)은 3~4학년(80.7%)에 비해 영어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영어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90>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n=806$)

자녀 학년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계
	미실시	실시	
3~4학년	78 (19.3)	327 (80.7)	405 (100)
5~6학년	56 (14.0)	345 (86.0)	401 (100)
계	134 (16.6)	672 (83.4)	806 (100)

$\chi^2(df)=4.074(1) \quad p=.047$

자녀 학년 간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두 독립 표본 t 검정²⁵⁾을 실시한 결과, 3~4학년($M=1.81$, $SD=.496$) 자녀의 학부모 집단과 5~6학년($M=1.86$, $SD=.347$) 자녀의 학부모 집단 간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344$, $p=.000$).

(2)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91>에서 보듯이 자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

25) 집단변수를 '자녀 학년'(3~4학년=1, 5~6학년=2의 값을 부여), 검정변수를 '영어사교육 실시'(미실시=1, 실시=2의 값을 부여)로 설정하여 분석

이를 보였다($\chi^2=113.13$, $p=.000$). 3~4학년은 5~6학년(1학년 31.3%, 2학년 18.8%)에 비해 1학년(62.7%)과, 2학년(23.2%)에서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해가 갈수록 영어사교육을 빨리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1>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n=672$)

자녀 학년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3~4학년	205 (62.7)	76 (23.2)	38 (11.6)	7 (2.1)	1 (0.3)	0 (0)	327 (100)
5~6학년	108 (31.3)	65 (18.8)	91 (26.4)	46 (13.3)	27 (7.8)	8 (2.3)	345 (100)
전체	313 (46.6)	141 (21.0)	129 (19.2)	53 (7.9)	28 (4.2)	8 (1.2)	672 (100)

$$\chi^2(df)=113.134(5) \quad p=.000$$

자녀 학년 간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두 독립표본 t 검정²⁶⁾을 실시한 결과, 3~4학년 학부모 집단($M=1.54$, $SD=.805$)과 5~6학년 학부모 집단($M=2.54$, $SD=1.736$)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t=-11.46$, $p=.000$), 3~4학년 학생들이 더 낮은 연령에서 영어사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

취학 후 자녀 학년에 따른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92>에서 보듯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8.35$, $p=.08$). 그러나 9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영어사교육을 받는 경우의 비율이 5~6학년

26) 집단변수를 '자녀 학년', 검정변수를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은 4, 5학년=5, 6학년=6의 값을 부여)로 설정하여 분석.

(9.6%)이 3~4학년(4.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92>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n=672)

자녀 학년	취학 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이상	
3~4학년	83 (25.4)	62 (19.0)	128 (39.1)	38 (11.6)	16 (4.9)	327 (100)
5~6학년	99 (28.7)	67 (19.4)	114 (33.0)	32 (9.3)	33 (9.6)	345 (100)
계	182 (27.1)	129 (19.2)	242 (36.2)	70 (10.4)	49 (7.3)	672 (100)

$$\chi^2(df)=8.346(4) \quad p=.08$$

(4)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

자녀 학년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93>에서 보듯이 학년에 따라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65$, $p=.047$). 3~4학년 집단은 월 20만원 이상 영어사교육비를 지출한 비율(40%)이 5~6학년(33%) 집단보다 높았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 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93> 자녀 학년에 따른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의 차이(n=672)

자녀 학년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3~4학년	65 (19.9)	131 (40.1)	103 (31.5)	24 (7.3)	4 (1.2)	327 (100)
5~6학년	55 (15.9)	176 (51.0)	89 (25.8)	18 (5.2)	7 (2.0)	345 (100)
계	120 (17.9)	307 (45.7)	192 (28.6)	42 (6.3)	11 (1.6)	672 (100)

$$\chi^2(df)=9.650(4) \quad p=.047$$

(5)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의 차이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자녀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표 94>에서 보듯이 3~4학년 집단은 영어사교육 방법 중 영어학습지(12.4%)와 학부모가 직접지도(4.8%)하는 비율이 5~6학년 집단(영어학습지 9.7%, 학부모가 직접 지도2.2%)에 비해 높았다. 반면, 5~6학년은 조기유학(0.3%), 해외어학연수(1%), 영어캠프(2.2%)등의 영어사교육 방법이 3~4학년(조기유학 0%, 해외어학연수 0.1%, 영어캠프 1.6%)에 비해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전용환경을 추구하는 고비용 부담의 영어사교육 방법이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4>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자녀 학년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									계
	영어 전문 학원	종합 학원 영어	영어 학습지	개인 그룹 과외	학부모 지도	조기 유학	온라인 학습	해외 어학 연수	영어 캠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3~4 학년	215 (32.0)	20 (3.0)	83 (12.4)	40 (6.0)	32 (4.8)	0 (0)	27 (4.0)	1 (0.1)	11 (1.6)	327 (48.7)
5~6 학년	217 (32.3)	67 (10)	65 (9.7)	44 (6.5)	15 (2.2)	2 (0.3)	32 (4.8)	7 (1)	15 (2.2)	345 (51.3)
계	432 (64.3)	87 (12.9)	148 (22.0)	84 (12.5)	47 (7.0)	2 (0.3)	59 (8.8)	8 (1.2)	26 (3.9)	672 (100)

자녀 학년에 따른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5~6학년(86%)에서 3~4학년(80.7%)에 비해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다. 또, 자녀 학년 간 차이 비교에서 5~6학년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아, 취학 후 영어사교육 증가의 원인은 학벌중심 사회에서 보다 나은 지위획득을 위한 진학

경쟁(유한구, 2006)을 위해 학교영어교육에서 충족할 수 없는 영어능력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학부모들은 자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과 내신 성적, 대학입시를 의식하여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학 후 자녀 학년에 따른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는 3~4학년이 1~2학년 때부터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비율이 5~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 집단 간에도 3~4학년이 더 낮은 연령에서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학 전 연구 결과 역시 자녀 학년이 낮을수록 영어학습 시작 연령이 낮아,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초등1학년부터 영어를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할 가치가 있는 교육 정책이라 하겠다.

취학 후 자녀 학년에 따른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유의한 차이는 없어, 영어사교육을 받는 학습 시간은 학년에 관계없이 비슷하다고 해석된다. 2010년부터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욕구에 부응하여 초등영어교육시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정부의 정규 영어교육 시간 확대가 사교육 감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영어사교육 시간이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8). 영어교육 시수 확대만으로는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초등 1학년 영어 도입, 수준별 영어교육과정 구성과 수준별 이동수업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어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취학 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자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3~4학년이 5~6학년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 영어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학을 위해 영어학습의 양과 질을 높이려는 학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 탓으로 보인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 방법을 비교한 결과, 3~4학년

은 영어학습지와 학부모가 직접 지도하는 비율이 5~6학년에 비해 높은 반면, 5~6학년은 조기유학, 해외어학연수, 영어캠프 등의 영어사교육 방법이 3~4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준 높은 영어사교육과 영어전용환경을 추구하는 영어교육 방법이 선택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영어교육 특화를 내세운 국내 영어사교육 기관들의 높은 비용 대비 영어교육내용에 만족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어권 국가의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 하겠다(아래 면담 내용 참조). 진경애(2006)는 영어교육에 있어 고비용 저효율 원인의 하나로 학교 밖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적하고 있듯이 학부모들의 영어사용환경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매우 절실해 보인다.

LKS: 제가 다른 건 해줄건 없고 영어는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중략)
근데 말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하면 말이 느는(향상)거예요.

연구자: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뜻인가요?

LKS: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전무하다는 거죠.

연구자: 그럼 (국내 영어)사교육 시장에서도 그러한 환경이 힘들다는 생각이셨겠네요.

LKS: 그렇죠. 사교육도 그런 환경이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 원어민 환경의 사교육비는 엄청나고 그 사교육비라면 필리핀 정도는 가고도 남죠.

(면담자 LKS. 2009.02.18)

통계청(2008)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초등 유학생의 56.7%가 영어권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동남아(전체의 22.6%)와 중국(전체의 12.5%) 순이었다. 특히 동남아는 2006년(2,717명, 전체의 19.7%)보다 전체 유학생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오히려 2.9%가

증가하였다. 이는 영어권 국가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비영어권 나라에 가서라도 자녀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자녀 학년에 따른 영어사교육의 차이는 분석결과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생들은 고학년에서 영어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자녀 학년 진급에 따른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사교육 정도에 따라 심화되는 영어능력의 격차에 대하여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2.2 취학 후 자녀의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4.2.2.1 취학 후 자녀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의 인식 분석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학 후 자녀의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 영어사교육 환경, 영어사교육 효과,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힘들었던 점,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 등 5개 인식 영역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인식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 취학 후 자녀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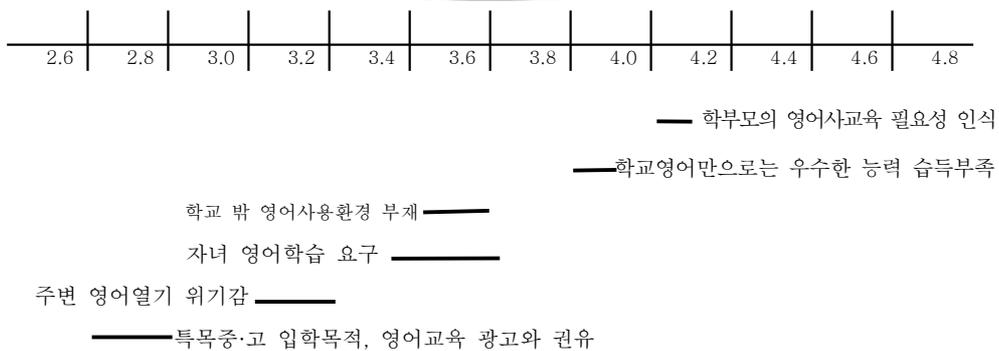
취학 후 자녀의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 인식 문항에 관한 평균 순위를 살펴보면, <표 95>에서 보듯이 학부모의 영어사교육 필요성 인식(M=4.09) 요인이 가장 높으며, 특목중·고 입학 목적이 가장 낮았다(M=2.69).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통계적 순위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영어사교육 필요성 인식이 가장 우선하며, 다음으로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한 영어능력 습득 부족, 세 번째 학교 밖 영어사용 환경부재와 자

녀 영어학습 요구, 네 번째 주변 영어열기 위기감, 마지막으로 영어교육 광고와 권유와 특목중고 입학목적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과 통계적 순위 모두에서 학부모의 영어사교육 필요성 인식 요인이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는 우선 이유로 나타났다.

<표 95>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의 우선순위 분석(n=672)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학부모의 영어사교육 필요성 인식	4.09	.026	.671	4.038	4.142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한 능력 습득부족	3.84	.032	.833	3.776	3.904
학교 밖 영어사용환경 부재	3.51	.036	.946	3.438	3.582
자녀 영어학습 요구	3.44	.080	2.070	3.280	3.600
주변 영어열기 위기감	3.14	.039	1.010	3.062	3.218
영어교육 광고와 권유	2.75	.036	.940	2.678	2.882
특목중고 입학 목적	2.69	.040	1.040	2.610	2.770

<그림 7>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에 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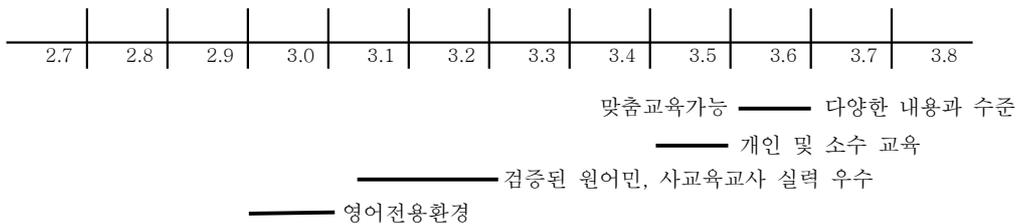
2) 취학 후 영어사교육 환경에 관한 인식

취학 후 자녀 영어사교육 환경에 관한 인식 문항들의 평균 순위를 살펴 보면, <표 96>에서 보듯이 맞춤교육가능(M=3.58), 다양한 내용과 수준(M=3.55), 개인 및 소수교육(M=3.37), 검증된 원어민(M=3.11)의 순서였다.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8>에서 보듯이 맞춤교육가능과 다양한 내용과 수준이 가장 우선하며, 다음으로 개인 및 소수교육, 세 번째로 검증된 원어민과 사교육 교사 실력 우수를, 마지막으로 영어전용환경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취학 후 자녀의 영어사교육 환경으로 맞춤교육이 가능한 점, 다양한 영어 학습 내용과 수준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96> 취학 후 영어사교육 환경요인의 우선순위(n=672)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맞춤교육 가능	3.58	.030	.774	3.520	3.640
다양한 내용과 수준	3.55	.032	.832	3.486	3.614
개인 및 소수교육	3.37	.034	.876	3.302	3.438
검증된 원어민	3.11	.034	.888	3.042	3.178
사교육교사 실력 우수	3.09	.034	.886	3.022	3.158
영어전용환경	2.95	.037	.971	2.876	3.024

<그림 8> 취학 전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에 대한 문항 값의 범위



3) 취학 후 영어사교육 효과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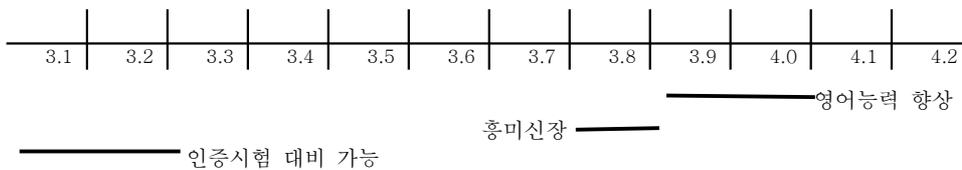
취학 후 자녀 영어사교육 효과에 관한 인식 문항들의 평균 순위를 비교해 보면 <표 97>에서 보듯이 영어능력 향상(M=3.9), 흥미신장(M=3.47), 인증시험 대비(M=3.11)의 순서로 나타났다.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9>에서 보듯이 자녀의 영어능력 향상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흥미 신장, 마지막으로 인증시험 대비 가능 요인을 중요시하였다. 학부모들은 영어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녀의 영어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97> 취학 후 영어사교육 효과에 대한 학부모 인식의 우선순위(n=672)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능력 향상	3.90	.026	.663	3.848	3.952
흥미신장	3.77	.029	.747	3.712	3.828
인증시험 대비 가능	3.11	.039	1.000	3.032	3.188

분석한 문항 값의 범위를 비교해보면 <그림 9>과 같다.

<그림 9> 취학 후 영어사교육 효과에 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4) 취학 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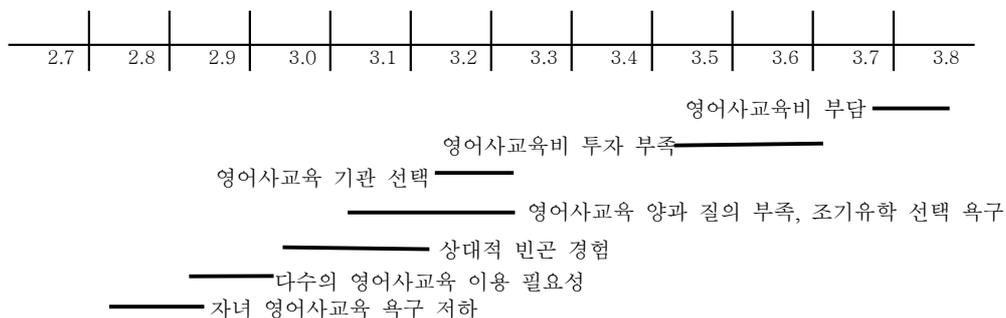
취학 후 자녀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에 대한 학부모 인식 문항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표 98>에서 보듯이 영어사교육비 부담(M=3.73)이 가장 높았

고, 자녀 영어사교육 욕구 저하(M=2.76)가 가장 낮았다.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10>에서 보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비 투자 부족, 세 번째로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과 영어사교육 양과 질의 부족, 조기유학 선택 욕구와 상대적 빈곤감 경험을 네 번째는 다수의 영어사교육 이용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자녀 영어사교육 욕구 저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학부모들은 평균과 통계적 순위 비교에서 영어사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가장 힘들어 했다.

<표 98> 취학 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문항의 우선순위 분석(n=672)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사교육비 부담	3.73	.035	.895	3.660	3.800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비 투자 부족	3.53	.042	1.802	3.446	3.614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	3.13	.039	1.005	3.052	3.208
영어사교육 양과 질 부족	3.11	.044	1.149	3.022	3.198
조기유학 선택 욕구	3.06	.049	1.258	2.962	3.158
상대적 빈곤 경험	2.99	.044	1.152	2.902	3.078
다수의 영어사교육 이용 필요성	2.81	.044	1.137	2.772	2.898
자녀 영어사교육 욕구 저하	2.76	.036	.941	2.688	2.832

<그림 10> 취학 후 영어사교육 효과에 대한 항목 값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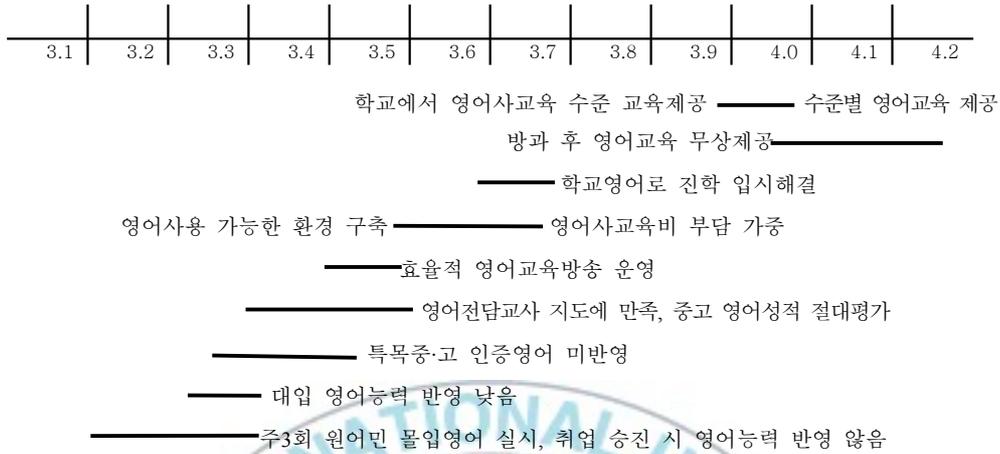
5)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

취학 후 자녀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분석한 결과 <표 99>에서 보듯이 수준별 영어공교육 제공의 평균값(M=3.92)이 가장 컸으며, 취업 승진 시 영어능력 반영 없음의 값(M=3.2)이 가장 낮았다.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분석한 문항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11>에서 보듯이 수준별 영어공교육 제공과 영어사교육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방과 후 무상 영어교육제공, 세 번째로 학교영어로 입시해결, 영어사교육비 부담 가중, 영어사용 환경구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효율적 교육방송, 우수 영어전담교사 지도, 중·고 영어성적 절대평가, 특목중·고 인증영어 반영 없음을, 마지막 순위는 대입 영어능력 반영 낮을 때와 주3회 원어민 몰입영어교육 실시 그리고 취업 승진 시 영어능력 반영 없음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학부모들은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으로 가장 먼저 학교에서 자녀의 영어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영어교육 실시와 사교육 수준의 영어교육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99>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의 우선순위 분석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수준별 영어공교육 제공	3.92	.034	.870	3.852	3.988
학교에서 영어사교육 수준 교육제공	3.92	.034	.874	3.852	3.988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	3.81	.040	1.029	3.730	3.890
학교영어로 진학과 입시해결	3.66	.044	1.143	3.572	3.748
영어사교육비 부담 가중	3.62	.038	.973	3.544	3.696
영어사용 가능한 환경 구축	3.62	.038	.989	3.544	3.696
효율적 영어교육방송	3.45	.038	.977	3.374	3.526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	3.40	.037	.967	3.326	3.474
중고 영어성적 절대평가	3.39	.034	.889	3.322	3.458
특목중·고 인증영어 미반영	3.31	.039	1.024	3.232	3.388
대입 영어능력 반영 낮음	3.23	.040	1.024	3.150	3.310
주3회 원어민 몰입영어 실시	3.23	.041	1.051	3.148	3.312
취업 승진 시 영어능력 반영 없음	3.20	.041	1.065	3.118	3.282

<그림 11>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에 대한 항목 값의 범위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 인식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가 영어사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학교 영어만으로는 자녀의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추는 데 부족하며, 세 번째는 학교 밖에서 영어사용이 가능한 환경 부재와 자녀의 영어 학습요구 그리고 주변의 영어열기로 인한 위기감, 마지막으로 영어교육 광고와 권유와 특목중·고 입학목적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 역시 학부모의 영어교육 중요성 인식이 최우선 순위여서, 영어사교육 증가의 원인은 자녀 영어능력 향상을 염두에 둔 학부모 의지가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 영어만으로는 자녀의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추는 데 부족하다는 학부모의 불만은 자녀 진로에 요구되는 영어능력의 수준이 학교 영어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PMA: 학교에서 뭘 해줘야 한다고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웃음). 학교교육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 -학교 영어수준에 맞추겠다 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학교영어교육에 기대를 하겠지만 그 외에

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아예 바라는 게 없죠. 그냥 학교 영어시간에 출석한다. 그런 의미죠.

연구자: 그럼 학교에 전혀 바라는 것도. 그래도 혹시 학교에서 이런 거 해주면 절대로 학원은 안 보내겠다. 하고 생각해보신적 없으신지?

PMA: 그러니까 수준별 수업을 해주면 즉, 학교 영어수업을 했을 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실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고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침이 있으면 뭐하러 돈들이고 시간 들여(학원으로)가겠습니까? 그게 안되니까 허리가 휘어져도 가는 거죠. (영어)학원으로

(학부모 면담자 PMA, 2009.02.20)

위 학부모 면담자료에서 보듯이, 교육수요자의 학습목표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어교육과정의 재검토와 학생 수준에 맞는 단위 학교별 혹은 학급별 영어교육과정의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취학 후 영어사교육 환경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교육이 가능한 점과 다양한 교육내용과 수준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 및 소수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개별화 교육, 세 번째로 원어민 교사와 영어실력이 우수한 사교육 교사, 마지막으로 영어전용환경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자녀 영어교육의 환경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교육을 받기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원어민과 영어실력이 우수한 교사를 원하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15년까지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를 위한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영어 교육 환경 개선안 발표(김천홍, 2006) 등, 학교영어교육 환경 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부모의 영어교육 욕구와 부합되는 이러한 노력들은 영

어사교육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은 영어사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영어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신장되었음을 영어사교육의 가장 큰 효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취학 전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분석에서 영어사교육은 자녀의 영어학습 흥미유발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한 결과와 비교하면, 취학 후에는 흥미와 함께 영어능력 신장을 위해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사교육 효과를 연구한 많은 결과들도 영어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영어능력과 흥미가 신장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김민정, 2009; 정현숙, 2005; Cheong & Lee, 2003; Jung & Kang, 2005), 자녀의 영어능력을 위해 더욱 영어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자녀 영어능력을 학교영어 교육과정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검·인정 영어교과서 사용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교과서에 직접 반영하여 수준별 맞춤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학습자 친화적 취지(교육과학기술부, 2010)가 초등영어 학습자들의 흥미와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다음으로 학부모들은 영어사교육을 받음으로써 영어인증시험 대비가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가장 힘든 점으로 첫째, 영어사교육 비용부담을 지적하고 있었다. 영어사교육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고, 특목고와 명문대 진학을 위해 영어능력 구비는 필수적이라고(김승현, 2009) 지적되어온 바 있다. 특히 진학을 위해 요구되는 TOEIC, TOEFL, TEPS 등의 학교영어교육과정을 벗어난 공인 영어성적 취득을 위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영어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서 특권층으로 가기 위해 영어는 필수적인 구비능력이 되어야하

며,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영어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교육풍토는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 하겠다. 두 번째로 학부모들은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 비용 투자 부족을 아쉬워하여, 경제적 능력이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녀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 번째로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의 어려움과 영어사교육 학습량과 질의 부족 그리고 영어권 국가로의 조기유학 선택 욕구와 영어사교육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경험을, 네 번째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두 군데 이상 영어사교육이 필요하며, 자녀가 영어사교육 욕구가 저하될 때를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으로 꼽았다. 자녀의 영어사교육 욕구가 저하될 때가 가장 마지막 인식 순위로 분석된 것은 영어사교육 참여가 초등학생들의 교육 결정권자인 학부모 주도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부모들은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영어사교육 교육과정 수준의 수준별 영어공교육 제공을 꼽았다. 이는 영어사교육 환경인식의 분석에서 수준별 맞춤교육, 다양한 교육 내용과 수준의 사교육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이 학교영어교육에 바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과 후 무상 영어교육제공, 세 번째로 학교영어로 입시해결과 영어사교육비 가계 부담 가중 그리고 영어사용 가능한 환경이 구축될 때로 인식하였다. 네 번째는 효율적 EBS 영어교육방송과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 중·고 영어성적 절대평가, 그리고 특목중·고에서 인증영어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을, 마지막으로 대입에 영어능력 반영이 낮을 때와 주 3회 원어민 영어몰입 교육 실시 그리고 취업과 승진 시 영어능력을 반영하지 않을 때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여건으로 학교에서 수준별 영어교육 지

도와 학교에서 영어사교육 수준의 교육 제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취학 전부터 누적된 영어학습의 격차는 현재 초등영어교육 수준으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영어교육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교육 수준의 영어교육을 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당연한 현상이며, 우리나라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의 인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어 교육과정 개정 시 신중하게 반영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방과 후 무상 영어교육이 제공될 때를 두 번째 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영어사교육 부담에서 해방되고 싶은 학부모의 바람을 여실히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영어사교육은 국가적으로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우리나라 영어교육과정이 지니는 한계와 영어를 학습하기에 부적합한 교실, 교사 환경, 특권층으로의 진입을 위한 영어능력 구비가 자녀교육에 있어 학부모들의 상호 경쟁적 심리와 맞물려(김홍주, 2001) 더욱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4.2.2.2 취학 후 자녀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 인식 분석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든 점, 영어사교육을 받도록 할 조건 등 3개 영역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문항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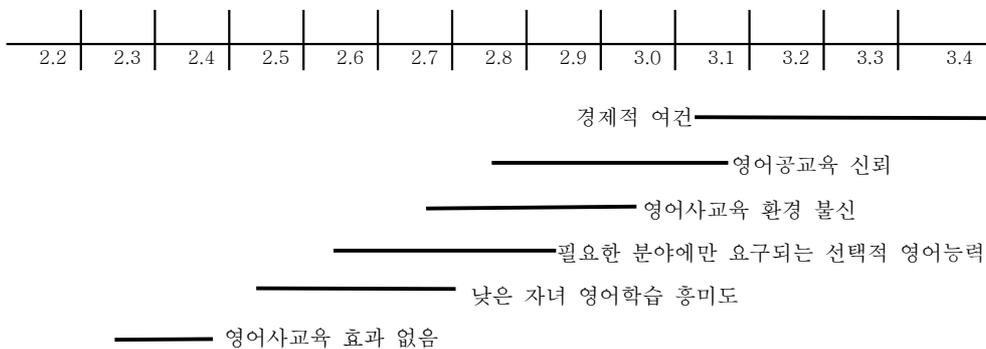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학부모 인식 문항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표 100>에서 보듯이 경제적 여건(M=3.24)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어공교육 신뢰(M=2.81), 가장 낮은 것은 영어사교육의 효과 없음(M=2.29)으로 나타났다. 또,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12>에서 보듯이 경제적 여건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영어공교육 신뢰와 영어사교육 환경 불신, 선택적 영어능력 필요 그리고 낮은 자녀 학습 흥미도라고 생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영어사교육 효과 없음 순위로 분석되었다.

<표 100>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우선순위 분석(n=135)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표준오차×2	
경제적여건	3.24	.099	1.158	3.042	3.438
영어공교육 신뢰	2.81	.072	.839	2.666	2.954
영어사교육 환경 불신	2.71	.072	.844	2.566	2.854
필요한 분야에만 요구되는 선택적 영어능력	2.66	.081	.945	2.498	2.822
낮은 자녀 영어학습 흥미도	2.57	.088	1.023	2.394	2.746
영어사교육 효과 없음	2.29	.056	.657	2.178	2.402

<그림 12>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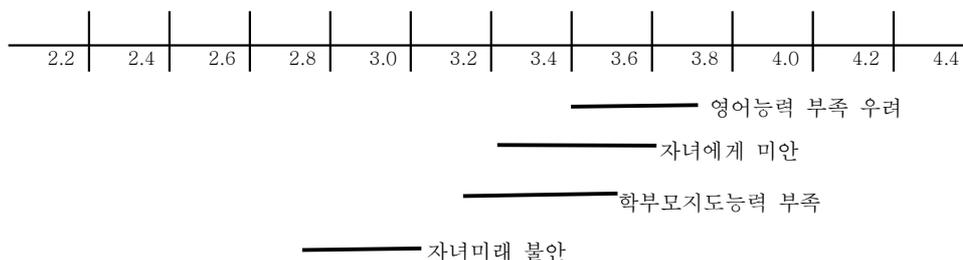


2)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든 점에 관한 인식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든 점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분석한 결과, <표 101>에서 보듯이 평균 순위는 영어능력 부족 우려(M=3.56), 자녀에게 미안(M=3.39), 자녀 미래 불안(M=2.84)의 순서였다. 또,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13>에서 보듯이 학부모들은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자녀의 영어능력 부족을 가장 우려했으며, 다음으로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과 학부모 영어능력지도 부족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와 시키지 않는 학부모 모두가 취학 후 자녀 영어교육의 목표를 영어능력 향상의 중요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자녀에게 영어사교육 기회를 주지 못하는 심리적인 부담마저 안고 있었다.

<표 101>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든 점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 (n=135)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능력부족 우려	3.56	.086	.997	3.388 3.732
자녀에게 미안	3.39	.095	1.099	3.200 3.580
학부모 영어능력지도 부족	3.29	.094	1.092	3.102 3.478
자녀미래 불안	2.84	.096	1.114	2.648 3.032

<그림 13>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힘든 점에 관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3)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시작할 조건에 관한 인식

취학 후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받도록 할 조건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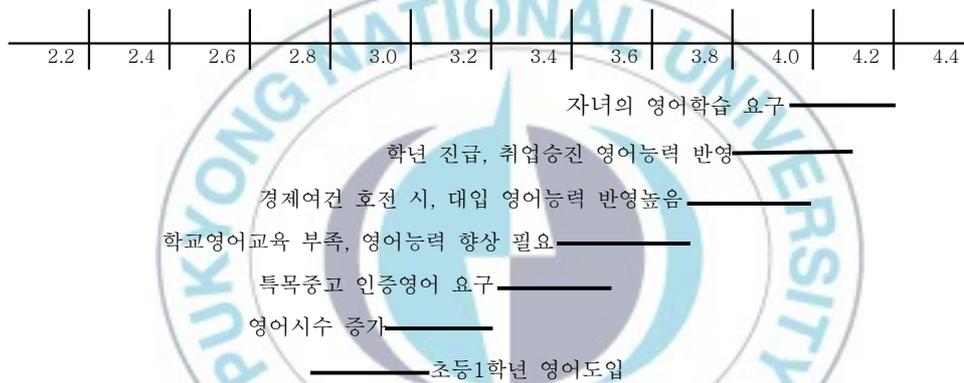
<표 102>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시작할 조건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n=135$)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자녀 영어학습 요구	3.96	.071	.832	3.818	4.102
학년진급	3.87	.062	.721	3.746	3.994
취업승진영어능력반영	3.84	.068	.790	3.704	3.976
경제 여건 호전 시	3.74	.08/9	1.029	3.562	3.918
대입 영어능력 반영 높음	3.73	.067	.784	3.596	3.864
학교영어교육 부족	3.43	.076	.886	3.278	3.582
영어능력 향상 필요	3.42	.073	.851	3.274	3.566
특목중고 인증영어 요구	3.26	.075	.872	3.110	3.410
영어시수 증가	3.02	.077	.893	2.866	3.174
초등1학년 영어 도입	2.82	.085	.992	2.650	2.990

학부모들이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받도록 할 조건에 관한 인식 문항의 평균값은 자녀 영어학습 요구($M=3.96$)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학년진급($M=3.87$), 초등1학년 영어 도입($M=2.82$)이 가장 낮았다. 또,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14>에서 보듯이 자녀 영어학습 요구, 학년진급, 취업승진 시 영어능력 반영, 경제여건 호전 시와 대입 영어능력 반영 높음의 5개 항목 모두 영어사교육을 시

작할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영어교육 부족과 영어능력 향상 필요를 세 번째는 특목중·고 인증영어요구, 네 번째는 학교 영어시수 증가, 마지막으로 초등1학년 영어도입의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영어공부를 원하고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영어사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이라 생각하여, 진학을 위해 영어사교육 우선적으로 받겠다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림 14>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시작할 조건 인식 문항 값의 범위



취학 후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었다. 다음으로 학교영어교육을 신뢰한다고 나타나, 영어교육의 해답을 사교육보다 공교육에서 찾고자 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취학 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자녀의 영어능력 부족을 가장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영어사교육 기회를 주지 못하는데 대한 미안한 마음과 부모의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에서 지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힘들어하였다. 결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영어사교육을 시키는 가

장 큰 목적은 진학과 입시를 위한 자녀 영어능력 신장이 목표이며, 영어사교육 시장 확대와 함께 자녀에게 영어사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요즘 (엄마들이) 진짜 하는 말들 중에 ‘소득격차가 바로 학습능력의 격차’라는 말이죠. 돈이 있으면 공부 잘하고....

(학부모 면담자 PMA, 2009.02.20)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시작할 조건으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고 자녀가 영어사교육 받기를 원하며, 진학과 취업에서 영어능력을 필요로 할 때를 가장 우선으로 인식하였다. 그 중에서 경제적 여건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 여건만 허용되면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영어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영어교육 부족과 영어능력 향상 필요, 세 번째로는 특목중·고 인증영어 요구, 네 번째는 학교 영어시수 증가, 마지막으로 초등 1학년에 영어가 도입되면 영어사교육을 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영어능력 부족을 가장 우려하여,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면 영어사교육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사교육 결정권자인 학부모들에게 영어공교육의 신뢰를 심어주지 않는 한 영어사교육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된다.

4.2.2.3 영어교육과 관련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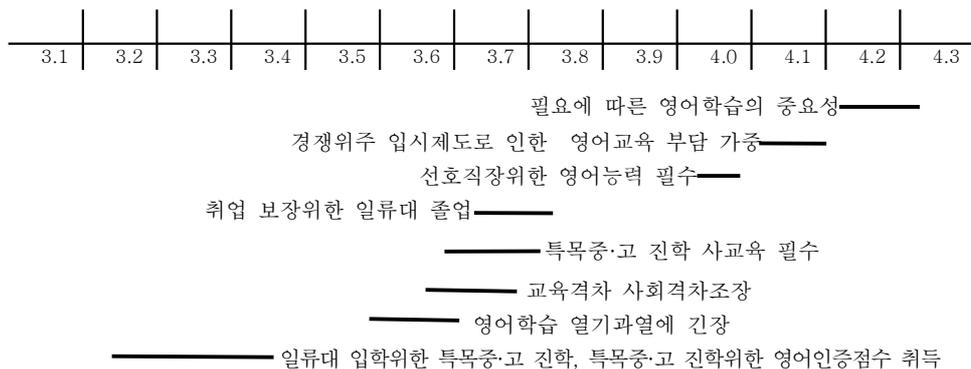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부모들(806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교육 외적 환경인 사회구조적 전반에 관하여 진술된 11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문항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3>과 <그림 15>와 같다.

<표 103 >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진술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 분석(n=806)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필요에 따른 영어학습의 중요성	4.22	.029	.818	4.162	4.278
경쟁위주입시제도로 인한 영어교육부담가중	4.07	.026	.743	4.018	4.122
선호 직장위한 영어능력 필수	4.00	.029	.817	3.942	4.058
취업보장 위한 일류대 졸업	3.68	.035	.995	3.610	3.750
특목중고 진학 사교육 필수	3.65	.034	.967	3.582	3.718
교육격차 사회격차 조장	3.63	.035	.993	3.560	3.700
영어학습열기 과열에 긴장	3.55	.032	.908	3.486	3.614
일류대 입학위한 특목중·고 진학	3.37	.036	1.034	3.298	3.442
특목중·고 진학위한 영어인증점수 취득	3.20	.035	1.003	3.130	3.270

<그림 15>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진술 인식 문항 값의 범위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진술에 관한 인식 문항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필요에 따른 영어학습의 중요성(M=4.22)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영어교육부담을 가중하는 경쟁위주 입시제도(M=4.07), 마지막 순위는 특목중·고 진학 위한 영어인증점수 획득(M=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내에서 평균값의 가장 우선순위는 필요에 따른 영어학습의 중요성으로, 모든 국민이 영어를해야만 하는 사회 구조적 풍토를 지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쟁위주 입시제도로 인한 영어사교육 부담 가중, 선호직장 취업을 위한 영어능력, 일류대 졸업은 취업 보장, 세 번째로는 특목중·고 진학을 위한 영어사교육 필요, 교육격차가 사회격차를 조장, 영어학습 열기 과열로 인한 긴장, 일류대 입학에 필요한 영어인증점수 취득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적 풍토를 지적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영어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쟁적 입시제도의 개선과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한 영어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과 취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영어를 잘해야만 특권층 구조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장치와 학부모교육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경쟁위주 입시제도로 인한 영어교육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하여, 자녀 영어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세 번째 취업을 위한 필수적인 영어능력 구비, 네 번째 특목중·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수, 교육격차가 사회격차 조장, 영어학습 열기 과열로 인한 긴장감을 호소하였다. 다섯 번째 특목중·고, 일류대 입학에 필요한 영어인증점수 취득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적 풍토를 지적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영어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쟁적 입시제도의 개선과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한 영어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과 취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영어를 잘해야만 특권층 구조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장치와 학부모교육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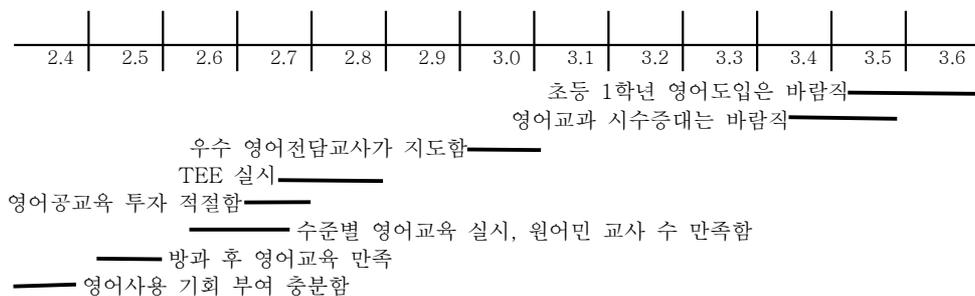
4.2.2.4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부모(806명)를 대상으로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영어교육에 관하여 진술된 9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문항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4>와 <그림 16>과 같다.

<표 104>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의 우선순위(n=806)

문항 내용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초등1학년 영어 도입은 바람직	3.50	.037	1.045	3.426 3.574
영어교과시수 증대는 바람직	3.42	.030	.859	3.360 3.480
우수 영어전담교사가 지도함	2.96	.030	.844	2.900 3.020
TEE 실시함	2.73	.033	.943	2.644 2.796
영어공교육 투자는 적절함	2.66	.032	.922	2.596 2.724
수준별 영어교육 실시함	2.60	.031	.891	2.538 2.662
원어민 교사 수 만족함	2.59	.031	.881	2.528 2.652
방과 후 영어교육 만족함	2.46	.028	.795	2.404 2.516
영어사용 기회 부여 충분함	2.37	.031	.878	2.308 2.432

<그림 16> 학교영어교육과 관련된 인식 문항 값의 범위



학부모들의 학교영어교육과 관련된 인식 문항들의 평균 순위는 초등1학년에 영어도입 바람직(M=3.5) 문항이 가장 높았으며, 영어사용 기회 충분함

(M=2.37)이 가장 낮았다. 또, 평균값의 순위를 분석한 항목 값의 범위를 비교해보면, <그림 16>에서 보듯이 학부모들은 학교영어교육에 대하여 초등 1학년 영어도입, 영어교과 시수 증대가 바람직하다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우수 영어전담교사가 지도, 세 번째로는 TEE 실시함, 영어공교육을 위한 투자는 적절, 수준별 영어교육을 실시함, 원어민 교사 수에 만족함, 네 번째로 방과 후 영어교육 만족, 마지막으로 영어사용기회 부여 충분함의 순서로 학교영어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수준별 영어교육이 실시된다는 항목의 인식순위는 세 번째로, 수준별 맞춤 교육이 실시되는 영어사교육 환경을 우선으로 꼽고 있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고려하면, 이는 영어사교육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해석되어진다.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초등 1학년 영어 도입과 영어교과 시수 증대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영어사용 기회가 충분하다는 인식은 마지막 순위로 나타나 영어사용기회 부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4.2.3 취학 후 학부모의 자녀 영어사교육 결정요인

취학 후 자녀의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들이 응답한 각 인식요인의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영어사교육 비용²⁷⁾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부모의 각 인식요인 중 영어사교육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 영어사교육 비용 변화에 대한 유의한 예측을 위해 적합한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또 유의한 변수의 상관계수로 메타 분석을 실시하여,

27) 사교육 비용 지출을 사교육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하였다(김지경, 2004). 단, 추후 연구에서는 사교육 비용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교육 지표를 나타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각 변수가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측정하였다.

4.2.3.1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와 영어사교육 비용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와 관련된 학부모의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5>에 제시하였다. 일곱 개의 독립변수들로 영어사교육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학부모의 영어사교육 필요성 인식 등 네 개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그 외 특목중·고 입학 목적, 학교 영어만으로는 우수한 영어능력 달성 불가능, 자녀의 높은 영어학습 요구가 포함된 모형($F=17.373$, $p=.000$)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의 7.2%(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6.8%)를 설명하였다.

<표 105>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의 중다회귀분석($n=67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특목중·고 입학 목적	.162	.032	.190	5.014	.000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능력 부족	.150	.040	.141	3.738	.000
자녀영어학습 요구	.033	.016	.077	2.075	.038
상수	1.153	.176		6.564	.000

3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로 학부모의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 <표 106>에서 보듯이, 특목중·고 입학 목적의 효과크기는 .4,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한 영어능력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5, 자녀의 높은 영어학습 요구는 .6이었다. Cohen(1977)이 제시한 기준에서 볼 때,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이유와 관련된 학부모의 세 가지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6> 영어사교육 실시 이유에 관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상관계수	효과크기	<i>z</i>	N
특목중고 입학 목적	0.218	0.4476	0.2216	672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능력 부족	0.258	0.5341	0.264	672
자녀 영어학습 요구	0.269	0.5586	0.2758	672

4.2.3.2 취학 후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영어사교육 환경에 관련된 학부모의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7>과 같다.

<표 107>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67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영어전용환경	.262	.035	.288	7.484	.000
사교육교사 실력우수	.145	.038	.146	3.786	.000
상수	1.058	.131		8.080	.000

여섯 개의 독립변수로 영어사교육비를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수준별 맞춤교육 가능 등 네 개의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영어전용 환경과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한 실력이 포함된 모형($F=51.65$, $p=.000$)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영어사교육비 총 변화량의 13.4%(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3.1%)를 설명하고 있었다. 두 독립변수와 영어사교육 비용 사이의 상관계수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는 <표 108>에서 보듯이, 영어전용 환경 요인은 .7,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한 실력 요인은 .8로서 비교적 영어사교육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8> 영어사교육 환경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상관계수	효과크기	z	N
영어전용환경	0.339	0.7207	0.353	672
사교육교사 실력 우수	0.366	0.7866	0.3838	672

4.2.3.3 취학 후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영어사교육 효과와 관련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9>에 제시하였다.

<표 109>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67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영어인증시험 대비가능	.253	.033	.286	7.730	.000
상수	1.495	.107		13.987	.000

세 개의 독립변수로 영어사교육 비용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자녀 영어능력 향상 등 2개의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영어인증시험 대비가능이 포함된 모형($F=59.749$, $p=.000$)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의 8.2%(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8.1%)를 설명하였다.

영어인증시험 대비가능과 영어사교육 비용 사이의 상관계수로 독립변수가 영어사교육비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는 <표 110>과 같다. 영어인증시험 대비가능의 효과크기는 .6으로서 영어사교육비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0> 영어사교육 효과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상관계수	효과크기	z	N
영어인증시험 대비가능	0.286	0.5969	0.2942	672

4.2.3.4 취학 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취학 후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에 관련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1>에 제시하였다. 여덟 개의 독립변수로 영어사교육비를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영어사교육비 부담 등 다섯 개의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 투자 부족, 우수한 사교육 기관 선택, 다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이 포함된 모형($F=19.59$, $p=.000$)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의 8.1%(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7.7%)를 설명하였

다.

<표 111>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67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	.029	.039	.237	5.301	.000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비 투자 부족	-.189	.036	-.231	-5.268	.000
다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	.107	.035	.138	3.085	.002
상수	1.996	.128		15.605	.000

세 독립변수들의 상관계수로 학부모의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 <표 112>에서 보듯이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은 .4,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 투자 부족은 .5, 다수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은 .6으로서 영어사교육 비용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상관계수	효과크기	z	N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	0.198	0.404	0.2007	672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비 투자 부족	0.26	0.5385	0.2661	672
다수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	0.284	0.5924	0.292	672

4.2.3.5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관한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3>에 제시하였다.

<표 113>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67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	-.152	.038	-.165	-3.991	.000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제공	-.109	.037	-.126	-2.947	.003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	.103	.036	.119	2.871	.004
상수	2.869	.158		18.169	.000

열세 개의 독립변수로 영어사교육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수준별 영어공교육 제공 등 10개의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 등 세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F=11.73$, $p=.000$)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의 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6%)를 설명하였다. <표 113>에서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과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 요인의 표준화 계수 값은 음의 값(-)을 표시하고 있어, 부모들이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하여 만족하고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 될수록 영어사교육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의한 세 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로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 <표 114>에서 보듯이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은 .3,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은 .4,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은 .5로서 영어사교육 비용에 중간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상관계수	효과크기	z	N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	0.178	0.3618	0.1799	672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제공	0.196	0.3998	0.1986	672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	0.224	0.4579	0.2279	672

4.2.3.6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분산분석표는 <표 115>에 제시하였다. 아홉 개의 독립변수로 영어사교육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필요한 분야의 영어학습 중요성 강조 등 일곱 개의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특목중고 진학을 위한 영어사교육 필수와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이 포함된 모형($F=13.32, p=.000$)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영어사교육비 총 변화량의 3.8% (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5%)를 설명하였다. <표 115>에서 영어사교육이 지나친 과열 현상이라고 인식할 경우 영어사교육 비용이 감소하고 있어, 바람직한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15>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사회구조적 측면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67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특목중고 진학위한 영어사교육 필수	.195	.038	.220	5.160	.000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	-.094	.042	-.095	-2.234	.026
상수	1.987	.149		13.343	.000

<표 116 > 사회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 요인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상관계수	효과크기	z	N
특목중·고 진학 위한 영어사교육 필수	0.176	0.3567	0.1779	672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	0.196	0.3998	0.1986	672

유의한 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로 학부모의 인식이 영어사교육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 <표 116>에서 보듯이 특목중·고 진학 위한 영어사교육 필수와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의 효과크기는 각각 .4로서 영어사교육비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2.3.7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과 영어사교육 비용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7>과 같다.

<표 117>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학교영어교육 인식의 중다회귀분석(n=67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방과 후 영어교육 만족	-.190	.049	-.164	-3.907	.000
TEE 실시	.116	.037	.123	3.144	.002
수준별 영어교육실시 만족	-.087	.043	-.088	-2.033	.042
상수	2.643	.143		18.471	.000

아홉 개의 독립변수로 영어사교육 비용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초등 1학년부터 영어도입 바람직 등 여섯 개의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 TEE 실시 에 대한 만족, 수준별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만족이 포함된 모형($F=11.81$, $p=.000$)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영어사교육비용 총 변화량의 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6%)를 설명하였다. <표 117>에서 보듯이, 학부모들은 방과 후 영어교육에 만족하고 학교에서 수준별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생각할수록 영어사교육 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의한 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로 학부모의 인식이 영어사교육비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검정한 결과는 <표 118>에서 보듯이 방과 후 영어교육 만족과 TEE 실시에 대한 만족의 효과크기는 각각 .4, 그리고 수준별 학교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만족은 .5로서 영어사교육 비용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8>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r(상관계수)	d(효과크기)	z	N
방과 후 영어교육 만족	0.184	0.3744	0.1861	672
TEE 실시	0.211	0.4317	0.2142	672
수준별 영어교육 실시 만족	0.224	0.4597	0.2279	672

4.2.3.8 효과크기로 본 취학 후 영어사교육 비용을 결정하는 인식요인 순위

앞에서 살펴봤듯이, 영어사교육 비용 결정을 예측할 수 있는 학부모 인식 요인은 <표 119>에서 보듯이 모두 17개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 영어사교육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식 요인들은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함

실력(.8)과 영어전용 환경(.7)이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인은 영어능력이 우수한 교사와 영어로만 학습 가능한 환경을 위한 것으로, 학교영어교육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사교육 비용에 중간 크기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인증 시험 대비 가능(.6), 다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6), 자녀의 높은 영어학습 욕구(.6),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 투자 부족(.5),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 능력 달성 불가능(.5),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5), 수준별 학교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만족(.5), 특목중고 입학 목적(.4), TEE 실시(.4),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4),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4),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4),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4),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4), 특목중고 진학위한 영어사교육 필수(.4)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9> 영어사교육 비용 결정 인식요인들의 효과크기 순위

인식 항목	상관계수	효과크기	순위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한 실력	0.366	0.79	1
사교육기관의 영어전용 환경	0.339	0.72	2
인증시험 대비 가능	0.286	0.60	3
다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	0.284	0.59	4
자녀의 높은 영어학습 욕구	0.269	0.56	5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 투자 부족	0.260	0.54	6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 능력 달성 불가능	0.258	0.53	7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	0.224	0.46	8
수준별 학교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만족	0.224	0.46	8
특목중고 입학 목적	0.218	0.45	10
TEE 실시	0.211	0.43	11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	0.198	0.40	12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	0.196	0.40	12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	0.184	0.37	14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	0.184	0.37	14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	0.178	0.36	16
특목중고 진학 위한 영어사교육 필수	0.176	0.36	17

취학 후 학부모들이 자녀의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인식요인 분석 결과, 취학 후 영어사교육 비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열일곱 개의 인식요인은 <표 120>과 같다.

<표 120>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학부모 인식 요인

인식 항목	영어사교육 비용 변화량(%)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한 실력	13.4
사교육기관의 영어전용 환경	13.4
인증시험 대비 가능	8.2
다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	8.1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 투자 부족	8.1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	8.1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 능력 달성 불가능	7.2
자녀의 높은 영어학습 욕구	7.2
특목중·고 입학 목적	7.2
수준별 학교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만족	5.0
TEE 실시	5.0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	5.0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	5.0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	5.0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	5.0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	3.8
특목중·고 진학 위한 영어사교육 필수	3.8

자녀 영어사교육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인식 요인들은 모두 17개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사교육 기관의 영어전용환경과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한 실력 요인은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다(13.4%). 또, 열일곱 개 항목의 유의한 인식요인의 효과크기 순위를

구해 본 결과,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한 실력(.8)과 사교육 기관의 영어전용학습 환경(.7) 요인이 영어사교육 비용 결정에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학부모는 자녀의 영어사교육을 결정할 때, 우수한 영어능력을 가진 교사와 영어로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학부모 인식은 자녀 학년이 진급함에 따라 보다 심화된 영어전용환경 제공을 위해 영어권 국가 조기유학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2005년 여름방학 기간 중 30일 이상 어학연수 등 영어교육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초.중.고교생 7천597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2,453명(교육부국정감사자료, 2005)에 달해, 학부모들은 영어교육 환경을 영어능력향상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5.1에서의 취학 전 연구 결과 역시, ‘영어전용환경’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큰 효과크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원어민과 동일 영어로 학습하는 영어유치원이라는 영어학습 사교육 환경을 낳았고, 취학 후에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영어권 국가 조기유학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병민(2002)은 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외국어 교육환경에의 노출시간이며, 10년에 걸쳐 700시간 정도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점적 주입’(drip-feed)식 영어교육 체계는 어떤 교수 방법론을 도입해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서 불어를 배우는 캐나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최소한 5,000시간 동안 불어에 노출되고 있다(Ontario-Carleton Catholic School Board, 2002)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시수 증대의 필요성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영어상용화(전효찬 외, 2006), 영어몰입교육 전면 실시(남경숙, 2010), 영어마을 조성 등의 영어사용 공간과 기회 확대를 위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영어정책 등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영어사교육 증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영어사교육 결정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인식 중 인증시험 대비 가능, 다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 능력 달성이 불가능, 자녀의 높은 영어학습 욕구와 특목중·고 입학 목적의 요인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특목중·고 입학에서 요구되는 영어인증 시험을 위하여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학교영어교육 성취수준에서는 원하는 자녀 영어능력 향상이 어려워 영어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음의 학부모 면담 자료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자녀 영어능력의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ABC를 못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도심지 C초등)는 ABC 모르는 애가 없으니 수준별 교육을 할 때 ABC부터 초등6학년까지 토익 800레벨까지 짜여야겠죠. 토익 800 교육과정은 불가능하겠죠? 다른 과목보다 특히 영어는 레벨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만족시키지는 못해도 리딩이 토익 500~600점 정도가 되면 대만족이죠. 어차피 더 원하는 사람은 더 잘해야 하니까요.(중략)

그래서 꼭 영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에서 영어 성적만 (중학교 같은 경우) 잘 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중략)

그냥 survival(학교영어는) 영어예요. 생활영어만 해가지고는 학습(academic) 영어가 안 되는 거죠.

(학부모 면담자 PMA. 2009.02.20)

이처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성취 기대 수준은 개인차가 매우 커서, 보다 많은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준별 맞춤 영어교육의 정착이 필요하다 하겠다. 초등영어교육이 나름대로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이길영, 2002), 영어교육 이해 당사자인 국가, 사회, 개인은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어(Spolsky, 2002), 각자의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영어만 하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분위기를 선동,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의 학부모 면담 자료에는 이러한 과열된 영어교육 열기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나타나있다.

영어교육은 단순히 영어(언어)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학문적으로 영어를 접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하면(영어가) 되는 겁니다. 국가나 사회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영어능력이)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예요. 우리가 국어를 하기위해 이렇게 날 땀다면 우습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어를 언어로서 조금 가볍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어를 잘하는 영어권 나라들이 전부 강대국이고 국민은 행복지수가 높은가? 사회보장이 든든하고,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요.

(학부모 면담자 LMJ, 2009.02.18)

그 외 학부모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중간크기의 효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수준별 학교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만족과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 TEE 실시,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 특목중·고 진학을 위한 영어사교육 필수 등이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부모들이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초등영어교육체계 개선이라는 영어교육정책적인 요인들과 함께 특목중·고 진학, 대학입시와 취업 승진이라는 장기적인 사회체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인식

영어사교육에 대한 초등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과제 3], 초등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 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적 요인의 수와 요인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또, 각 요인의 항목을 합산하여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요인별 영어사교육 결정 인식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4.3.1 학생들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인식 분석

학생들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그만 둘 조건을 묻는 문항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4.3.1.1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학생의 인식 순위 분석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이유에 관한 변수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21>에서 보듯이 표본의 적정성을 검정하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736이고, 변인들의 상관성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676.341(df=55, p=.000)로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5.235%가 설명되고 있으며, .3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영어사교육 필요성, 두

번째 요인은 공교육과 차별화된 영어사교육, 세 번째 요인은 영어학습 의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21>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학습자 인식요인 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분
	영어사교육 필요성	공교육과 차별화 된 영어사교육	영어학습 의지	
영어능력 향상	.715	.035	-.355	.639
수준에 적합	.694	.002	.161	.508
미래 대비	.636	.125	-.350	.542
읽기, 쓰기 교육 필요	.630	.215	.099	.453
새로운 내용 학습	.539	.335	.028	.403
원어민 수업	.041	.765	-.028	.587
재미있는 수업	.117	.708	-.044	.517
쉬운 학교 영어	.225	.660	.144	.507
학부모님 강요	-.121	.122	.758	.604
영어학습 욕구	.183	.396	-.645	.606
불안감	.164	.097	.596	.391
고유값	2.926	1.629	1.203	
설명분산	26.599	14.813	10.933	
누적분산	26.599	41.412	52.345	
문항수	5	3	3	11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Barlett 구형성 검정			
	.736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676.341	55	.000

**주성분분석법과 직교회전에 의한 분석 결과

추출된 세 개의 요인별로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요인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표 122>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영어사교육의 필요성 요인을 가장 우선으로 들었다. 다음으로 공교육과 차별화된 영어사교육, 마지

막으로 영어학습 의지 요인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7> 참조)

<표 122>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의 학습자 인식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n=362$)

요인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사교육 필요성	2.5022	0.2364	0.44986	2.45492 2.54948
공교육과 차별화된 영어사교육	1.9052	0.03052	0.58072	1.84416 1.96624
영어학습 의지	1.8122	0.02022	0.38478	1.77176 1.85264

<그림 17>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의 학습자 인식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4.3.1.2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학생의 인식 분석

현재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의 측정 변수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23>에서 보듯이 표본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KMO 값은 .828이고, 변인들의 상관이 0인지를 검증하는 Barlett의 구형성 검증값은 715.059(df=45, p=.000)로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표 123>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학습자 인식요인 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공통분
	영어공교육 환경 개선	개인적 여건 변화	
학교영어시간 증가	.764	-.111	.596
재미있는 학교영어수업	.704	.217	.543
학교의 원어민 수업 실시	.693	.074	.485
사교육과 같은 학교영어	.632	.223	.449
방과 후 영어교육 무료	.611	.272	.448
내 수준에 맞는 학교교육	.595	.379	.498
영어사교육 흥미 상실	.116	.669	.461
영어실력향상 없을 때	.125	.660	.452
부모님의 경제적 곤란	.153	.626	.415
내 미래에 영어 불필요	.091	.551	.312
고유값	3.375	1.284	
설명분산	33.747	12.839	
누적분산	33.747	46.586	
문항수	6	4	10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Bar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828	715.059	45
			.000

**주성분분석법과 직교회전에 의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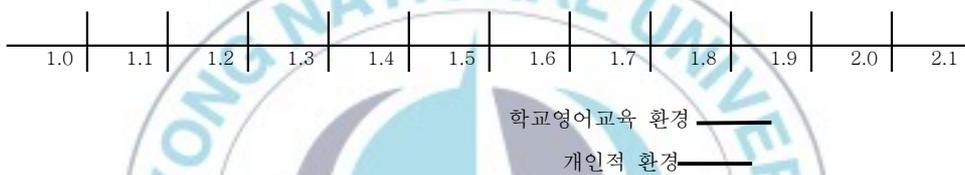
두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46.6%가 설명되고 있으며, .3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영어공교육 환경 개선, 두 번째 요인은 개인적 여건 변화로 분류할 수 있다. 추출된 두 개 요인의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요인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영어사교육을 그만 둘 조건으로 영어공교육 환경 개선 요

인과 개인적 여건 변화 요인은 순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8> 참조).

<표 124>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n=362)

요인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공교육 환경 개선	1.8195	0.02869	0.54594	1.76212 1.87688
개인적 여건 변화	1.7859	0.02801	0.53294	1.72988 1.84192

<그림 18>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4.3.2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교사 인식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학생들의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반응을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4.3.2.1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의 변수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25>에서 보듯이 표본의 적정성을 검정하는 KMO 값은 .767이고, 변인들의 상관성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600.714(df=120, p=.000)로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다섯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67.4%가 설명되고 있으며, 3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차별화된 영어환경 기대, 두 번째 요인은 수요자 만족 사교육 서비스, 세 번째 요인은 교육과정 우수성, 네 번째 요인은 충동적 사교육 여부 결정, 다섯 번째 요인은 학생의 영어학습 의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25>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교사인식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차별화 된 영어환경 기대	요인2 수요자 만족 교육 서비스	요인3 교육 과정 우수성	요인4 충동적 사교육 여부 결정	요인5 학생의 영어 학습 의지	공통 분
개인 및 소그룹 학습 형태	.855	.050	.128	.180	.000	.781
원어민 영어학습 가능	.847	.095	.089	-.78e-05	.069	.739
사교육기관의 영어전용 환경	.789	.224	.164	.040	.058	.704
특목중고 진학 대비 가능	.560	.329	-.066	.110	-.396	.595
더 많은 영어학습 기회 및 학습량	.525	.460	-.143	-.334	.058	.622
철저한 영어교육상담 서비스	.249	.822	.110	.121	-.043	.767
접수화 된 영어능력 확인 가능	.079	.816	.271	-.034	-.039	.748
수준별 맞춤교육의 실시	.429	.460	.400	-.158	.313	.679
다양한 구성의 학습수준과 내용	.133	.204	.760	-.028	-.055	.640
사교육교사 실력 우수	.132	.260	.631	-.197	.018	.602
학부모가 영어교육 필요성인식	.404	.380	-.540	.146	.041	.623
영어교육 보도와 광고	.197	.020	-.050	.855	.108	.785
학교영어로는 우수능력 불가능	.382	.276	.175	-.517	.288	.603
학생의 영어학습 욕구	.184	.174	-.103	.213	.842	.828
주변 영어열기로 인한 불안감	.162	.196	-.189	.379	-.491	.486
학교영어교육 불신	.028	.230	.348	.409	-.486	.578
고유값	3.435	2.387	1.789	1.614	1.555	
설명분산	21.467	14.919	11.179	10.091	9.717	
누적분산	21.467	36.385	47.565	57.655	67.372	
문항수	5	3	3	2	3	16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Barlett 구형성 검정			
.767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600.714	12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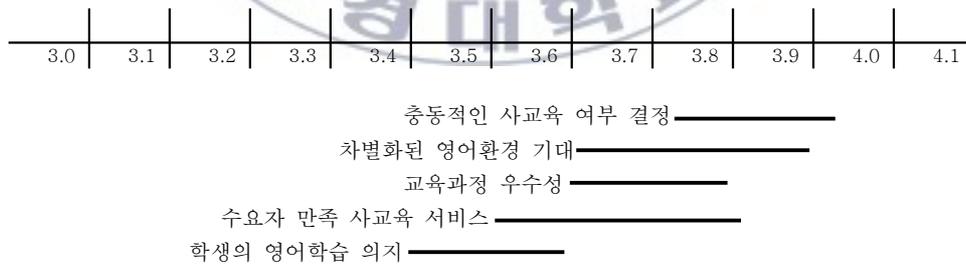
**주성분분석법과 직교회전에 의한 분석 결과

<표 126>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요인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충동적 사교육 여부 결정	3.8480	0.04916	0.49647	3.74968 ~ 3.94632
차별화된 영어환경 기대	3.7784	0.06529	0.65938	3.64782 ~ 3.90898
교육과정 우수성	3.6732	0.05151	0.52018	3.57018 ~ 3.77622
수요자 만족 사교육 서비스	3.6438	0.07048	0.71177	3.50284 ~ 3.78476
학생의 영어학습 의지	3.4837	0.04421	0.44654	3.39528 ~ 3.57212

추출된 다섯 개의 영어사교육 이유 요인들을 합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요인별 통계적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6>과 같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하는 이유로 학부모의 영어사교육 의지와 차별화된 영어능력 기대, 영어교육 환경, 수요자 만족 사교육 서비스 요인을 가장 먼저 꼽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학생의 영어사교육 의지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19>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4.3.2.2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사인식 순위 분석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변수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127>에서 보듯이 표본의 적정성을 검정하는 KMO 값은 .672이고, 변인들의 상관성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565.542(df=120, p=.000)로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표 127>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사인식의 요인 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분
	영어 교육 정책 개선	영어 시험 반영 여부	진학 및 입 시 제 도 및 제 고	영어 교육 지원 확대	영어 교사	
수준별 맞춤 영어공교육	.795	.035	-.018	.189	-.224	.720
학교내 영어사용 환경마련	.763	.061	.011	.078	.254	.656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제공	.668	.136	.158	.147	.240	.569
원어민이 하는 영어몰입교육	.622	.342	-.075	-.296	-.158	.622
사교육 수준의 학교영어교육 제공	.594	.095	.250	.096	-.223	.483
영어 시수 증가	.513	.225	-.444	.362	-.299	.732
국가영어능력인증제 실시	.320	.806	-.149	.084	-.006	.781
특목고국가인증점수 대체	.106	.770	.123	.134	.177	.669
취업과 승진 시 영어능력반영 감소	-.004	.631	.507	.045	-.303	.720
학교영어로 입시해결 가능	.039	.106	.740	.145	.124	.597
중·고 내신중요도 감소	.329	-.101	.655	-.084	-.143	.575
대입에 영어능력 반영 감소	-.094	.491	.583	.159	-.325	.748
학급인원 20명 내외 감축	.213	.048	-.041	.835	-.078	.752
효율적 EBS교육방송제공	-.069	.248	.394	.590	.216	.617
단위학교 영어교육 자율권 부여	.365	.422	.097	.437	.010	.511
전담영어교사 인증제 실시	-.029	.031	-.044	.025	.827	.688
고유값	3.08	2.35	2.07	1.61	1.34	
설명분산	19.25	14.66	12.93	10.05	8.36	
누적분산	19.25	33.91	46.84	56.89	65.25	
문항수	6	3	3	3	1	16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672		Bar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565.542	12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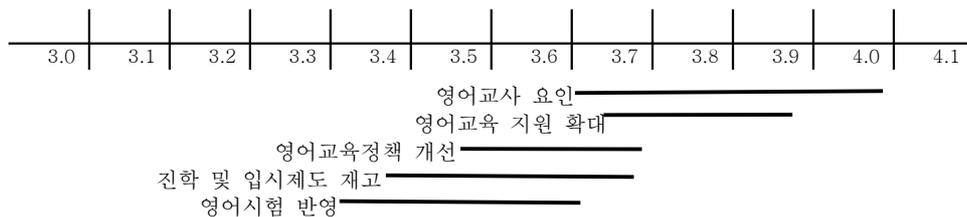
**주성분분석법과 직교회전에 의한 분석 결과

다섯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67.4%가 설명되고 있으며, 3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교육정책 개선, 두 번째로 영어 시험 반영 여부, 세 번째는 진학 및 입시제도 재고, 네 번째는 영어교육 지원 확대, 다섯 번째 요인은 영어 교사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추출된 다섯 개의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요인의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요인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8>과 같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영어교사 요인과 영어교육 지원 확대 요인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영어교육 정책 개선과 진학 및 입시제도 재고, 그리고 영어시험 반영 여부요인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20> 참조).

<표 128>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요인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교사	3.8039	0.09351	0.94439	3.61688 ~ 3.99092
영어교육 지원 확대	3.7712	0.06073	0.61335	3.64974 ~ 3.89266
영어교육 정책 개선	3.5425	0.05964	0.60238	3.42322 ~ 3.66178
진학 및 입시제도 재고	3.5229	0.06786	0.68540	3.38718 ~ 3.65862
영어 시험 반영	3.4673	0.07420	0.74942	3.3189 ~ 3.6157

<그림 20>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그러나 <그림 20>에서 보듯이 영어교육 정책 개선과 진학 및 입시제도 재고, 그리고 영어시험 반영 여부 요인의 순위가 구별되지 않아, 영어사교육이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영어사교육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관관계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4.3.3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인식 분석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영어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 문항들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4.3.3.1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인식 분석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129>에서 보듯이 표본의 적정성을 검정하는 KMO 값은 .685이고, Bar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327.163(df=120, p=.000)로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추출된 다섯 개의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58.5%를 설명하고 있다. .3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는 관리형 영어사교육 요인, 두 번째, 영어교육 환경, 세 번째, 영어공교육 불신, 네 번째, 영어능력 신장 욕구, 다섯 번째는 학생의 학습의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추출된 다섯 개의 영어사교육 이유 요인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요인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0>와 같다.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관리형 영어사교육과 영어공교육 불신, 영어능력 신장 욕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생의 학습 의지와 영어교육 환경 요인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21> 참조).

<표 129>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전문가 인식요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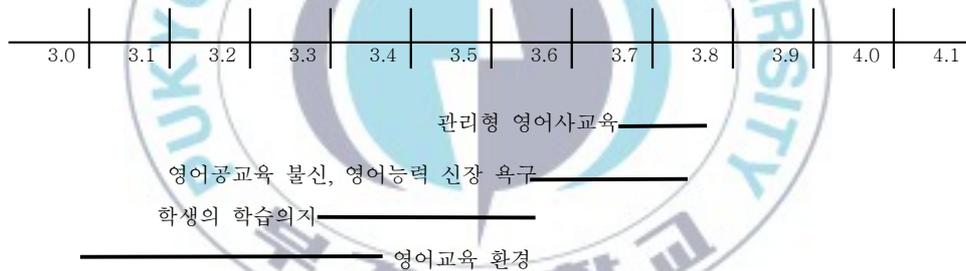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분
	관리형 영어 사교육	영어 교육 환경	영 어 공 교 육 불 신	영어능력 신장 욕구	학생의 학습 의지	
수준별 맞춤형 영어 교육	.775	-.152	-.142	.218	-.026	.693
개인, 소그룹 학습 규모	.673	.233	.032	-.083	-.232	.568
주기적 영어교육 상담	.624	.326	.109	-.132	.257	.591
영어능력 향상 확인가능	.562	.149	.038	-.065	.483	.577
영어권 국가 교재 사용	.047	.768	.099	-.030	.093	.611
영어전용 환경	.232	.714	.230	.068	-.045	.623
원어민 교사와 학습	.068	.646	.016	.325	.316	.628
학부모의 학교영어교육 불신	-.014	.061	.768	.063	.225	.648
다양한 학습내용과 수준	.140	.410	.603	.029	-.192	.589
학교교사보다 실력우수	.210	.227	.577	.122	.315	.543
특목중·고 위한 공인영어접 수 획득 가능	-.136	.357	-.457	.373	.303	.586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	.364	.101	-.117	.702	-.113	.662
차별화 된 학원 광고	-.036	.009	.247	.680	-.053	.528
학부모 영어지도능력 부족	-.124	.059	-.020	.616	.108	.411
학생의 높은 영어학습 욕구	-.131	.039	.053	.034	.713	.531
학교와 차별화 된 교육과정	.375	.155	.304	-.042	.562	.575
고유값	2.21	2.114	1.763	1.685	1.595	
설명분산	13.80	13.211	11.018	10.529	9.966	
누적분산	13.80	27.013	38.031	48.561	58.527	
문항수	4	3	3	4	2	16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685					
	Bar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327.163		120	.000		

**주성분분석법과 직교회전에 의한 분석 결과

<표 130>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요인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관리형 영어사교육	3.7603	.05321	.52405	3.65388 3.79286
영어공교육 불신	3.6667	.06023	.59317	3.54624 3.78716
영어능력 신장	3.6521	.05379	.52979	3.54452 3.75968
학생의 학습의지	3.4021	.05982	.58913	3.28246 3.52174
영어교육 환경	3.2371	.07816	.76974	3.08078 3.39342

<그림 21>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4.3.3.2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에 대한 영어사교육 전문가 인식의 우선순위 분석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에 대한 변수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31>에서 보듯이 표본의 적정성을 검정하는 KMO 값은 .719이고, Bar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572.951(df=91, p=.000)로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네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65.6%가 설명되고 있으며, .3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째 공교육 제공 요인, 둘째 영어과목 중요도 감소 요인, 셋째 국가 인증 영어시험 요인, 넷째 교육여건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131>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에 대한 전문가 인식요인 분석 결과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분
	수요자 중심 영어교육 제공	영어과목 중요도 감소	영어능력 인증 방법 개선	영어사교육이 필요한 여건의 변화	
수준별 맞춤 학교교육	.857	-.093	.013	.132	.761
사교육수준 학교교육제공	.741	.356	.085	.189	.718
방과 후 무상교육	.568	.314	.126	.249	.499
효율적 EBS 교육방송	.541	.387	.444	.186	.674
취업승진시 영어반영 낮음	.221	.888	.009	-.052	.840
대입 영어능력 반영낮음	-.89e-05	.869	.255	-.078	.825
학교영어로 입시해결	.475	.598	.125	.151	.621
특목고 진학 시 국가영어인증점수 반영	-.002	.075	.901	.077	.824
국가영어능력 인증제 실시	.090	.126	.841	.144	.753
학교 영어시수 주 6시간 확대	.516	.159	.554	-.104	.600
학생흥미 저하	-.080	.022	.032	.824	.687
영어사교육 비용 가계부담	.209	-.120	.043	.618	.442
한국인 교사만 지도	.186	-.001	.223	.596	.439
내신중요도 낮아질 경우	.388	.228	-.058	.537	.494
고유값	2.683	2.397	2.184	1.915	
설명분산	19.164	17.121	15.599	13.676	
누적분산	19.164	36.285	51.884	65.560	
문항수	6	3	3	2	14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Barlett 구형성 검정				
.719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572.951	91	.000		

**주성분분석법과 직교회전에 의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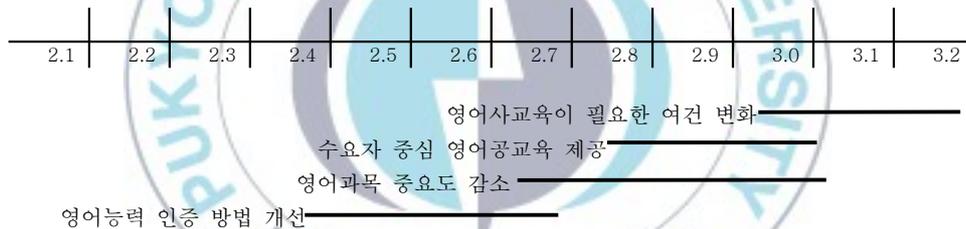
추출된 네 개의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에 대한 요인의 문항들을 합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95%(평균값±표준오차×2) 범위에서 요인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2>와 같다.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으로 영어사교육이 필요한 여건의

변화 요인을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 영어공교육 제공과 영어과목 중요도 감소 요인, 마지막으로 영어능력 인증방법 개선 요인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22> 참조).

<표 132>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요인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오차×2
영어사교육이 필요한 여건의 변화	3.0438	.06120	.60274	2.9214 3.1662
수요자 중심 영어공교육 제공	2.8918	.07942	.78221	2.7330 3.0506
영어과목 중요도 감소	2.8144	.10035	.98832	2.6137 3.0151
영어능력 인증방법 개선	2.5120	.07046	.69399	2.3711 2.6529

<그림 22>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이상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보았다.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관한 인식을 요인별 우선순위로 나열해보면 <표 133>과 같다. 영어사교육 결정은 학생의 자발적인 영어사교육 의지보다는 대체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차별화 된 영어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영어사교육 이유는 영어능력 향상, 미래 대비, 읽기 쓰기 교육의 필요, 새로운 사교육 내용 학습, 내 수준에 적합 등의 문항이 설명하고 있는 영어사교육의 필요성 요인이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부모의 의지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의 기대치를 심층 면담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과제이다. 또, 읽기와 쓰기 학습을 위해 영어사교육을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영어교육과정보다 수준 높은 영어사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초등영어교육에서 문자 도입 시기에 대한 연구(김중식, 1994; 이화자, 1998; 정동빈, 2000)로 영어를 시작하는 3학년부터 문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취학 전부터 영어문자교육을 받는 현실에서, 학생의 개인 수준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초보적이고 일률적인 문자 교육은 영어사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학교영어교육의 취약점이라 생각된다.

지금 우리 1학년 동생도 지난 2009년 여름을 지나면서 읽고 쓰고 해서 레벨(반)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학습하는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1학년의 정신수준으로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예를 들면 permission, admire 이런 걸 시험을 쳐야 되는 겁니다. (오일정제) refine 같은 거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1학년이 해?’ 이런 생각이 들만큼. Donation 같은 것도 엄마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애들이(중략)
(학부모 면담자 PMA. 2009.02.20)

교사와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은 영어사교육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우선 순위로 생각하였다. 이는 매우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결과인데, 실제 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 영어교과목은 교과 시수 면에서 국어나 수학 같은 중요 과목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예능과목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어전담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 담임교사와는 달리 주기적 영어교육 상담과 자녀의 영어능력 향상 확인이 어렵다. 이와 함께 담임교사 또한, 영어 우수아와 부진아 파악 및 추후지도

는 거의 불가능한 점은 영어공교육 불신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 능력 파악이나 영어교육 상담이 전무한 영어공교육보다는 영어사교육을 더 믿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초등영어사교육은 학생들의 교육 결정권자인 학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사실 학원에서 보면 학교보다 더 자주 학부모하고 공부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하는 모임도 집중적으로 갖는 편이에요.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애들 학습상태 상담하지 뭐 영어 간담회 이런 거 있다고 자주 오라고 하지 하니까 영어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정보를 알게 되고 또 그런 기류에 따라 가게 되고 또 옆에 정보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또 학원하고 관련된 사람이니까 학부모들은 아, 이게 추세고 맞는 교육방향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중략)

(학부모 면담자 LKS, 2009.02.18)

<표 133>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가 인식하는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요인의 인식 순위		
	최우선 요인	2순위 요인	3순위 요인
학생	·영어사교육의 필요성	·공교육과 차별화된 영어사교육 수준	·영어학습 의지
교사	·충동적 사교육 여부 결정 ·차별화 된 영어환경 기대 ·교육과정 우수성 ·수요자 만족 사교육 서비스	·학생의 영어학습 의지	
영어사교육 전문가	·관리형 영어사교육 ·영어공교육 불신 ·영어능력 신장 욕구	·학생의 학습 의지 ·영어교육 환경	·영어사용 환경
학부모	·부모의 영어사교육 필요성 인식	·학교 영어만으로는 우수한 능력 부족	·부재 ·자녀 영어학습 욕구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여건에 관한 인식을 요인별 우선순위로 나열해보면 <표 134>와 같다.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중단 할 조건으로 파악된 영어공교육 환경 개선 요인과 개인적 여건 변화 요인의 우선순위는 구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어시수 증가, 재미있는 학교 수업, 원어민 수업, 사교육 수준의 학교영어, 방과 후 무료 영어교육, 내 수준에 맞는 학교교육 등이 포함된 영어공교육 환경 개선 요인이 사교육 흥미 상실, 실력향상 부진, 부모님 경제적 곤란, 내 미래에 영어 불필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적 여건 변화 요인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학생들은 학교영어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수준별 영어학습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학부모 인식 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수준별 영어교육 실시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134> 학생, 교사, 영어사교육 전문가가 인식하는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여건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여건 요인의 인식 순위			
	최우선 요인	2순위 요인	3순위 요인
학생	·영어공교육 환경 개선 ·개인적 여건 변화		
교사	·영어교사 ·영어교육 지원 확대	·영어교육 정책 개선 ·진학 및 입시제도 재고 ·영어시험 반영 여부	
영어사교육 전문가	·영어사교육이 필요한 여건 변화	·수요자 중심 영어공교육 제공 ·영어과목 중요도 감소	·영어능력 인증방법 개선

교사들은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영어교사 요인과 영어교육 지원 확대 요인을 가장 먼저 지적하였다. 교사 스스로도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를 교사의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도 영어교사의 수업이 변화해야 교육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명제 하에 영어교사 재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인적 자원부(2006)는 16개 시·도청과 협력하여 2010년 이후부터 단계별로 모든 교사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1,000명씩, 2015년까지 총 10,000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집중 심화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영어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연수효과에 대한 참여 교사들의 긍정적 인식(김우형, 2007; 민찬규, 2006; 박성수, 2004)과는 달리 학급 규모, 수업보조자료, 행정적 지원, 교사의 영어 능력 등의 이유로 교실 수업 변화 면에서 효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용오·강용구·송해성, 2008; 박봉이, 2006). 본 연구에서 교사들도 20명 내외의 학급 인원, 효율적 EBS교육 방송, 단위학교 영어교육 자율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영어교육 지원 확대 요인을 함께 지적하고 있었다. 우수 영어교사 양성과 함께 교사 자질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인수 인원 감축(정규태·장경숙, 2009) 등의 영어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에 대해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은 영어사교육이 필요한 여건 변화 요인을 우선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영어사교육 교육과정수준의 수준별 영어공교육 제공이었으며, 영어사교육 환경인식의 분석에서 수준별 맞춤교육, 다양한 교육 내용과 수준의 사교육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학부모들은 영어사교육이 필요한 여건의 변

화로 학부모나 학생의 영어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의 인식분석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어사교육은 관리형 영어교육 서비스 전략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와 불안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영어사교육 기관들이 영어교육 수요자를 바라보는 입장과 영어만을 중요시할 수 없는 초등교육 현장과의 괴리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초등 현장에서 답임을 하며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영어 외에 6~7개의 교과목과 학생 생활지도,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영어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중호, 2009). 한편,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영어교육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어머니들도 학교에 뭔가 건의 해 볼려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에 만 올인(all in)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주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관심도 요구되구요. 이 학교(C초등학교)처럼 영어 시범, 연구학교라고 합니까? 아니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다른 미술이나 음악, 실과처럼 예능 교과 취급되죠.

(학부모 면담자, PMA, 2009.02.20)

즉,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공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동시에 학교가 영어에 더 깊은 교육적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에는 영어가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객관적인 평가로 영어학업성취도를 측정하여 영어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측면은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학부모의 입장과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5.1 연구 과제별 결론

5.1.1 연구 과제 1의 결과

[연구 과제 1]

학부모의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을 알아본다.

5.1.1.1 초등학교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취학 전 자녀의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참여 학부모의 절반이 자녀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에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들은 영어사교육을 6세(66.6%)에 주로 시작하였으며, 4세 미만(5.3%)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을 1년 이상 받은 경우는 89.7%(358명)이며, 52.1%의 학부모가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되어, 취학 전부터 영어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과 영어노출량의 격차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의 48.6%가 한 달 10만원 이상을 영어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월 40만원 이상 지출(4.5%)도 있어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이 매우 높았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영어사교육 방법은 영어학습지(42.1%)였으며, 다음으로 영어전문학원(21.1%)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사교육 실태의 차이를 학교급지, 부모소득, 부모 학력, 자녀 학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를 제외한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와 기간,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학교급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중심지(가급지)가 농어촌지역(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 여부와 기간, 주당 영어학습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부모 학력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간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와 영어사교육 기간 등 영어교육 기회의 평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학부모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소득자 학부모들은 고액의 영어사교육 비용을 들여 차별화 된 질 높은 영어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학 전 영어사교육 실시는 학년이 낮을수록 실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어사교육 시작 시기와 기간, 주당 학습 시간, 한 달 비용은 자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어,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부모들의 취학 전 영어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5.1.1.2 초등학교 취학 전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영어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또 영어사교육 환경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춘 교사에 의해 소수 그룹 구성의 수준별 맞춤교육이며,

취학 전 영어사교육은 자녀의 영어에 대한 흥미유발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영어사용 환경의 부족과 학부모의 영어 지도능력 부족, 영어사교육 비용의 경제적 부담 등을 취학 전 자녀 영어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취학 전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영어조기교육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국어능력 저하 또한 우려하고 있었다. 그 다음 이유로는 영어사교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신뢰 할 수 없는 영어사교육 환경을 꼽고 있어, 취학 전부터 부모들의 영어사교육 비용의 부담이 드러났다. 그 외, 영어사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의 영어능력 부족과 가정에서 영어지도를 할 수 없는 부모의 영어능력 부족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였다.

5.1.1.3 초등학교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은 무엇인가?

학부모가 취학 전 자녀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은 모두 열 개로 밝혀졌다. 열 개 요인 중 영어전용 환경(9.8%)은 영어사교육 비용을 예측하는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9.6%),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과 주변 영어열기에 따른 긴장,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 요인은 5.5%를 설명하고 있었다. 5%로 나타난 요인들은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늦은 영어 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 부족한 영어학습 투자에 대한 아쉬움 등이었다. 영어실력 차별화 만족,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3.7%, 영어능력 향상 만족은 3.2%를 설명하였다.

열 개의 요인 중 효과크기가 가장 큰 영어전용 환경(.7)은 영어사교육 결정에 있어 가장 영향이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중간효과크기 요인들은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5), 부족한 영어학습 투자에 대한 아쉬움

(.5),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4), 늦은 영어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4),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4), 영어능력 향상 만족(.4), 영어실력 차별화 만족(.3), 취업을 위한 일류대 졸업(.3), 영어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3) 등이었다.

한편, 영어사교육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 강조(.5)와 부족한 영어학습 투자에 대한 아쉬움(.5),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4), 늦은 영어시작시기에 대한 아쉬움(.4) 인식들로 밝혀졌다. 학부모들은 취학 전에 영어로만 학습 가능한 환경에서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차별화 된 영어능력을 갖추어주고자 자녀의 영어사교육을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필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5)하는 사회 풍토를 원하며,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5.1.2 연구 과제 2의 결과

[연구 과제 2]

학부모의 취학 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영어사교육 결정요인을 알아본다.

5.1.2.1 초등학교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초등학생들은 취학 후 83.4%가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설문 조사 대상이 초등 3~6학년 학생의 학부모였으므로, 전체 초등학생의 영어사교육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부모 응답자들은 자녀의 영어사교육을 초등 1~2학년에서 주로 시작하였고(56.3%), 주당 평균 5~6시간 영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6%). 9시간 이상의 경우도 (7.3%) 나타나, 학부모의 취학 후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초등학교부터 과중한 영어 학습량이 부여됨을 알 수 있다.

취학 후 한 달 10만원 이상 영어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취학 전 48.6%에 비해 82.2%로 나타나, 취학 후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영어사교육 방법은 영어전문학원(64.3%)이 가장 많고, 학습지(22%), 종합학원 영어교육(12.9%), 개인·그룹과외(12.5%), 온라인 영어학습(8.8%) 등의 순서였다. 해외어학연수(1.2%)나 영어캠프(3.9%)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영어사교육 실태는 학교급지에 따라 영어사교육 실시, 시작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 비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도심지(가)가 농·어촌(라)지역보다 높아 더욱 뚜렷하였고,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에서 평균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농·어촌 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 영어학습 노출량이 적었다.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의 차이로 인해 영어학습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영어사교육 비용 격차(김진남, 2005)를 보여 영어사교육은 지역 간 영어능력격차 원인으로 나타났다. 영어사교육 방법 선택은 종합학원에서 영어수강을 제외한 모든 영어사교육 방법에서 가급지의 비율이 높았다. 또, 해외어학연수 등 고비용의 영어사교육 방법은 가와 나급지에서만 이루어졌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시작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영어사교육 비용은 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학력 간에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학부모 소득에 따라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시작 시기,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녀 학년에

따라 취학 후 영어사교육 실시, 시작 시기, 한 달 영어사교육 비용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당 영어사교육 시간은 자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어, 영어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학년에 관계없이 비슷하였다. 3~4학년은 영어학습지(12.4%), 부모가 직접 지도(4.8%)하는 비율이 5~6학년(각각 9.7%, 2.2%)에 비해 높은 반면, 5~6학년은 조기유학(0.3%), 해외어학연수(1%), 영어캠프(2.2%) 등의 방법이 3~4학년에(각각 0%, 0.1%, 1.6%)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전용환경을 추구하는 영어사교육 방법이 선택되고 있었다.

5.1.2.2 초등학교 취학 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취학 후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부모가 영어사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영어로는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취학 전 이유 역시 부모의 영어교육 중요성 인식이 가장 우선순위여서, 영어사교육 선택은 자녀 영어능력을 염두에 둔 부모의 의지임을 알 수 있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 환경으로 맞춤형교육이 가능한 점, 다양한 교육내용과 수준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개인 및 소수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개별화 교육이었다. 영어사교육은 자녀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신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취학 전에 영어사교육은 자녀의 영어학습 흥미유발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한 결과와 비교하면, 취학 후에는 흥미와 영어능력 신장을 위해 영어사교육을 받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가장 힘든 점은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이며, 경제적 능력이 되면 자녀 영어사교육에 투자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녀의 영어

사교육 욕구가 저하될 때가 가장 마지막 순위로 분석되어 영어사교육 참여는 초등학생의 교육 결정권자인 학부모 주도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여건으로 학교에서 수준별 영어교육 지도와 영어사교육 수준의 교육 제공을 가장 우선으로, 다음으로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으로 제공될 때, 세 번째는 학교영어로 입시 해결이 가능할 때, 사교육 비로 가계 부담이 될 때, 그리고 영어사용 환경이 구축될 때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자녀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으며, 다음으로 학교영어교육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여, 영어교육의 해답을 사교육보다 공교육에서 찾고자 하는 학부모의 기대가 나타나 있다.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영어능력 부족을 가장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영어사교육 기회를 주지 못함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부모의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에서 지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힘들어하고 있어 영어사교육 기회를 주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사교육을 받도록 할 조건으로 경제적 여건이 되고 자녀가 영어사교육 받기를 원하며, 진학과 취업에서 영어능력을 필요로 할 때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영어교육으로 영어능력 향상이 부족할 때와 영어능력 향상이 필요하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영어사교육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진술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쟁적 입시제도의 개선과 함께 영어가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한 영어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과 취업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초등 1학년 영어 도입과 영어교과 시수 증대를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영어사용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은 마지막 순위로 나타나 영어사용기회 부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5.1.2.3 초등학교 취학 후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은 무엇인가?

취학 후 부모가 자녀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모두 17개로 밝혀졌다. 사교육 기관의 영어전용환경,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한 실력은 영어사교육 비용 총 변화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다(13.4%). 열일곱 개 요인의 효과크기 순위는 영어사교육 교사의 우수한 실력(.8)과 사교육 기관의 영어전용환경(.7) 요인이 영어사교육 비용에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중간 효과크기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인증 시험 대비 가능(.6), 다수 영어사교육 기관 이용 필요성(.6), 자녀의 높은 영어학습 욕구(.6), 가계재정으로 인한 영어사교육 투자 부족(.5), 학교영어만으로는 우수 능력 달성 불가능(.5), 특목중·고 진학 시 인증영어 미반영(.5), 수준별 학교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만족(.5), 특목중·고 입학 목적(.4), TEE 실시(.4), 우수한 영어사교육 기관 선택(.4),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4), 방과 후 영어교육 무상 제공(.4),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4), 영어전담교사 지도에 대한 만족(.4), 특목중·고 진학위한 영어사교육 필수(.4)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초등영어교육체계 개선이라는 정책적인 요인들과 함께 특목중·고 진학, 대학입시와 취업 승진이라는 장기적인 사회체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3 연구 과제 3의 결과

[연구 과제 3]

영어사교육을 새로 시작할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여건에 대한 초등학생, 교사, 영어 사교육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다.

5.1.3.1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여건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 문항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영어사교육 필요성, 공교육과 차별화된 영어사교육, 영어학습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학생들은 영어사교육을 받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로 영어사교육의 필요성 요인을 꼽았다. 요인 구성 항목 중 읽기와 쓰기 학습(사교육 수준)을 위해 영어사교육을 원하여 학교영어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두 번째는 공교육과 차별화된 영어사교육, 마지막은 영어학습 의지로 분석되었다.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여건 문항들은 영어공교육 환경 개선, 개인적 여건 변화로 분류되었는데, 요인별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없었다.

5.1.3.2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여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요인분석을 통해 차별화 된 영어환경 기대, 수요자 만족 사교육 서비스, 교육과정 우수성, 충동적 사교육 여부 결정, 학생의 영어학습 의지 등 다섯 개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요인의 순위는 충동적 사교육 여부 결정, 차별화된 영어환경 기대, 교육과정 우수성, 수요자 만족 사교육 서비스 요인이 우선이며, 다음으로 학생의 영어학습 의지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요인분석을 통해 교육정책 개선, 영어 시험 반영 여부, 진학 및 입시제도 재고,

영어교육 지원 확대, 영어 교사의 다섯 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요인들의 순위 분석 결과, 영어교사 요인과 영어교육 지원 확대 요인이 가장 순위가 높아 교사 스스로도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를 교사의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영어교육 정책 개선과 진학 및 입시제도 재고, 그리고 영어 시험 반영 여부 요인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1.3.3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교육여건에 대한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인식은 어떠한가?

초등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영어사교육 전문가의 인식은 요인 분석을 통해 관리형 영어사교육, 영어교육 환경, 영어공교육 불신, 영어능력 신장 욕구, 학생의 학습의지 등 다섯 개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인들의 순위는 영어공교육 불신, 영어능력 신장 욕구 요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생의 학습 의지와 영어교육 환경 요인 순이었다. 교사들 역시 수요자 만족 사교육 서비스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부모들은 전담교사가 지도함으로 인해 자녀 영어능력 과약이나 영어교육 상담이 전무한 영어공교육보다는 영어사교육에 더 의존한다고 생각하였다.

영어사교육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 인식은 수요자 중심 영어공교육 제공, 영어 과목 중요도 감소, 영어능력 인증방법 개선, 영어사교육이 필요한 여건의 변화 등 네 개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요인들의 순위는 영어사교육이 필요한 여건의 변화 요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 영어공교육 제공과 영어 과목 중요도 감소, 마지막으로 영어능력 인증방법 개선 요인의 순이었다.

5.2 교육적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사교육 완화를 위한 영어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취학 전 영·유아영어교육의 타당성 검증을 바탕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유아영어교육과정 개발 및 적절한 영어교육방법 모색이 요구된다. 학부모들은 이미 4세 미만부터 자녀 영어교육을 실시할 만큼 취학 전 조기영어교육에 높은 관심(백지원, 2009; 장영준 외, 2008)을 보이고 있었다.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학부모의 영어교육 욕구를 수용하여 경쟁적으로 방과 후 또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미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현주 외, 2004). 그러나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측면과 영어교육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검증 없이(천희영 외, 2002) 이루어지는 영·유아영어교육은 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부모들은 과열된 영어교육 열기에 불안해하며, 마땅한 대안 없이 오직 영어사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다.

취학 전 학부모들의 영어사교육 결정에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영어전용 학습 환경 제공이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조기영어교육 환경 욕구를 상품화 한 고액 사설영어 유치원 등의 사교육 기관 난립과 영·유아 영어교육 산업의 증가는 취학 전부터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 가중과 계층간 위화감, 영어교육격차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취학 전부터 심화되는 영어사교육 해소를 위해서는 영·유아영어교육을 사교육이 아닌 제도권 교육으로 흡수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예체능교육과 연계한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²⁸⁾ 시도 등 유아의 성장 발달, 인지감각 발달 단계와 영어교육을 접목한 타당성

28) http://www.ytn.co.kr/_bn/201012021315339957 참조.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과 적절한 영어교육방법 제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맹목적 조기영어교육 욕구와 불안감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이해 당사자의 요구분석을 반영한 초등영어교육과정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학부모들은 학교영어교육으로는 자녀의 높은 영어능력구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영어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어사교육 교육과정 수준의 수준별 영어공교육이 학교에서 제공될 때 영어사교육을 가장 먼저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영어공교육의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현재의 학교영어교육과정은 학부모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김승현, 2009) 영어사교육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와 경향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공교육 변화만이 영어사교육 증가 폐해의 해결방법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초등영어교육은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영어능력을 다지기 위한 입문 단계이다. 따라서 영어교육을 위한 첫걸음인 영어교육과정 수립부터 교육이해당사자(Clandinin & Connelly, 1992)의 요구를 분석(Richards, 2001)하여 최대한 이를 반영하려는 진지한 논의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과 교육 결정권자인 학부모 등 교육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최대한 근접하려는 노력은 학부모들에게 공교육 신뢰를 심어주어 영어사교육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 간 영어교육격차 현상으로 인한 위화감 완화와 영어교육에 대한 긍정적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영어사교육 증가 완화를 위한 학교 영어교육 환경의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취학 후 학부모들은 자녀의 영어교육 환경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원어민과 영어실력이 우수한 교사에게 수준별 맞춤교육을 받기 위해 영어

사교육을 결정하고 있었다. 자녀의 영어능력 향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는 능력이 우수한 영어교사와 영어전용 학습환경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영어환경은 이러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다인수 학급 환경에서 학생의 수준 차에 따른 교사의 수준별 영어학습지도 부담과 우수한 영어전담교사의 부족, 영어노출환경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영어교육 시수, 전담교사 지도로 인한 우수아와 부진아에 대한 추후 지도 부재와 전무한 자녀 영어교육 상담 서비스 등의 열악한 영어교육환경은 영어사교육의 질을 대신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영어공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김천홍, 2006), 영어노출량 증가를 위한 영어상용화 추진(전효찬, 2006), 영어몰입교육 전면 실시(남경숙, 2010) 주장, 영어마을 조성(지경배, 2006)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영어사교육 증가를 완화하는 데 바람직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다인수 학급의 인원 감축과 방과 후 영어교육을 이용한 수준별 맞춤형 영어교육 활성화, 영어교육 전문상담 활성화,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단위 학교·학급별 탄력적 영어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환경에 대한 개인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구조적 교육체제와 합리적인 중·장기적 영어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자녀 영어사교육 결정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요인이 특목중·고 진학과 관련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특목중·고 진학을 위해 요구되는 TOEIC, TOEFL, TEPS 등의 영어인증시험 대비를 위해 자녀 영어사교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영어능력을 위해 학교영어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차별화되는 영어사교육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목중·고 진학을 위해서는 학교영어교육과정 수업으로는 불가능한 공인 영어성적을 취득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적 교육풍토에

기인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우리사회에서 특권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지름길은 명문대 입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고와 특목중·고 진학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계적인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가장 힘든 점으로 영어사교육 비용 부담을 지적하면서도 영어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교육 풍토와 맞물려 초등학생부터 외고와 특목중·고를 거쳐 명문대에 진학하는 중장기학습 로드맵을²⁹⁾ 세워주고 있어, 어릴 때부터 영어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체계 속에서 비롯된 교육풍토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영어교육과정 구성과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교 영어공교육은 나름대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이길영, 2002)하여 영어능력 향상을 가져왔다는(권오량, 2006)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와 학부모의 영어교육 기대치 충족을 위한 초등영어교육과정 수립은, 초등영어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단기적인 교육 개혁과 함께 중·장기적 영어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다섯째, 진학을 위한 영어능력(김승현, 2009)이 아닌 지식기반 사회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의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인식 전환과 경쟁적 입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차별화 된 영어능력을 갖추어 주교자 취학 전에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결정하였다. 특히,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영어교육에 대한 광고로 인한 주변의 영어교육 열기로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들은 더욱 자녀영어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취학 후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에서도 지나친 영어사교육 과열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 과대 영어교육

29) 타임교육, <http://www.t-ime.com/>

광고에 대한 국가적 제재와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취학 전·후 영어사교육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진술 인식 분석 모두에서 학부모들은 경쟁적 입시제도의 개선과 영어가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한 영어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이 영어사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특권층 진입을 위한 외고나 특목고 입시 방편으로서의 영어능력 구비(김홍주 2001)가 아니라,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제적인 지식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함양으로서의 영어교육 목적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글로비시(Globish)³⁰⁾ 활용 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전 국민이 영어에 능통하기보다는 영어능력 요구 분야에 적합한 영어인재를 양성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주목³¹⁾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교육 결정권자인 학부모들이 자녀영어사교육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혀내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들은 역으로 영어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영어사교육 정책 완화를 위한 초등영어공교육 정상화방안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30) 글로비시란 프랑스의 장 폴 네리에르가 1980년대 파리 IBM에 근무했을 당시 영어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지구촌 영어'의 필요를 실감하여 만든, 1500개 기본 단어로 이루어진 '글로벌(global)'과 '잉글리시(English)'가 합쳐진 신조어이다.

31)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포르에서도 성인의 약 70%, 필리핀은 약 15%, 인도는 2~10% 정도만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보고도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참고 문헌

- 강영혜·김재철·강태중. (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CR 2004-48). 서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공은배·천세영. (2001). *교육비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공희진. (2007). *중학교 이전시기의 영어사교육이 중학교 1학년 영어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8a). *초등학교교육과정 해설(V)*.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b).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2008. 12. 26).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c). *영어교육정책추진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a). *2009 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b).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c).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d). *2008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연수 자료-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방향과 효과 증진 방안*(24-37).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1997). *초등영어교육정책자료집 행정간행물*(7000-81132-77-9707).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2-16*.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5a).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5b).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a). *영어교육 혁신방안 정책참고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 추진단.
- 교육인적자원부. (2006b). *2006 개정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무조정실. (2007).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 방향*. 서울: 국무조정실.
- 권미나. (2007). *영어사교육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 권아영. (2008). *한국영어교사와 학원영어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차이*.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권오량. (2006).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성과 분석을 통한 초·중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태만. (2001). *현장교사가 바라본 초등영어교육의 과제*. 서울: 문음사.
- 김달효. (2006). *교육학 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민정. (2009). *조기영어 사교육 경험이 중학생의 듣기, 읽기 능력과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영어사교육 대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 김수민. (2005).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행태와 사교육결정요인 및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전북.
- 김승현. (2009). *영어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최근 영어사교육 현황과 실태에 대한 종합분석과 부모들이 가져야 할 관점(1-75)*. 서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 김영철. (198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의 해소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오·강용구·송해성. (2008). *중등 1급 정교사 (영어)자격연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연구*, 14(1), 97-122.
- 김우형. (2007). *합숙형 중등교사 심화연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38, 193-220.
- 김은아. (1995). *유아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조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은희. (2007). *취학 전 아동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금오공업대학교, 경북.
- 김중식. (1994). *국민학교 영어 교육에 있어서 쓰기 지도 및 도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김지경. (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7-82.

- 김지중. (2007). *도서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경남.
- 김지하·백일우. (2003). 입시과의 수요 추정을 위한 회귀모형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2(1), 81-100.
- 김지현. (2001).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김진남. (2005). *교육환경에 따른 자녀의 영어 사교육 실태분석과 학습 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경기.
- 김진석. (2007).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서의 연계성 기준. *영어교육연구*, 19(2), 215-233.
- 김진영. (2000). 우리나라 유치원 영어교육 현황. *한국어린이육영회*, 14, 72-117.
- 김진옥. (2009). *영어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관한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전북.
- 김진철·박기화. (1999). 초등영어 교육 실시 효과에 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5(2), 191-224.
- 김천홍. (2006). 영어교육 혁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영어교육 혁신팀 세상읽기 겨울호*, 8-10
- 김현진. (2004). 사교육비 지출결정 변인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김홍일. (2006). *학부모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홍주·한유경·김현철. (1999).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주. (2001). *자비유학규제 완화와 조기유학에 대한 논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환기. (2010). *서울시,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 본격화*. 세계일보. 월드와이드웹: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00323005308&subctg1=01&subctg2=>에서 2010년 9월 20일에 검색하였음.
- 나명희. (2002). *초등영어교육의 정의적 목표 달성 실현에 관한 연구*. 석사

- 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남경숙. (2010).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교사,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남영필. (2002). *취학 전 아동의 조기영어교육 실태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문혜정. (2009). *영어말하기교육 강화-청담리닝 상한가*. 한국경제월드와이드웹: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2293211>에서 2010년 6월 12일에 검색하였음.
- 민찬규. (2006).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에 효과에 관한 연구*. *영어교과교육*, 5(1), 27-45.
- 박경자. (1997). *영어교사의 자질과 역할*. *솔피어 논총*, 9, 459-484.
- 박명희. (2008). *조기 유아 영어교육의 효과 및 학부모 인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전남.
- 박봉이. (2006). *초등영어 교사 연수의 효과*. *교과교육연구*, 27(1), 1-28.
- 박성수. (2004).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에 관한 설문 분석*. *영어교과교육*, 3(1), 59-89.
- 박약우. (1999). *초등4학년 영어교재 분석연구*. *초등영어교육*, 5(1), 141-166.
- 박약우·박기화·최희경·이의갑. (2007).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13(1), 5-47.
- 박약우·최진황. (2005).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 방안 연구*.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 박이도. (1998).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 서울: 한국문화사.
- 박장현. (2001). *영어조기교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경기.
- 박지성. (2003). *영어 사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초등영어교육방향 제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박지윤. (2009). *초등영어 학습부진아의 실태 및 원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구.
- 박형수. (2009). *교육주, 영어공교육 강화정책에 일제히*. 월드와이드웹: <http://www.asiae.co.kr>에서 2010년 3월 15일에 검색했음.

- 박화윤·안라라·하양승(1997).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와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7(2), 183-205.
- 박지형. (2010). *영어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집-EBS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온라인 영어학습 사이트 소개*(109-116). 서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 반경하·서현아. (2009).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취 기대에 따른 조기영어교육 인식 및 실태 연구. *인문학논총*, 14(1), 121-148.
- 방경희. (2007). *영어과 수준별 수업에 관한 공교육과 사교육간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경기.
- 배두분. (1997).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문화사.
- 백금숙. (2000). *초등영어교육의 지역 간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백지원. (2009).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부경순. (2003). 조기영어교육이 초등영어교육에 미치는 효과-3학년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9(2), 123-148.
- 부경순·이완기·이정원·최연희. (2003). 수업관찰과 면담을 통해 살펴본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 58(2), 3-36.
- 부산시교육청. (2007). *부산시교육청 개혁정책자료*. 부산: 부산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9.). *서울영어공교육 강화방안(SMILE Project)*.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6). *조기해외유학현황*.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소도숙. (2004). *조기영어학습 경험이 초등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경남.
- 송기창. (2002). 사교육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1(2), 51-89.
- 손승희. (2007). *한국 초등학생의 영어 어휘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신동주. (2004).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현황분석 및 교사·학부모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신용진. (1989). *영어교수 학습 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 신상윤. (2009). *영어선생님들은 지금 열공 중*. 코리아헤럴드. 월드와이드웹: <http://blog.naver.com/zzangu2xx?Redirect=Log&logNo=10071499982> 에서 2010년 7월 12일에 검색하였음.
- 심 순. (2006). *EFL상황에서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충남.
- 안석배. (2009). *영어유치원 한 달 72만원 일반 유치원 교육비의 3배*. 조선일보. 월드와이드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6/2009100600013.html에서 2010년 5월 2일에 검색했음.
- 안선희. (2009).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연구-참여정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안선희. (2009). *영어무상공교육과 영어교육혁신을 통한 영어사교육비 경감 대책*. 서울: 한국교육연구소 여의도연구소.
- 안중호. (2009). *영어로 하는 초등 영어수업에 대한 초등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양옥승·김진영·김현희·김영실. (2001). 한국 사립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22(4), 299-313.
- 연보라. (2008). *공교육과 사교육 교사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염미선. (2009). *학부모 배경과 영어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오순임. (2000). *초등학교 학생이 바라본 영어교육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충남.
- 오준일. (1995). 조기영어교육 성공을 위한 조건. *부산영어교육*, 4, 119-139.
- 오준일. (2004). 초등영어교육 목표 설정의 과제. *초등영어교육*, 10(2), 5-23.
- 우남희·이종희. (1994). 한국의 조기영어교육 실태조사.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1-42.
- 우남희·서유현·강영은. (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서울: 교육부.
- 유병률. (2009). *[私교육, 死교육] <2> 영어교육 강화? 사교육 심화*. 월드

- 와이드웹: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3/h2009031002351922020.htm>에서 2010년 5월 2일에 검색하였음.
- 유윤미. (2006). *초등영어에서 문자 교육 도입의 필요성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경남.
- 유한구. (2006). *사회 계층과 교육격차(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연구과제 2006-14)*.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은경. (2005). *초등영어 사교육이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과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전남.
- 윤이나. (2008). *영어 사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과 영어 능력 향상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순천대학교, 전남.
- 윤정일·백순근. (2006).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조기유학 수요에 미치는 영향분석. *교육행정*, 24(2), 299-322.
- 이길영. (2002). 초등영어교육을 경험한 학습자의 중학교 영어 학습태도. *영어교육*, 57(2), 342-364.
- 이동욱. (2008). *중학생의 사교육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경남.
- 이미경·곽영순·민경석·채선희·최성연·최미숙·나귀수. (2004). *PISA 2003 결과 분석 연구: 수학적 소양, 읽기 소양, 과학적 소양 수준 및 배경변인 분석(RRE 2004-2-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병민. (2002).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시간의 의미. *외국어교육*, 10(2), 107-129.
- 이선희·오영희·박영신. (1998). 조기영어교육에 대한부모들의 인식조사 연구. *배재대학교 인문 논총*, 13, 153-173.
- 이인숙. (2004). *초등영어 사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 조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 이완기. (1998).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 이완기. (2004).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영어교육 목표와 내용 구성의 개선 방향. *초등영어교육*, 10(2), 25-54.
- 이완기. (2007).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 이완기·김정렬·박매란. (2008). *초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총연합회.

- 이윤영. (2008).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이의갑. (2004). 제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초등영어 교육내용 적정성에 관한 연구: 양, 수준, 흥미도에 관하여. *초등영어교육*, 10(2), 55-95.
- 이의갑. (2005).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종재·최상근·김현진. (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호·우천식. (1998).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한국개발연구*, 20(1), 79-151.
- 이현주·정영숙·장혜자. (2004). 어린이집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 원장, 교사의 인식조사. *생활과학연구논총*, 18(1), 1-24.
- 이화자. (1998).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문자언어 도입에 관한 연구. *응용언어학*, 14(2), 305-337.
- 이현정. (2002). *조기영어교육경험이 이후 중학교 영어성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경기.
- 이혜란. (1995). 영어조기교육 현황조사 및 앞으로의 방향. *응용언어학*, 8, 3-35.
- 임찬빈·전애리. (2002). *영어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연구(IX)*(연구보고 RRC 2002-8). 서울: 한국교육정평가원.
- 장복명·임원신. (1999). 천안지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현황 및 교사, 학부모 인식도 조사. *영어어문교육*, 5, 192-217.
- 장영준·최지영·김명숙(2008). 유아 영어교육의 실태와 실천적 방안. *한국 열린 유아교육학회*, 5, 11-29.
- 장유진. (2007). *현행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전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 자료집-초등영어수업시수 확대문제와 영어교육격차 해소 방안(1-133)*.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병만. (2006). *초·중등 영어교육 현황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전성일. (2003). 공교육 만족도를 결정하는 사교육 태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30, 187-206.

- 전승헌. (2005). *개념 재구성을 통한 사교육의 유형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부산.
- 전효찬·최호상. (2006). *영어의 경제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정규태·장경숙. (2009). 영어교사 연수 실태 및 요구 조사 연구. *현대영어교육*, 10(3), 267-292.
- 정동빈. (1998). 초등학교 영어문자 지도 방향-제 6,7차 영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4(2), 5-29.
- 정동빈. (2000). *영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학문출판사.
- 정양수·김경애. (2008). 가정환경과 영어사교육이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20(2), 273-295.
- 정인자. (2005).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조기영어교육 인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정지영. (2005). *영어, 이시대의 딜레마*. 민중의 소리, 월드와이드웹: <http://www.vop.co.kr/A00000078122.html>.에서 2010년 5월 12일에 검색하였음.
- 정현숙. (2005). 교사와 학생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5,6학년 영어사교육. *외국어교육*, 12(2), 257-283.
- 제민지. (2002). *사교육 선호경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 조선일보. (2009). *결국... 영어가 '문제'-지역 양극화 제일 심각... 학력 차이 두 배 정부, 놓여준 학교에 예산 집중 투입해야*. 2009년 2월 18일자 보도.
- 조승희. (2008). *조기영어교육이 초등영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중앙엠비엔. (2010). *레몬트리*. 서울: 중앙엠비엔.
- 지경배. (2006). 영어마을 조성 실태와 정책제언.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 1, 1-5.
- 진경애. (2006).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혁신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진현수. (2001). *유치원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경기.
- 차경환. (2000).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도 조사*. 울산

-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울산.
- 차지인. (2003).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천세영. (1997). 사교육과 과외문제의 시장 이론적 검토. *교육재정경제연구*, 16(2), 45-86.
- 천희영·최미현·좌승화·서현아. (2002). 유아영어교육의 현황에 관한 국내 연구 경향 및 내용 분석. *아동연구*, 11, 20-33.
- 최상근. (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소연·조지영. (1999). 초등영어에서 문자언어 교육의 도입에 관한 연구. *영어언어과학*, 3, 271-276.
- 최우미. (2006). *초등학생 학부모의 영어학습에 대한 신념 조사 : 학부모 신념의 불일치적 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최은주. (2009). *정상제이엘에스 고성장 교육주*. 월드와이드웹: http://www.wownet.co.kr/news/wownews/view_nhn.asp?bcode=N07010000&artid=A200907150246에서 2010년 3월 15일에 검색했음.
- 통계청. (2008). *2007 사교육비 실태조사 보도자료*.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09). *2008 사교육비 실태조사 보도자료*. 서울: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2008). *2007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사회사연구회. (1990). *한국의 사회신분과 교육환경*.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한국영어교육학회·MBC. (2006). *MBC 스페셜 2006 대한민국 영어 보고서*. 서울: MBC(2006.05.21 23:30 방영).
- 한유미·이진화. (1997).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어머니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高鳳論集(고황논집)*, 20, 325-341.
- 현주. (2003). *학부모 교육관 및 사회풍토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RM2003-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영선. (2007). *영어 사교육의 이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

- 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황혜신·황혜정(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 21(4), 69-79.
- Ardan, A. A. (1991). An exploratory study of teaching English in the Saudi elementary public schools. *System*, 19(3), 253-266.
- Bean, W. C. (Ed.). (1993). *Strategic planning that makes things happen: Getting from where you are to where you want to be*. Amherst, M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ess.
- Brookover, W., Beady, C., Flood, P., Schweitzer, J., & Wisenbaker, J. (1977).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Brown, H. D. (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Regents.
- Carroll, J. B., & Sapon, S. M. (1959). *Modern language aptitude test*. New York: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Cheong, S. H., & Lee, D. H. (2003).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n EFL learners' performance and attitude. *English Language Teaching*, 15(1), 31-54.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Chung, H. S. (2005). Private English instruction of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s and student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2), 257-283.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2). Teacher as curriculum maker. In P. W. Jackson (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pp.363-401). New York: Macmillan.
- Clark, J. (1989). *Curriculum renewal in school foreign language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J. (1977).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Cohen, J. (2006). Social, emotional, ethical and academic education:

- Creating a climate for learning, participation in democracy and well-be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76(2), 201-237.
- Coleman, J., Campbell, E., Hobson, C., McPartland, J. M., Alexander, M., Weinfeld, F.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Elliot, A. J. (1983). *Child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iora, A. Z., Brannon, R. C., & Dull, C. Y. (1972). Empath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2, 111-130.
- Hening-Boynton, A. L. (1990). Using FLES history to play for the present and future. *Foreign Language Annuals*, 23, 503-509.
- Husen, T. (1975). *Social influences on educational attainment: Research perspectives on educational equality*.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Husen, T., Tuijnmann, A., & Halls, W. (Eds.). (1992). *Schooling in modern European society: A report of the academia Europaea*. Oxford: Pergamon Press.
- Jung, W. H., & Kang, E. M. (2005). The effect of years of English study and an extracurricular activity on learning strategy use. *English Language Teaching*, 17(2), 25-48.
- Jung, Y. (1999). An evaluation of current English educa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s of Yosu District in Korea. *Primary English Education*, 5(1), 221-261.
- Kim, J. C. (1987). *A study on Englis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olden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CA.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Krashen, S., Long, M., & Scarcella, R. (1982). *Age, rate, and eventual attai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Krashen, S., & Terrel, T. D. (1983). *The natural approach*. Hayward, CA: The Alemany Press.
- Lee, H. W. (1997).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viewed by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English Language Teaching*, 6, 3-24.
- Lee, H. W., & Park, M. R. (2001).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program in Korea. *English Teaching*, 56(1), 53-79.
- Lenneberg, F. H. (1967).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New York: John Wiley & Sons.
- Long, M. H. (1985). Inpu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In S. M. Gass & C. G.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377-393). Rowley, MA: Newbury House.
- Markee, N. (1997). *Managing curricular innov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Neill, D. (1996).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 G.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pp. 15-84). Cambridge, MA: MIT Press.
- Morris, P. (1994). *The Hong Kong school curriculum*.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Nunan, D. (1989). Hidden Agendas: The role of the learner in programme implementation. In R. K. Johnson (Ed.),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pp. 176-18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tario-Carleton Catholic School Board. (2002). *French as a second language review*. Retrieved May 10,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edu.gov.on.ca/eng/amenagement/FLS.html>
- Patton, M. Q. (1989).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Beverly Hills, CA: Sage.
- Penfield, W., & Roberts, L. (1959). *Speech and brain mechan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Piaget, J. (1968). *Six psychological studies*. New York: Vintage Books.
- Richards, J. C. (1989). *The context of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1968).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ville-Troike, M. (1988). Private speech: Evidence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during the 'silent' period. *Journal of Child Language*, 15, 567-590.
- Scholfield, P. J., & Gitsaki, C. (1996). What is the advantage of private instruction? The example of English vocabulary learning in Greece. *System*, 24(1), 117-127.
- Shin, G. (2001). English language teaching system change to enhance the social justice and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economy. *English Teaching*, 56(2), 193-218.
- Selinger, H. W. (1979). On the natures and function of language rules in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13, 359-369.
- Slobin, D. I. (1982). Universal and particular in the acquisition of language. In E. Wanner & L. Gleitman (Eds.), *Language acquisition: The state of the art* (pp. 128-17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olsky, B. (2002). Globalization, language policy, and a philosophy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English Teaching*, 57(4), 3-26.
- Spradley, J.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arcourt Brace.

- Thomas, H. (2003). The arguments for and the meaning of quality.
ELT Journal, 57(3), 234-241.
- Van Els, T., Bongaerts, T., Extra, G., Van Os, C., & Janssen-van
Dieten, A. (1984). *Applied linguistics and the learning and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London: Arnold.



부록 1

(설문지 작성을 위한 학부모 면담자료의 범주별 코딩 빈도 수)

주요 영역	중요도 범주	영역별 세부 범주	코딩 수	빈도 (%)	
취학 전 영어 사교육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경우	영어사교육을 시킨 이유	49	8.52	
		영어사교육 환경	38	6.60	
		영어사교육 효과	22	3.83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힘든 점	31	5.39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이유	19	3.30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든 점	24	4.17
		소계	183	31.81	
취학 후 영어사교 육	영어사교육을 실시한 경우	영어사교육을 시킨 이유	65	11.30	
		영어사교육 환경	52	9.03	
		영어사교육 효과	31	5.39	
		영어사교육의 힘든 점	31	5.39	
		영어사교육을 중단할 조건	49	8.52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이유	19	3.30	
		영어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든 점	23	4.00
영어사교육을 시작할 여건	17	3.00			
소계	287	49.93			
사회 구조적 측면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측면에 관한 인식	58	10.09	
학교영어교육		학교영어교육에 관한 인식	47	8.17	
합계		합계	575	100.00	

부록 2

(학부모용 설문지)

자녀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자녀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영어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9. 07.

※ 설문에 대한 문의 사항은 ☎ ***-****-****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본 설문의 붉은 밑줄과 파란 밑줄이 표시된 지시문을 잘 읽고 답하시면 보다 빠르게 설문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취학 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부모님만 답해주십시오. >

1. 내 자녀의 취학 전 영어교육 시작 시기는?

- ① 4세미만 ___ ② 4세 ___ ③ 5세 ___ ④ 6세 ___ (기간 : ___년 ___월)

2. 주당 평균 영어교육 시간은?

- ① 1-2시간 ___ ② 3-4시간 ___ ③ 5-6시간 ___
④ 6-7시간 ___ ⑤ 8시간 이상 ___

3. 내 자녀의 영어교육 방법은?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영어유치원 ___ ② 영어 학원 ___
③ 영어학습지 ___ ④ 개인 또는 그룹과의 ___
⑤ 학부모님이 직접 ___ ⑥ 동반 조기 유학 ___
⑦ 인터넷 온라인 학습 ___
⑧ 기타 (_____)

4. 한 달 기준 영어 학습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 ① 10만원 미만 ___ ②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___
③ 20만 원 이상 -30만 원미만 ___ ④ 30만 원 이상-40만 원미만 ___
⑤ 40만 원 이상 ___

5. 취학 전 내 아이에게 영어교육을 받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①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갖고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② 학교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③ 영어의 중요성을 학부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④ 어릴 때 시작하면 할수록 학습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 된 영어실력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⑥ 주변 사람들의 영어 학습 열기에 불안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⑦ 영어를 잘하면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 취학 전 내 아이가 받은 영어교육환경에 대해 어떠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① 영어 선생님의 영어능력이 우수해서 만족했다.					
②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영어공부를 해서 좋았다.					
③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좋았다.					
④ 아이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 가능해서 좋았다.					

7. 취학 전에 학습한 내 아이의 영어교육효과는 어떠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① 아이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높아졌다.					
② 아이의 영어 실력이 늘었다.					

8. 취학 전 내 아이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① 영어 교육비가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					
② 학부모의 교육열에 비해 내 아이의 영어공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낮아 힘들어했다.					
③ 배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어환경이 부족했다.					
④ 학원과 교재(학습지)를 고를 때 믿음이 가지 않아 불안했다.					
⑤ 학부모의 영어지도능력이 부족함을 느꼈다.					
⑥ 더 많은 교육비를 들여 더 질 좋은 영어공부를 시키지 못해 아쉬웠다.					
⑦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영어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늦어 후회스러웠다.					

<자녀가 취학 전에 영어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님만 답해주십시오.>

5-1. 취학 전 내 아이에게 영어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해당되는 남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❶ 아이가 영어에 흥미와 관심이 없었다.					
❷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❸ 국어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영어를 같이 배우는 상황이 걱정되었다.					
❹ 영어공부는 시키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았다.					
❺ 영어 공부환경(영어교사, 학습지, 학원 등의 교육방법과 시설을) 신뢰하기가 힘들었다.					
❻ 너무 일찍 시작하는 영어공부가 효과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했다.					

8-1. 취학 전 내 아이에게 영어공부를 시키지 않아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해당되는 남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❶ 내 아이에게 남들처럼 빨리 영어 공부를 시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❷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영어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❸ 가정에서 지도하려 하였으나 학부모의 영어능력이 모자라 지도할 수 없어 아쉬웠다.					
❹ 내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					
❺ 내 아이가 흥미와 관심이 부족해서 영어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 자녀에게 현재 영어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만 답해주십시오.>

※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1.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영어사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 ① 초등학교 1학년 ___ ② 초등학교 2학년 ___ ③ 초등학교 3학년 ___
④ 초등학교 4학년 ___ ⑤ 초등학교 5학년 ___ ⑥ 초등학교 6학년 ___

2. 주당 평균 영어사교육 시간은?

- ① 1-2시간 ___ ② 3-4시간 ___ ③ 5-6시간 ___
④ 7-8시간 ___ ⑤ 9시간 이상 ___

3. 내 자녀의 영어사교육 방법은?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영어전문 학원 ___ ② 종합학원에서 영어 배움 ___
③ 영어학습지 ___ ④ 개인 또는 그룹과외 ___
⑤ 학부모님이 직접 ___ ⑥ 조기 유학 ___
⑦ 인터넷 온라인 학습 ___ ⑧ 해외 어학연수 ___
⑨ 영어캠프 ___

4. 한 달 기준 영어사교육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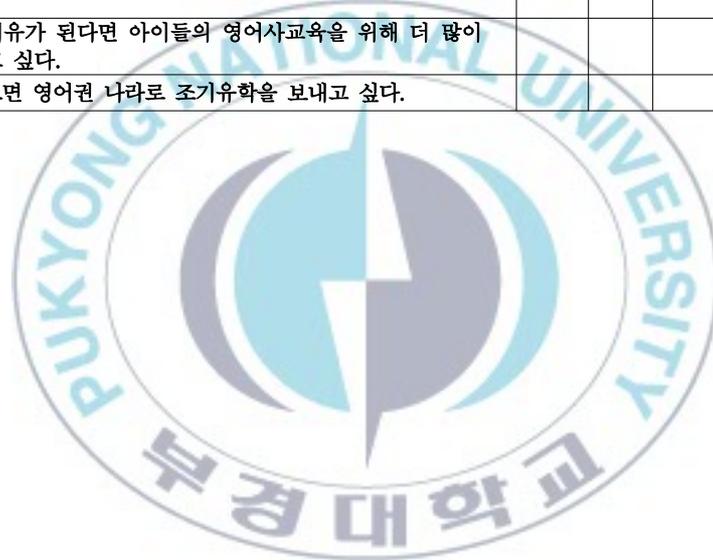
- ① 10만원 미만 ___ ②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___
③ 20만 원 이상 -30만 원미만 ___ ④ 30만 원 이상-40만 원미만 ___
⑤ 40만 원 이상 ___

5. 현재 내 아이에게 영어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① 내 아이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 영어공부를 더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② 영어교육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영어학습 광고였다.					
③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학부모의 선택이었다.					
④ 학교 영어교육만으로는 우수한 영어 능력을 기를 수 없어서이다.					
⑤ 학교 밖에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할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⑥ 주변 사람들의 영어 학습 열기에 위기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이다.					
⑦ 특목 중 고등학교 입학을 생각하고 영어실력을 쌓기 위해서이다.					

6. 현재 내 아이가 받고 있는 영어사교육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① 검증된 원어민 영어교사와 공부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					
②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영어공부를 해서 좋다.					
③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좋다.					
④ 아이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 가능해서 좋다.					
⑤ 학교 영어선생님보다 영어실력이 우수해서 만족한다.					
⑥ 학교보다 다양한 내용과 수준 높은 영어를 배울 수 있어 만족한다.					

7. 현재 내 아이가 받고 있는 영어사교육 효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① 아이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높아졌다.					
② 아이의 영어 실력이 늘었다.					
③ 영어사교육에서 수준이 높은 영어학습을 받아 공인인증시험(토플, 토익, 텡스, 토셀등)준비 공부를 할 수 있다.					

8. 현재 내 아이에게 영어사교육을 시킬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영어 교육비가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② 학부모의 교육열에 비해 내 아이의 영어공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낮아 힘들다.					
③ 영어를 더 잘하려면 2군데 이상의 영어사교육도 필요하다.					
④ 내 자녀의 영어 능력을 올릴 보다 나은 영어 사교육 시설을 찾기위해 늘 노력한다.					
⑤ 조기유학이나 더 좋은 영어사교육 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					
⑥ 더 많은 교육비를 들여 더 질 좋은 영어공부를 시키지 못해 아쉽다.					
⑦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아이들의 영어사교육을 위해 더 많이 투자 하고 싶다.					
⑧ 돈만 있으면 영어권 나라로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다.					



9. 다음 조건들 아래에서라면 내 아이가 현재 받고 있는 영어사교육을 그만 두시겠습니까?					
※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① 영어 능력이 검증된 영어 전담교사가 영어를 지도한다.					
② 원어민이 지도하는 영어 몰입 교육(다른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을 주 3회(3시간)이상 받는다.					
③ 사교육처럼 수준별, 개인별, 맞춤 영어교육을 한다.					
④ 학교에서 영어 사교육(학원) 수준의 교육이 제공된다.					
⑤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영어성적을 상대평가(등수)가 아닌 절대평가(점수)로만 반영한다.					
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환경(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카페 등이 마련된다).					
⑦ 방과 후 수준별 국가지원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⑧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학습만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⑨ 영어교육방송(EBS)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⑩ 영어사교육비가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					
● 특목 중, 고의 입시에서 공인영어능력 시험(토익, 토플, 텡스)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 대학입시에서 영어능력을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다.					
● 취업이나 승진 시 영어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타					

< 자녀에게 현재 영어 사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는 학부모님만 답해주십시오.>

5-1. 귀하의 자녀가 영어 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① 아이가 영어에 흥미와 관심이 없다.					
② 영어사교육은 시키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영어 공부환경(영어교사, 학습지, 학원 등의 교육방법과 시설)을 믿을 수 없다.					
④ 모든 사람이 꼭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⑤ 정부의 학교영어교육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⑥ 영어사교육의 효과가 없었다.					

8-1. 현재 내 아이에게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않아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① 아이에게 남들처럼 영어사교육을 시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②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영어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③ 학부모의 영어능력이 모자라 가정에서 지도할 수 없어 아쉽다.					
④ 아이가 영어공부에 흥미와 관심이 부족하여 원하지 않는다.					
⑤ 남들처럼 영어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내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다.					

9. 다음의 조건들 아래에서라면 내 아이가 영어사교육을 받도록 하시겠습니까?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① 우리 집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다.					
② 내 아이의 학년이 올라간다.					
③ 초등 1학년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한다.					
④ 초등학교에서 영어 공부 시간 수가 늘어난다.					
⑤ 학교영어교육만으로 영어실력 향상이 어렵다.					
⑥ 특목 중고에서 영어 공인 인증 점수(토익, 토플, 텡스)를 요구한다.					
⑦ 내 아이의 대학 입시에서 영어점수의 비중이 높아진다.					
⑧ 취업하거나 승진할 때 영어 공인인증 점수(토익, 토플, 텡스)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⑨ 영어 사교육이 내(학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영어 수준으로 내 아이의 영어실력을 향상, 유지시켜준다.					
⑩ 내 아이가 영어공부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영어를 하려고 한다.					

< 학부모님 모두 답에 주십시오. >

▶ 다음 각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다른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열기로 내 아이의 영어공부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② 특목중, 특목고 진학은 일류대학에 가는 지름길이다.					
③ 내 아이도 특목중,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는 공인영어인증 점수 (토익, 토플, 텡스 등)를 얻기 위해 공부한다.					
④ 학교 영어공부로는 특목중·고에서 원하는 영어실력을 갖출 수 없어 영어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⑤ 좋은 대학코를 졸업해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⑥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이 필수적이다.					
⑦ 소득차이는 교육차이,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⑧ 경쟁위주의 입시제도가 영어교육부담을 더욱 심각하게 한다.					
⑨ 전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분위기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영어능력이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영어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학교 영어선생님은 모두 영어로만 가르치고 말한다.					
③ 내 아이의 영어수준에 맞는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학교영어마을, 영어도서관등의 영어공부를 위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많이 이용되고 있어 바람직하다.					
⑤ 영어실력이 뛰어난 영어 전담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⑥ 학교에 배치된 실력 있는 원어민 교사들의 수는 만족할 만하다.					
⑦ 학교에서 영어 시간외에 여러 가지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 아이에게 배운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⑧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방과 후 영어 학습프로그램이 잘 운영 되고 있다.					
⑨ 2010년부터 주당 영어 시수를 늘여서 바람직하다.					

㉠ 기본 사항 ㉠

*알맞은 난에 ✓표 하세요

1. 응답자 성별 : ㉠ 남 ___ ㉡ 여 ___

2. 연령

㉠ 30대 미만 ___ ㉡ 30-35세 ___
㉢ 36-40세 ___ ㉣ 41-45세 ___ ㉤ 46세 이상 ___

3. 학력

㉠ 중졸이하 ___ ㉡ 고졸(고중퇴포함) ___ ㉢ 전문대졸(중퇴포함) ___
㉣ 대졸(대학중퇴포함) ___ ㉤ 대학원졸 이상 ___

4. 가구 한 달소득

㉠ 200만원미만 ___ ㉡ 200-300만원미만 ___ ㉢ 300-400만원미만 ___
㉣ 400-500만원 미만 ___ ㉤ 500-600만원 미만 ___ ㉥ 600만원 이상

5. 초등학교 자녀의 학년

㉠ 저(1,2)학년 ___ ㉡ 중(3,4)학년 ___ ㉢ 고(5,6)학년 ___

6. 초등학교 자녀의 성별

㉠ 남 ___ ㉡ 여 ___

♥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록 3. (교사용 설문지)

영어사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하오니 다음 질문들을 잘 읽고, 물음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본인의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 02.08

※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사교육(학교 방과 후 교육은 제외)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각 문항에 알맞은 칸에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❶ 학생들이 영어공부에 흥미와 관심이 높아 영어공부를 더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❷ 영어교육에 대한 광고와 방송매체 때문이다.					
❸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학부모의 선택이다.					
❹ 학교 영어교육만으로는 우수한 영어 능력을 얻기 힘들어서이다.					
❺ 사교육을 통해 영어노출기회와 학습량을 늘이기 위해서이다.					
❻ 주변 사람들의 영어 학습 열기에 위기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이다.					
❼ 특목중고등학교 입학에 위해 토익, 텡스 등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이다.					
❽ 원어된 영어 교사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❾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영어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❿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⓫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⓬ 학교 영어선생님보다 사교육 교사의 영어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⓭ 학교영어 시간보다 학습내용이 다양하고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⓮ 영어학습 평가가 점수화되어 영어능력확인이 가능하다.					
⓯ 주기적으로 영어학습상담을 하는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⓰ 학교 영어교육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아래의 각 방안들이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각 문항의 알맞은 칸에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① 영어교사인증을 받은 유자격 영어 전담교사가 영어를 지도한다.					
② 원어민이 지도하는 영어 몰입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③ 사교육처럼 수준별, 개인별, 맞춤 영어교육을 한다.					
④ 학교에서 영어 사교육(학원) 수준의 영어교육이 제공된다.					
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의 중요도가 중, 고등학교에서 낮아진다.					
⑥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환경(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카페 등)이 마련된다.					
⑦ 방과 후 수준별 국가지원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⑧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학습만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취업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⑨ 영어교육방송(EBS)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⑩ 국가차원의 영어능력 인증제가 실시된다.					
⑪ 특목 중, 고의 입시에서 공인영어능력 시험(토익, 토플, 텡스) 대신 국가가 인정한 영어 인증 급수를 반영한다.					
⑫ 대학입시에서 영어능력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⑬ 취업이나 승진 시 영어능력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⑭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내외로 감소한다.					
⑮ 영어 학습 시수가 늘어난다.					
⑯ 학교 실정에 맞는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단위 교육과정 수립과 검증된 영어학습교재 선택에 있어 단위 학교에 자율적 권한이 주어진다.					

○ 기본 사항 ○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세요.)

1. 성 별 : ① 남 ___ ② 여 ___

2. 교직경력 : ()년 ()월

3. 담당학년 : ① 1-2학년 ___ ② 3-4학년 ___ ③ 5-6학년 ___ ④ 영어전담교사 ___

4. 영어교수경력 : ① 유 ___ ② 무 ___

부록 4. (학생용 설문지)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선생님은 부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여러분의 영어 학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들을 잘 읽고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 설문지는 꼭 선생님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2010. 02.08

•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나는 ()학년이며, (남학생, 여학생)입니다.

※ 나는 왜 영어학원(과외, 학습지등)에 다닐까요?

<다음 각 이유에서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를 골라 ✓표 해주세요>

- | | |
|----------------------------|-------------------------|
| ① 내가 영어를 좋아해서 | ----- ◎ () △ () × () |
| ②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 | ----- ◎ () △ () × () |
| ③ 학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 ----- ◎ () △ () × () |
| ④ 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할 것 같아서 | ----- ◎ () △ () × () |
| ⑤ 학교 영어공부는 너무 쉬워서 | ----- ◎ () △ () × () |
| ⑥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영어로만 공부하니까 | ----- ◎ () △ () × () |
| ⑦ 학교영어시간보다 재미있어서 | ----- ◎ () △ () × () |
| ⑧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배워서 | ----- ◎ () △ () × () |
| ⑨ 영어로 읽고, 쓰는 공부를 시켜주니까 | ----- ◎ () △ () × () |
| ⑩ 내 수준에 맞게 영어공부를 하려고 | ----- ◎ () △ () × () |
| ⑪ 다른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불안해서 | ----- ◎ () △ () × () |

※ 나는 어떤 경우에 영어학원(학습지, 과외)을 그만두게 될까요?

<다음 각 이유에서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를 골라 ✓표 해 주세요.>

- | | |
|-------------------------------|-------------------------|
| ① 영어공부가 싫어지면 | ----- ◎ () △ () × () |
| ② 학부모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 ----- ◎ () △ () × () |
| ③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 ----- ◎ () △ () × () |
| ④ 학교에서 내 실력에 맞는 영어공부를 할 수 있으면 | ----- ◎ () △ () × () |
| ⑤ 학교영어 시간에 원하는 선생님들하고만 공부한다면 | ----- ◎ () △ () × () |
| ⑥ 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다면 | ----- ◎ () △ () × () |
| ⑦ 학교영어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면 | ----- ◎ () △ () × () |
| ⑧ 학교에서 더 재미있게 가르쳐준다면 | ----- ◎ () △ () × () |
| ⑨ 내 미래에 영어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 ----- ◎ () △ () × () |
| ⑩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원영어수업을 무료로 해준다면 | ----- ◎ () △ () × () |

부록 5. (영어사교육 전문가용 설문지)

영어사교육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영어학원에서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영어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하오니 다음 질문들을 잘 읽고, 물음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본인의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 02.08

※ 초등학교생들이(학생 또는 학부모의 결정에 의해) 귀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각 문항에 알맞은 칸에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 지 않다.
① 학생 스스로 영어공부에 흥미와 관심이 높아 영어공부를 더 하기 위해 다닌다.					
② 차별화 된 본 학원의 영어학습 교육에 대한 광고 때문이다.					
③ 학교영어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선택이다.					
④ 영어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⑤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영어지도를 못하기 때문이다.					
⑥ 주변 사람들의 영어 학습 열기에 위기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이다.					
⑦ 특목중고등학교 입학에 위해 토익, 텡스 등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이다.					
⑧ 원어민 영어 교사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⑨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영어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⑩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⑪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⑫ 학교 영어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의 영어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⑬ 학교영어 시간에 접할 수 없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 교육과정(curriculum) 때문이다.					
⑭ 자녀의 영어능력 향상 정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⑮ 주기적으로 영어학습상담을 하는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⑯ 미국교과서등 영어권 교재만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학원 등록 시 학부모의 기대 사항 및 요구들은 무엇인가?>

➤

➤

➤

➤

➤

※ 학생들은 다음 어떤 경우에 영어학원 교습을 하지 않을까요?

* 각 문항의 알맞은 칸에 √표 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❶ 학생이 영어공부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❷ 원어민 교사 없이 한국인 교사로만 영어를 지도 한다.					
❸ 학교에서 학원처럼 수준별, 개인별, 맞춤 영어교육을 한다.					
❹ 학교에서 영어 사교육(학원) 수준의 영어교육이 제공된다.					
❺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의 중요도가 중, 고등학교에서 낮아진다.					
❻ 학원비가 올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❼ 학교에서 방과 후에 국가가 지원하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❽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학습만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취업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❾ 영어교육방송(EBS)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❿ 국가차원의 영어능력 인증제가 실시된다.					
⓫ 특목 중, 고의 입시에서 공인영어능력 시험(토익, 토플, 텡스) 대신 국가가 인정한 영어 인증 급수를 반영한다.					
⓬ 대학입시에서 영어능력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⓭ 취업이나 승진 시 영어능력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⓮ 학교영어 공부 시간이 주 3회(6시간)로 늘어난다.					

<기타의견>

❶ 기본 사항 ❶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세요.)

1. 성 별 : ❶ 남___ ❷ 여___

2. 장 의 경 력 : ❶ 2년 미만 ___ ❷ 3-5년___ ❸ 6-10미만 ___ ❹ 10년 이상___

3. 담 당 수 준 : ❶ 초등 Basic___ ❷ 초등 Intermediate___

 ❸ 초등 Advanced___ ❹ 초등 토익, 텡스, 토플 대비반___

4. 귀하가 맡은 수강 학생 수 : 약 ()명

5. 귀하의 주당 강의 시간 수 : ()시간

6. 학급 당 학생 수 : 약 ()명

또 다른 꿈을 꾸기 위하여

최종 논문이 탈고되었습니다. 한껏 기지개를 켜 봅니다. 빠근했던 어깨 결림이 새삼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수고 많았어요.’ 남편의 한마디가 줄줄이 논문속의 어휘들을 끌어내어 거실 가득 채워 놓습니다. 드디어 남미숙의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고뇌했던 시간들이 이제 막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려나 봅니다.

‘예비고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고 3인 난 아직 영어책을 절반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낯선 단어들만 가득한 문장들을 읽느라 식은땀을 흘리며 가위눌려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래전부터 밤이면 자주 꾸던 나의 단골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꿈꾸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잘 겁니다. 사십을 넘어서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어 보았습니다. 기왕 하고자 한 공부, 인생의 전부를 학교와 함께 한 세월을 학문의 결정체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의 공부를 위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던 나의 남편 김병권씨, 엄마의 부족한 정성에도 당당하게 의전에 합격한 우리 딸 경아, 엄마가 지어준 따뜻한 밥 한 번 먹지 못해도 곳곳이 미국생활 잘 해내는 내 아들 기홍이가 제 논문의 주인공입니다. 소중한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 학습의 반려자 남경숙 언니에게도 이 논문을 바치며, 항상 함께 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오준일 교수님, 부족한 학문의 깊이로 고민하고, 좌절하고 두려웠을 때마다 주저없이 길을 열어주셨던 교수님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교수님의 제자였음이 얼마나 행운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세심한 지도로 논문을 완성하게 해 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제2의 꿈을 꾸려고 꽃씨하나 뿌려 볼까합니다. 아직 내 인생의 시계 바늘은 겨우 오후 한시인걸요. 언젠가 또 이 꿈을 꾸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그날 또 한 번 긴 감사의 글을 남기려 합니다.



2011년 2월 25일